

경기도의 여성인물

경기

www.ggcf.kr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학연구센터가 기획하였고 관련전문가가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경기도의 역사 인물 중 여성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먼저 역사 인물로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장희빈, 혜경궁홍씨, 명성황후, 최용신, 나혜석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전통시대 경기도의 여성으로 일반인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도미부인, 봉성현군 염씨(염경애), 민회빈 강씨(소현세자빈), 의순공주(이애숙), 희빈 장씨(장옥정), 숙빈 최씨, 임윤지당, 이사주당, 강정일당(강지덕), 혜경궁홍씨, 의빈 성씨(성덕임), 어윤희, 김향화, 변매향, 고양 밥할머니, 바우덕이 등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몸으로 일제에 항거한 여성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 공훈록』에서 선별하여 전재하였다. 김씨(홍원식 부인), 김씨(강태성 부인), 박금녀, 박순애, 소은명, 박충애, 신경애, 신마실라, 안옥자, 안희경, 오희영, 이선경, 임명애, 임순남, 정현숙, 조순옥, 오의선, 최문순, 어윤희 등이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여성인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연구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인물을 정리하고 주요인물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 이 책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그 존재감마저도 드러나지 않은 경기도 여성의 역사적 위상을 현양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집필은 1부와 3부는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이 맡았으며, 4부는 이달호(전 화성수원박물관장)가 선별, 발췌하였다. 그리고 2부는 이동화(인천일보 문화국 부국장), 유사량(인천일보 시사만평가), 전구주(전 세계일보 문화부 여성파트 차장)가 인물별로 분담했는데, 이동화는 혜경궁홍씨·명성황후·최용신·나혜석을, 유사량은 황진이와 허난설헌을, 전구주는 신사임당과 황진이를 각각 집필하였다.

■ 1부
총론 _11

■ 2부
경기도의
여성역사인물

- 신사임당 _30
- 황진이 _48
- 허난설헌 _61
- 장희빈 _74
- 혜경궁 홍씨 _88
- 명성황후 _101
- 최용신 _113
- 나혜석 _129

■ 3부
전통시대 경기도의
여성인물

- 도미부인(都彌夫人) _146
- 염경애(廉瓊愛) _152
- 강정일당(姜靜一堂) _161
- 임윤지당(任允擘堂) _168
- 고양 밥할머니 _175
- 숙빈 최씨(淑嬪 崔氏) _182
- 이사주당(李師朱堂) _191
-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_202
- 의빈 성씨(宜嬪 成氏) _209
- 의순공주(義順公主) _216
- 바우덕이[金巖德] _225
- 김향화(金香花) _229

■ 4부
일제에 항거한
여성독립운동가

- | | |
|------------------|------------------|
| 김씨(홍원식 부인) _238 | 오희영 吳熙英 _251 |
| 김씨(강태성 부인) _240 | 오희옥 吳姬玉 _252 |
| 박금녀 朴金女 _242 | 이선경 李善卿 李愛基 _253 |
| 박순애 朴順愛 _243 | 임명애 林明愛 _255 |
| 소은명 邵恩明 _244 | 임순남 林順男 林孝貞 _256 |
| 박중애 _245 | 정현숙 鄭賢淑 鄭正山 _259 |
| 신경애 申敬愛 申慶愛 _246 | 조순옥 趙順玉 _260 |
| 신마실라 申麻實羅 _248 | 오익선 吳義善 _261 |
| 안옥자 安玉子 _249 | 최문순 崔文順 _262 |
| 안희경 安喜敬 _250 | 어윤희 _264 |

1부
총론

총론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이 책은 경기도의 역사 인물 중 여성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책에 실린 인물은 도미부인, 봉성현군 염씨(염경애),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허초희), 민회빈 강씨(소현세자빈), 의순공주(이애숙), 희빈 장씨(장옥정), 숙빈 최씨, 임윤지당, 이사주당, 강정일당(강지덕), 혜경궁 홍씨, 의빈 성씨(성덕임), 명성황후(민자영), 어윤희, 나혜석, 김향화, 변매향, 최용신, 고양 밥할머니, 바우덕이 등이다. 지역별로는 하남시, 수원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개성시, 안성시, 안산시 등이며, 시대별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인데 조선시대가 가장 많다. 유형별로는 양반 가문의 부인, 왕실, 기생, 예술가, 남사당, 농촌계몽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성명	생물년	묘소	비고
하남시	도미부인			
수원시	봉성현군 염씨(염경애)	1102~1146	개성	
파주시	신사임당	1504~1551	파주	
	황진이	1506 추정	개성	
광주시	허난설헌(허초희)	1563~1589	광주	
광명시	민회빈 강씨(소현세자빈)	1611~1646	광명(영회원)	
의정부시	의순공주(이애숙)	1635~1662	의정부	
고양시	희빈 장씨(장옥정)	1659~1701	고양(서오릉)	
파주시	숙빈 최씨	1670~1718	파주(소령원)	

지역	성명	생물년	묘소	비고
여주시	임윤지당	1721~1793	원주	
용인시	이사주당	1739~1821	용인	
성남시	강정일당(강지덕)	1772~1832	성남	
화성시	혜경궁 홍씨	1735~1816	화성(응릉)	
고양시	의빈 성씨(성덕임)	1753~1786	고양(서삼릉)	
안성시	바우덕이(김암덕)	1848~1870	안성	
개성시	어윤희	1877~1961		
수원시	나혜석	1896~1948		
수원시	김향화	1897~		
안성시	변매화	1900~		
안산시	최용신	1909~1935	안산 샘골(상록수공원)	
고양시	밥할머니			

전통시대 여성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문데, 그나마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제 때의 도미부인 역시 이름이 없다. 도미는 남편의 이름이고, 그의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도미부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고려시대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성씨로만 불렸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군, 대부인이나 현, 군과 같은 봉작호를 가지게 되는데, 염경애가 여기에 해당한다. 염경애는 봉작호와 이름을 모두 갖춘 여성이다. 조선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이름을 쓰지 않고 사임당이나 난설헌, 윤지당, 정일당과 같이 당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근대 사회의 사회생활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성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 조선시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름이 밝혀진 여성들에게는 이름을

쓰던지, 아니면 ‘봉성현군 염경애’, ‘정일당 강지덕’과 같이 당호와 함께 이름을 밝혀줘야 하지 않을까?

백제의 도미부인은 정절관념이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에 처음 등장한 이래 조선시대의 역사서에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고, 조선 세종 때의 『삼강행실도』, 정조 때의 『오륜행실도』 등에 기록되어 열녀의 표상이 되었다. 열녀란 의(義)를 중하게 여기고 삶을 가볍게 여기는 여인을 말한다. 도미부인은 개루왕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도미가 개루왕 앞에서 한 말처럼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인물이다. 도미부인의 결말은 비극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도미부인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절과 사랑을 지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비극이라고만 볼 수 없다. 도미부인은 자신이 간직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세속적 가치와 고통과 비애를 넘어선 숭고한 인물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도미부인을 「열전」에 넣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개경의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난 봉성현군 염씨(염경애)는 25세에 수원의 향리 집안 자제 최루백과 혼인하였다. 염씨는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은 물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남편의 내조를 지극 정성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살림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4남 2녀, 6남매의 가정교육을 책임졌다. 염씨는 47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훌륭한 아내, 며느리, 어머니의 역할을 다한 현모양처의 전형이었다. 염씨가 특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남편 최루백이 쓴 묘지명이다. 그리고 이 묘지명이 주목받는 이유는 ‘염경애’라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편 최루백이 직접 묘지명을 짓지 않았다면 염경애 역시 봉성현군 ‘염씨’로만 알려졌을 것이다. 염경애는 남편의 묘지명으로 인해 이름을 남긴 고려의 몇 안 되는 여성이 되었다.

16세기를 살았던 신사임당 역시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데 사임당은 현모양처뿐만 아니라 학문과 재능을 고루 갖춘 여성이었다. 사임당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는데, ‘사임당’이라는 당호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부인 ‘태사’를 본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는 임윤지당도 마찬가지이다. ‘윤지당’의 당호 ‘윤’과 ‘지’는 태임과 태사의 친정을 뜻하므로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다. 사임당은 경전과 고전을 두루 읽어 한학에 정통할 뿐 아니라 시문과 그림에 특별한 자질을 보였다고 한다면 난설헌은 시(詩)에서, 윤지당과 강정일당은 학문으로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임당의 그림 솜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7세 때부터였다. 외할아버지 이사온이 안건의 산수화를 가져다주자 붓을 들어 똑같이 그렸다. 이후 그녀는 벌, 나비, 꽃, 개구리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그리면서 화가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사임당은 당대의 명사 소세양으로부터 “신묘한 붓이 하늘의 조화를 빼앗았다.”라고 칭송을 받았고, 어숙권은 『패관잡기』에서 사임당의 그림을 “포도나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건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였다.” 사임당은 생전에 이미 명성이 자자한 여류화가였다. 사임당의 그림을 칭송했던 소세양은 황진이와 30일을 같이 살았다는 바로 그 인물이다.

그런데 당쟁이 한창이던 17세기경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그녀를 사임당으로가 아니라 서인의 종주로 떠받들던 율곡의 어머니로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당파의 분쟁을 교묘하게 이용하던 숙종의 환국정치로 인해

입지가 약화된 서인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생각이었다. 1668년(숙종 14년), 송시열은 우의정 홍중보에게 편지를 보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신사임당의 묘소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율곡의 명성에 기대어 국가적인 행사로 어머니 신사임당을 추앙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또 신사임당의 그림에 ‘소나무 정자에서 바둑 두는 승려들이 한가롭네.’라는 발문을 붙인 소세양을 비난하면서 ‘부인의 그림에 승려 운운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신사임당의 그림이 불교와 연관되는 것을 배격하고 유교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화가보다는 대학자 율곡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뜻이었다. 1676년에는 신사임당의 신수도에 발문을 덧붙이면서 율곡을 낳은 그녀의 덕행을 극구 찬양했다.

신부인의 어진 덕이 큰 명현을 낳으신 것은 저 중국 송나라 때 후부인이 이정(二程) 선생을 낳은 것에 비길 만합니다. 후부인의 행장에 의하면 부인은 ‘부녀자들이 글이나 글씨를 남에게 전하는 것을 마땅치 못하게 여겼다’ 했는데 신부인의 생각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송시열은 그렇듯 율곡을 낳은 신사임당을 주자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유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의 어머니 후씨(侯氏)에 비견함으로써 조선 유학자들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송시열의 의도대로 신사임당에 대한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 관념이 조선 사회에 뿌리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자상하고 이해심 깊은 아내라기보다는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바탕으로 남편과 가정을 이끌었던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남편 이원수가 과거 공부를 게을리 하자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당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다고 협박했고,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년 동안 따로 살지며 절간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 고개 숙이지 않고 마주앉아 토론하였다. 이는 정일당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윤광현에게 학문을 권하고 토론하며 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나 정일당의 남편 윤광현 모두 과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사임당은 자식들에게도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직접 행동과 실천으로 모범을 보였던 어머니였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학문을 지도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선 자신이 먼저 공부하여 이해한 다음에야 가르쳤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주었다. 것처럼 신사임당은 자식들에게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였고, 남편에게는 고답적인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사임당이 자녀들을 잘 키운데 반해 정일당은 5남 4녀를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돌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떠나보냈다. 이는 사임당과 출신지가 같은 난설현도 마찬가지이다. 난설현의 두 자녀도 채 봉오리를 맺기 전에 해를 연이어 죽었다. 이때 쓴 시가 난설현의 「곡자(哭子)」이다.

지난 해엔 귀여운 딸을 잃었더니

이번 해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었네.
가슴 메어지도다, 광릉의 흙이여
작은 무덤을 나란히 마주 세웠네.

.....

응당 언니 아우의 혼들이 알아
밤마다 서로 손잡고 놀아라.

한편 사임당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출신성분이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여성이 황진이였다. 사임당이 1504년, 황진은 1506년 전후에 태어났으므로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이다. 허난설헌의 동생 허균에 의하면 황진은 개성 맹녀[눈먼 여자]의 딸이라고 하였다. 그녀의 어머니 진현금은 맹인이었지만 거문고를 잘 탔다. 맹인 악기(樂妓)였던 것이다. 진현금과 황진사라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황진이 태어났다. 그리하여 황진은 어머니 손에서 자라고, 거문고를 배웠고, 또 어머니 신분에 따라 기생이 되었다. 황진은 난설헌과 같이 특히 시(詩)에 조예가 있었다. 그러나 명문의 난설헌이 시집을 남긴 것과 달리 그녀의 시들은 시집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구전으로 10여 수 전할 뿐이다.

황진은 못 남성들과 일화를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중 임방의 『수촌만록(水村漫錄)』에는 소세양과 황진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소세양(蘇世讓)은 서울의 유명한 벼슬아치였다. 그는 황진의의 소문을 듣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장담하고는 개성으로 왔다. “내가 그녀와 30일의 기한을 정해 동거하되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사람이 아니다.” 그는 30일의 기한을

채우고 헤어지는 날 둘이서 남대문의 누각에 올라 술을 마셨다. 이때 황진이가 시 한 편을 써서 바치며 말했다. “공과 이별하면서 어찌 한마디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달빛 어린 뜨락에 오동잎 다 지고
서리 맞은 들국화 노랗게 피었네
누각이 높아 하늘이 한 척이고
사람이 취해 술이 천 잔이라
흐르는 물 거문고 가락에 맞춰 서늘하고
매화는 피리소리에 들어 향기롭구나
내일 아침 서로 헤어지고 나면
그리운 정 푸른 물결인 양 길게 뻗치리라

소세양이 이를 받아 읊조리고 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동료들과의 약속을 집어던져 버린 것이다. 그 외에도 벽계수, 이사종, 지족선사와의 일화가 있지만 특히 서경덕과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훗날 백호 임제는 평안도사가 되어 송도를 지나면서 그녀의 무덤에 축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가 조정의 비방을 받았다. 임제는 좁은 조선 땅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좁스런 인간 군상에 구역질을 느껴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며 호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신사임당과 황진이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1563년에 시(詩)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허난설헌이 강릉에서 태어났다. 난설헌에게는 위로

허성, 허봉 두 오빠가 있었고, 아래로 동생으로 허균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들 형제를 두고 3허니 4허니 일컬으며 형제시인으로 꼽았다. 이들 집안은 당시 많은 시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중 당시 3당(三唐)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미천한 출신인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과 유난히 친분이 두터웠다. 허난설헌과 허균은 어릴 적부터 이달에게 시를 배웠다. 이달은 양반의 혈통을 받았으나 어머니가 기생 출신 첩이어서 서자로 살았다. 이로 인해 그는 낮은 벼슬을 얻었다가 내팽개치고 방랑생활로 나날을 보냈다. 그의 시명(詩名)은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런 이달에게서 명문 자녀인 이들 남매가 시를 배웠던 것이다.

난설헌도 나이가 차자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안동 김씨 집안의 남편을 맞이했다. 그런데 남편 김성립은 과거 공부를 했지만 별로 진전도 없었고 더욱이 아내와 시를 주고받을 수준도 안 되어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화목하지도 못했다. 여기에다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쌓여 걸핏하면 기생방에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고 술에 취해 새벽에 돌아오곤 했다. 난설헌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딸과 아들을 두었다. 그녀는 모든 애정을 자식들에게 쏟았고 어린 남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런 두 자녀가 차례로 죽은 것이다.

그녀의 불행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친정집에도 풍파가 이어졌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상주에서 객사했고 이어 오빠 허봉은 동인의 선봉에 서서 서인의 영수 율곡 이이(李爾)를 탄핵했다가 귀양 가게 되었다. 허봉은 2년 뒤 풀려나 백운산, 금강산 등지로 방랑생활을 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처럼 객사하고 말았다. 그녀는 삶의 의욕을 잃었다. 그녀는 삼한(三恨), 곧

세 가지를 한탄했다고 한다. 첫째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요, 둘째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요, 셋째는 남편과 금슬이 좋지 못한 것이라 한다. 그녀는 한과 원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 2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태교신기』를 저술했던 이사주당 역시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사주당은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의 11대손으로 부친 이창식과 어머니 강씨 사이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으나 조부와 부친이 벼슬을 하지 못했고 남자 형제들조차 모두 벼슬을 하지 못해 곤궁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사주당은 어린 시절 이름날 정도로 길쌈과 바느질을 잘 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길쌈과 바느질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자각을 통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후 사서삼경 등 경서를 섭렵, 이씨 문중의 남자들 중에서 이사주당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희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사주당의 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사주당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주당은 25세 때 21살이나 연상인 유한규와 혼인하여 용인으로 시집왔다. 유한규는 3명의 부인과 사별한 후 4번째 부인으로 이사주당을 맞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결혼생활도 20여 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면서 끝이 났다. 그녀는 전처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어린 4남매를 데리고 분가했다. 생계를 위한 고단함 속에서도 직접 교재를 만들어 딸들을 가르친 열정은 세 딸로 하여금 학문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아들의 성향을 파악한 그녀는 출세를 보장하는 과거보다는 학자의 길을 걷게 했는데 어머니의 바람대로 유희(柳禧)는 실학자이자 음운학자로 성장하여 『문통(文通)』 등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유학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여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시주당은 1800년에 이르러 『태교신기』라는 저술을 남겼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62세에 완성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희(柳禧, 1773~1837) 등 4남매를 낳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의서, 여성 교양서와 당시의 구전태교 등을 참조하여 독창적으로 저술한 책이다.

사대부가 여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면 왕실의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병자호란이 끝난 후 민회빈 강씨(소현세자빈)는 인질로, 의순공주는 조선왕실의 마지막 공녀(貢女)로 청에 끌려갔다. 민회빈 강씨는 생소한 타국 땅에서 조선 여인의 능력을 발휘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세자가 관소를 비우면 세자를 대리하였고, 심양 관소에 대한 물적 지원이 끊기자 경제 전선에 뛰어들었다. 심양 관소에는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여 상당한 운영 경비가 필요하였다. 민회빈이 현지에서 농업과 무역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많은 조선인 피로인들이 속환되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민회빈은 왕실 여성으로는 드물게 8년 동안 심양에서 불모살이를 하고, 귀국할 때 많은 재물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영 수완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행보는 소현세자의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장차 자신의 권좌를 찬탈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시아버지 인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금의환향했던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석에 누워 목숨을 잃었고, 민회빈은 인조로부터 저주와 독살 기도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36세의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의순공주 또한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녀로 끌려간 것도 불행이었으나 남편인 도르곤이 사냥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도르곤이 은밀히 황제 자리를 엿보았고,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묘를 파내 부관참시한 후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의 여러 처첩들도 제왕에게 분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죄상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화석단중친왕(和碩端重親王) 박락(博洛)에게 보내졌다. 그런데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박락마저 사망했다. 이를 두고 의순공주가 도르곤에게 소박을 맞아서 그 부하에게 시집갔다는 등 조선에서는 말이 많았다. 의순공주는 이역 땅에서 과부로 살고 있다가 1655년 청에 사신으로 온 아버지 이개윤의 간청으로 순치제의 허락을 받아 귀국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신으로 가서 사사로이 딸을 돌려줄 것을 청했다는 이유로 삭탈관작하고 성문으로 쫓겨 가는 처벌을 받았으며,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의순공주는 6년도 채 못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 불과 28세였다. 병자호란에 패배한 대가를 국가가 아닌 그녀들이 대신 지불했던 것이다.

회빈 장씨는 역관 장형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었으므로 종모법에 의해서 자신도 천민이었다. 주어진 신분대로 산다면 양반의 첩이나 될 운명이었다. 회빈은 이를 거부하고 궁으로 들어갔다. 회빈이 근무하던 대왕대비전은 왕이 조석으로 문안을 드려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자연히 숙종의 눈에 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천출이었던 회빈은 일국의 국모로서, 장차 국왕의 모후로서 거칠 것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 조선왕조 5백 년 동안 미천한 여종의 딸이자 궁녀가 당대에 왕비로 책봉된 예는 회빈이 유일했다. 그러나 회빈의 나이 서른이 넘고, 중전으로서의 존재감도 없어지자 숙종은 인현왕후의 시녀였던 나인 최씨가 왕비의 생신을 맞아 몰래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역사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숙빈은 희빈 보다 11살 아래였다. 얼마 후 숙종은 착하고 순종적인 최씨를 후궁으로 맞았다. 희빈으로 인해 쫓겨났다 복위되었던 인현왕후가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숙빈 최씨는 희빈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을 숙종에게 고해 바쳤다. 결국 이로 인해 희빈은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하직했다. 그녀의 나이 43세였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와 같은 나이였다.

혜경경 홍씨는 정조의 어머니로, 의빈 성씨는 정조의 후궁으로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다. 혜경궁은 10세에 궁으로 들어가 세자빈이 되었다. 어린 혜경궁의 궁궐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런대로 행복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누이 화평옹주를 몹시 편애했고, 사도세자는 그런 누이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조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화평옹주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빠진 영조의 심기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멀어져갔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질책하면서 부자간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갔고,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 혜경궁의 나이 28세 때의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혜경궁에게 효도를 다했다. 그러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한 외가에 칼을 휘둘렀다. 혜경궁에게 또 위기가 온 것이다. 혜경궁이 막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아버지 흥봉한과 처남 흥낙인 뿐이었다. 그래도 혜경궁은 오래 살았다. 정조가 승하한 후 15년을 더 살다가 81세에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혜경궁 사가(私家)의 청지기 딸인 의빈은 10세 때 혜경궁 처소의 궁녀로 입궁했다. 혜경궁이 10세에 입궁해 세자빈이 된 것과 꼭 같은 나이이다.

혜경궁은 의빈을 자식처럼 길렀다. 그래서인지 의빈은 궁녀로 있을 때부터 정조의 여동생 청연공주, 청선공주와도 가깝게 지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과 같이 『곽장양문록』을 필사한 일이다. 한글로 쓴 국문 소설이며, 필사 시기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필사 소설이다. 의빈은 정조의 승을 세 번씩이나 거절하였다. 의빈이 28세가 되던 해에 의빈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리자 정조의 승을 받아들이고 후궁이 되었다. 의빈이 정조의 승을 세 번씩이나 거절한 것은 세손빈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빈의 마음을 알았던지 정조도 15년이나 기다렸다. 정조의 후궁이 된 의빈은 창덕궁 연화당에서 문효세자를 낳았다. 2년 뒤 다시 옹주를 낳았다. 의빈과 정조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옹주는 불과 생후 2개월도 안 되어 경풍으로 죽어 작위조차 받지 못했다. 문효세자 역시 2년 뒤인 5세를 일기로 홍역으로 요절했다. 문효세자 사망 당시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의빈 성씨 또한 앓기 시작해서 그 해를 못 넘기고 만삭의 상태로 창덕궁 중희당에서 숨을 거두었다. 향년 34였다.

명성황후 민씨는 1851년 아버지 민치록과 어머니 한산 이씨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9세 때 민치록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와 함께 인현왕후의 사가 감고당으로 이사했다. 1866년 16세에 왕후로 간택되어 입궁했다. 민씨는 성년이 된 고종에게 친정을 하도록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대원군의 퇴진 공세를 펼쳤다. 1874년 왕후 민씨는 둘째 아들 척을 낳고 한 시름 놓았지만, 폭탄테러로 친정오빠 민승호와 그의 아들, 어머니 등 세 사람을 잃었다. 청일전쟁 이후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주춤하자 왕후 민씨는 친러내각을 출범시켰다. 이제 일본에게는 왕후가 위협으로 느껴졌다. 결국 일본은 왕후

민씨를 제거하기로 하였다. 일본인 오카모토와 스즈키, 와타나베는 왕궁을 침범하여 옥호루에서 민씨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해서 밀려오는 외세에 맞서며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일으키려던 비운의 여인 민자영은 44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일본 도쿄에서의 2·8독립선언이 있는 직후 고종이 갑자기 붕어(崩御)하자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1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3·1만세운동은 주체나 참여자도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 학생들이 단독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서당 생도가 주동한 곳도 10여 개소에 이른다. 상인은 물론 농민, 노동자, 승려, 어린이 거지, 기생이 주동한 곳도 있다.

이때 어윤희는 개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돌리고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이끌다가 체포되었다. 2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밀사들에게 여비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고 개성경찰서 폭파계획에 가담했다가 다시 투옥되었다. 그녀는 석방된 뒤에 사회사업을 시작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하하여 서강교회 장로로 시무하면서 서울 마포에 서강유린보육원을 설립, 운영하다 1961년 타계하였다.

수원에서는 수원예기조합의 기생 김향화, 안성에서는 변매화가 3·1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김향화는 본명이 순이로 경성에서 나고 자랐으며 수원에 내려와 기생이 된 후 수원예기조합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919년 3월 29일 수원 기생 30여 명과 수원군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도중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여 수원경찰서 앞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때 나이 23세였던 김향화는 일제경찰에 의해 만세운동 주모자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징역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안성예기조합의 변매화도 마찬가지였다. 안성예기조합의 기생들은 변매화를 비롯하여 송계화, 고비연, 리봉선, 강련화 등 5명이다. 나이는 19세가 2명, 16세, 18세, 25세 각각 1명으로 모두 안성출신이었다.

한편으로 자신의 삶을 예술가로서, 또는 농촌계몽운동가로서 살아간 여성들도 있었다. 나혜석과 최용신이 그들이다. 근대 신여성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나혜석은 수원에서 태어나 오빠의 권유로 미술을 시작했으며 여권신장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되는 등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지녔다. 여러 국가를 여행하였고 귀국 후에는 사회에 저항하는 글을 썼지만 무시당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각지를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최용신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협성여자신학교(현 감리교 신학교)에 재학하면서 농촌계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 학교를 중퇴하고 농촌운동에 전념할 것을 결심, 감리교선교사 밀러(Miller)의 후원을 받고 파송단체는 YWCA 소속으로 하여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지금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농촌교육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야학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식 교사(校舍)를 지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교육내용은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 강습뿐만 아니라 산술·보건 및 농촌생활에 필요한 상식과 기술, 애국심과 자립심을 북돋우는 의식계몽 등에 힘을 기울였다. 1934년 일본 고베신학교(神戸神學校)에 유학하였으나

신병으로 귀국하였고, 샘골에서 휴양하면서 농촌교육을 계속 전개하다가 장중첩(腸重疊)으로 병사하였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무대가 된 곳이 샘골이며, 여주인공 채영신(蔡永信)은 최용신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최용신은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농촌계몽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순교자적인 활동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남사당패로 이름을 날린 여성도 있다. 안성의 바우덕이가 그 인물이다. 바우덕이는 1848년 안성의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1853년 남사당패에 맡겨져 줄타기, 살판 등의 남사당 놀이를 익히게 된다. 바우덕이가 15세 되던 해에 안성 남사당패의 꼭두쇠가 연로하여 새로운 꼭두쇠를 선출할 때 바우덕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에 지친 노역자를 위로하기 위해 공연을 펼치는 자리에서 바우덕이가 이끄는 남사당패는 뛰어난 공연으로 고종과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받는다. 이것이 바로 안성 남사당패 영기에 걸어준 옥관자였다.

이후 바우덕이가 이끄는 안성 남사당패는 전국 어디에서나 공연이 가능한 최초의 전국구 공연단체가 되었으며, 평생 전국을 돌면서 남사당을 대중공연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힘든 유랑 생활 속에서 폐병을 얻어 1870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2부

경기도의 여성역사인물

신사임당(申師任堂)

전구주(전 세계일보 문화부 여성파트 차장)

‘율곡의 어머니’ 로서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
‘내조를 잘한 자의식 강한 여성’으로 평가받아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두문리 자운산 기슭에 자리한 자운서원(紫雲書院) 뒤편에는 율곡 이이(栗谷 李瑋)와 그의 가족묘 11기가 가족묘로 조성되어 있다. 율곡의 위패 등을 모신 자운서원과 가족 묘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525호로 지정되었다. 이중 율곡의 묘역 아래에는 높이 1.5m 지름 2m로 봉분을 올린 신사임당과 남편 이원수의 합장묘가 자리한다.

‘조선 중기의 화가이자 문인으로 율곡 이이의 어머니’

대부분의 사전에는 사임당을 위와 같이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명이 ‘인선(仁善)’이라는 설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역사적으로 확실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인선이라는 이름은 위인전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것도 확인은 되지 않았다.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고려 최고의 개국공신인 신숭겸(申崇謙)이 시조다. 호는

사임당(師任堂), 시임당(媿妣堂), 임사재(任師齋)를 함께 사용했다.

중국의 주나라 역사상 최고의 현군으로 꼽히는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을¹⁾ “본받고 따르겠다.”는 뜻에서 ‘스스로’ 지어 사용한 당호(堂號)가 곧 사임당이다. 당호는 본채나 별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당(堂)은 안주인이 기거하는 집안의 한 건물이다. 사임당이 강릉 오죽헌에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부친 당호에, 후세 사람들이 그의 성을 붙여 ‘신사임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사임(師任)에서 ‘사(師)’는 스승을 의미하고, ‘임(任)’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다.

사임당의 아버지는 영월군수를 지낸 신숙권(申叔權)의 아들 신명화(申命和)이다. 어머니는 세조 때 원종공신 이유약(李有若)의 손자인 이사온(李思溫)의 외동 딸 용인이씨(龍仁李氏)다.

사임당의 삶은 아들인 율곡이 기록한 「선비행장(先妣行狀)」을 통해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 그 기록에 의하면 사임당은 1504년(연산 10년) 음력 10월29일에 강릉 외가에서 신명화와 용인이씨 사이의 다섯 딸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사임당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여 외할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이사온은 대사헌·형조참판 등을 지낸 최응현(崔應現)의 둘째딸 강릉최씨와 혼인을 해서 사임당의 어머니인 용인이씨를 외동으로 두었다. 이사온은 결혼 후 처가로부터 오죽헌을 물려받아 강릉 북평촌에 살았다. 과거에 급제를 했으나 관직에는

1) 간독(簡牘)을 묶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닳아 없어질 만큼 (주역)을 읽었다는 공자는 이상적인 인물로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창립한 문왕을 꼽았고 그 문물 또한 존중했다. 특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태교를 본받고 싶어 했다. 그의 성품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오직 덕(德)을 실행한 것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태임이 문왕을 가졌을 때는 “눈으로는 사악한 빛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오르지 않았다.

서울 출신인 아버지 신명화도 마흔이 넘은 1516년(중종 11년) 식년시에 급제를 했으나 관직에 오르지 않고 그저 진사에만 머물렀다. 당시 조정에 영향력 있는 이들이 그를 현량과에 천거를 하려했으나 극구 사양한 것으로 전한다. 그가 44세가 되던 1519년에는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이 대거 숙청된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다. 신명화는 앞을 내다보고 관직을 사양했던 것이다.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의 본관은 용인(龍仁). 강릉의 토호이자 큰 벼슬을 지낸 할아버지 최응현과 이조참판을 지낸 아버지 최치운(崔致雲)의 충애를 받으며 성장했다. 용인이씨는 외할아버지가 있는 강릉을 근거지로 성장했고, 결혼 이후에도 시가로 가지 않았다.²⁾ 사임당 역시 어머니를 이어 외가인 강릉에서 성장했고, 결혼 후에도 한참동안 시택으로 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와의 대면도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였다. 생활 근거지를 시택으로 옮긴 것은 결혼 후 20년이 다 되어서였다. 이는 외가와 밀접한 관계를

2) 조선 초기에는 고려를 이어 여성들의 권한이 강했다. 이것이 성리학을 적극 장려한 성종 때에 이르러 바뀌기 시작해서 사임당이 활동하던 중종 때에는 많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 혼인을 바탕으로 한 가족문화는 여성의 거주지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사임당과 어머니 용인이씨가 친정에 거주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임당이 혼인을 할 무렵의 조선은 혼인 방식을 친영례(親迎禮)로 바꾸려는 왕실·사대부들과 오랜 혼인 전통을 유지하려는 민간 풍습이 충돌하며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인 집에 간다는 말에서 유래된 '장가 간다'는 말처럼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상당 기간 머물러 사는 것이 전통 혼례 풍습이었던 것이다. 반면 왕실이나 사대부들은 신부 집에 인사만 하고 당일 본가로 돌아오는 친영례를 실시했다고 『세종실록』은 전하고 있다. 『태종실록』에도 '혼인 예법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에서 자라게 한다. 조선에서도 아직 옛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예조의 보고가 있다. 이런 혼인 풍습을 바꾼 것은 세종과 유학자인 사대부들이었다. 세종은 결혼제도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 신랑 집에서 혼인하는 중국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속신옹주의 혼례를 중국식으로 치르면서 왕실이 앞장 서 이를 실천했다. 그로부터 거의 90여년이 지난 중종 17년에 혼인을 한 사임당은 당시에 만연했던 이 풍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셈이다. 사임당 혼인 당시 재위중인 중종은 "혼인은 만세의 시작인데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은 천도에 역행하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혼인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게 추는 여성에게서 남성에게로 옮겨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임당과 동향으로 고작 40년 후세사람인 허난설헌이 지난한 시집살이와 무능한 남편 때문에 천재적 기질을 다 펴지 못하고 요절한 것과 비교해보면 가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했던 조선 전기에만 가능한 가족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계중심의 가족문화는 17세기 이후에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용인이씨에 관한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외손자인 이이의 문집을 집대성한 『율곡전서』 「이씨감천기」에 가득하다.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조정으로 본다면 신은 있으나 마나 한 보잘 것 없는 존재이오나 외조모에게 신은 마치 천금의 보물 같은 몸이오며 신 역시 한번 외조모가 생각나면 눈앞이 아득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절한 기록을 남길 만큼 각별했다.

「이씨감천기」에는 사임당과 어머니 이씨 부인이 시택으로 들어가지 않은 대신에 자신의 어머니를 시병하고 대신 남편이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생겨난 이야기가 전한다. 『중종실록』에도 나오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다.

‘원하건대 저의 몸으로 남편의 생명을 대신해주소서’

용인이씨는 강릉과 서울을 16년간 오가던 남편 신명화가 어느 날은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자 왼 손 중지 두 마디를 자르며 “저의 몸으로 남편의 생명을 대신해주소서”라고 하늘에 빌었다. 하늘에 남편의 쾌유를 빈 장소는 사임당의 외할아버지이고 율곡의 외증조할아버지인 최치운의 묘소였다. 용인이씨가 49세가 되던 중종 23년(1528년)에 ‘병이 든 남편 신명화의 치유를 하늘에 빌어 감천(感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용인이씨를 기리는 열녀의 정각이 세워졌다.

용인이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지 않고 강릉에서

지냈다. 외동딸인 관계로 재산 또한 모두 물려받고 있다. 사임당의 사후에 유산을 나누는 과정을 기록한 「분재기」에는 이 집안의 노비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 어머니를 둔 덕에 사임당 역시 자긍심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다해준 외할아버지 덕분에 그 또한 '산수화의 명인'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고, <사임당서파>라는 유파를 남길 만큼 자기세계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사온은 어린 손녀딸이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안견(安堅)의 그림을 어렵게 빌려와 모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율곡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사임당이 일곱 살 때 외할아버지가 보여준 안견의 그림을 모방해서 산수도(山水圖)를 그렸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은 또 사임당이 “어렸을 때부터 경전에 능통하고 글도 잘 지었으며 글씨 또한 잘 썼을 뿐 아니라 바느질과 자수도 잘 했다”고 전한다.

사임당은 1522년(중종 17년), 열아홉 살에 덕수이씨 가문의 이원수(李元秀)와 결혼을 했다. 이원수는 태종 때 한성부윤을 지낸 이추(李抽)의 증손이자 홍산현감을 지낸 이의석(李宜碩)의 손자다. 이원수의 조모는 세종 때 한글 창제 반대로 유명한 유학자 최만리(崔萬理)의 딸인 해주최씨(海州崔氏)다.

이원수의 아버지 이천(李薦)은 관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천의 사촌들로 이원수의 당숙인 이기(李芑)³⁾·이행(李荇) 형제는 1519년 기묘사화로

3) 이원수의 당숙 이기는 1501년(연산군 7년) 식면문과 상등과로 급제를 했다. 그러나 장인인 김진(金震)이 부정하게 뇌물을 받은 탐관오리, 즉 장리(臧吏)였다. 때문에 사위인 이기는 내내 좋은 벼슬을 얻지 못하다가 이언적의 주장이 통하여 형조판서, 병조판서로 발탁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운 일파가 득세하자 탄핵을 당하고 강등이 되었다. 이후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이때 윤임, 유관 등을 제거하고 공신에 책록되어 풍성부원군에 봉해진다. 또한 병조판서를 겸하여 조정의 대권을 장악하고 좌의정,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이기를 반대한 사람은 모두 숙청되었다. 사후에 문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나 선조 초년에

조광조(趙光祖)가 실각한 직후 한성부윤, 공조판서 등의 높은 직위에 올랐다. 덕수이씨 집안이 후에 이이와 이순신(李舜臣)으로 문무 양쪽 모두에 크게 이름을 높이지만 당시로서도 그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6대에 걸쳐 장원급제를 한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그 격이 한참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원수의 자는 덕형(德亨)이며 이름은 ‘난수(蘭秀)’라고도 했다. 본관은 덕수(德水). 과거에는 급제를 하지 못했으나 벼슬은 사헌부 감찰에 이르렀다. 성수침(成守琛)이 지은 이원수의 지문에는 ‘성격이 착실하고 꾸밈이 없었으며 너그럽고 겸손하며 옛 사람의 기풍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송시열도 이원수의 묘표를 지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율곡과 연계해서다. ‘율곡이 동국 유학의 정통을 밝혀 이름이 후세에 길이 남게 되었으니, 율곡의 부친인 이원수 또한 이름이 길이 남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사임당이 높은 예술세계를 추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임당은 현철한 어머니의 훈계 마음껏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을 가질 수 있었고, 유교 사회의 전형적인 남성 우위의 허세를 부리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 이원수는 아내의 자질을 인정해주고 간언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다. 아내와 문화적 공감대를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 넓은 남자였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이해했다.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에도 인색하지 않아 대화에서 배울 것은 배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임당이 “당숙 이기와의 교류를 삼가라”고 조언한 것이었다.

“어진 선비를 모해하고 권세만을 탐하는 당숙의 영광이 오래 갈 수 없을

그가 받은 훈록은 모두 삭탈되었다.

것.”이라면서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사임당의 충고를 귀담아 들은 덕에 이원수는 사화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기 형제와 아주 무관하지는 않았던지 아들 율곡은 자신이 직접 쓴 아버지 행장(行狀)을 남기지 않았고, 어머니에 대한 것만 「선비행장(先妣行狀)」을 통해 직접 남긴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사임당이 “어울리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했다는 당숙 일당과 아주 절연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관직에도 수차례 올랐기 때문이다.

사임당은 남편 이원수가 음서(蔭敍)로 관직에 올라 한강의 수운을 담당하는 수운판관(水運判官)으로 임명되어 이선과 이이 두 아들을 데리고 평안도로 업무를 보러 간 사이에 병이 나서 48세에 사망을 했다.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는 무남독녀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학문을 배웠고 출가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이 겪는 시가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어머니에게서 직접 훈도를 받은 사임당은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리가산만첩봉(千里家山萬疊峰) 산 첩첩, 내 고향 천리이건만
 귀심장재몽혼중(歸心長在夢魂中) 자나 깨나 꿈속에서도 돌아가고
 한송정반쌍윤월(寒松亭畔雙輪月) 한송정 호수에 외로이 떠있는 달
 경포대전일진풍(鏡浦臺前一陣風) 경포대에 부는 한줄기 바람
 사상백로항취산(沙上白鷺恒聚散)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파두어정각서동(波頭漁艇各西東) 고깃배들 바다위로 오고 가리니
 하시중답임영로(何時重踏臨潁路) 언제나 강릉 길 다시 밟아
 채복반의슬하봉(綵服斑衣膝下縫) 색동옷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하나
 - 「모친(母親)」 전문

사임당이 결혼을 하자 아버지 신명화는 사위인 이원수에게 “맏딸은 아니지만 아픈 어미 곁에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며 강릉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 때문에 사임당은 친정에서 상을 치르고 나서 겨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이때의 생활 근거지는 강원도로 강릉과 봉평 일대였다. 그리고 38세 되던 해에야 시택 살림을 물려받기 위해 서울로 갔다. 이후 서울 여러 곳과 경기도 파주 등에서 생활을 꾸렸다.

사임당은 강릉에서의 생활을 무척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이의 기록에 의하면 결혼 한 이후에도 20년을 머물렀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밤중에 울기도 하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강릉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은 시, ‘머리 하얀 어머니를 임영에 두고 / 장안을 향하여 홀로 가는 이 마음 / 고개 돌려 북촌을 바라보나니 / 흰 구름 날아 내리는 저녁 산만 푸르네 -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이 증명한다.

어린 시절의 사임당이 글을 배운 사람은 어머니였다. 이후 외할아버지로부터 『소학』과 사서삼경, 서예,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으로 사료된다.

사임당과 동시대 사람인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패관잡기』에는 사임당의 당시 명성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근래 선비로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산수화에는 별좌 김장(金璋)과 사인 이난수(李蘭秀)의 아내 신씨와 학생 안찬이 있고, 영모를 그린 잡화에는 종실 두성령(杜城令)이 있으며…’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난수의 아내 신씨가 뛰어난 솜씨를 보인 장르가 바로 ‘산수화’라는 데 있다. 『패관잡기』 4권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동양신씨(申氏)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포도와 산수는 한때 절묘하여 평하는 사람들이 안견 다음 간다 하였다. 아, 어찌 부인의 필치라 해서 소홀히 해서야 되겠으며 또 어찌 부인의 마땅히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책망할 것인가’

생전에 사임당의 산수화를 감상했던 양곡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은 ‘오묘한 생각과 뛰어난 솜씨는 다른 사람이 따라잡기 어렵다(妙思奇蹤未易攀)’라고 역시 그의 산수화의 뛰어난 솜씨를 기록하고 있다. 또 율곡 이이가 모친의 행장을 쓰면서 ‘산수화를 그리신 것이 지극히 묘하셨고 또한 포도를 그리셨으니 모두 세상에 견줄만한 이가 없다(遂作山水畫, 極妙, 又畫葡萄皆世無能擬者)’라고 칭찬해 산수와 포도그림 모두에 뛰어났음을 밝히고 있다.

율사사회에 연루되어 성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친 이문건은 셋째아들 율곡의 혼사를 위해 성주를 방문한 이원수를 소개받으며 ‘산수화를 잘 그린 신씨의 남편’이라는 기록을 『목재일기』에 남겼다. 이문건은 서울에 있으면서 평소 사임당이 산수화에 뛰어났음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은 대략 40폭 정도인데 산수포도·묵죽·묵매·초충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즐겨 그렸다. 산수에서는 안견과 화풍과 강희안 이래의 절과 화풍을 절충한 화풍을 세워 16세기 전반에 생겨난 산수화단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산들은 나지막하고 옆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수면을 따라 전개되는 공간은 막힘이 없이 끝없이 펼쳐져있는 「월하고주도(月下孤舟圖)」의 구도나 공간처리 등은 안견파의 것을 확산시킨 듯하지만, 필묵법이나 준법은 절과 계통의 영향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임당이 산수화에 능통했다는 기록은 이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대신 초충도(草蟲圖)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룬다.

사임당은 초충도에서는 여성적인 섬세한 필치와 미려한 설채법을 구사했다. 그 한 예로 8폭 병풍 「가지」를 보면 화폭의 중앙에 곡선 진 가지의 두 줄기가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서있고, 섬약한 줄기들에는 밤색과 흰색의 가지들이 곱게 열려 있다. 안정된 구도 몰골법(沒骨法)으로만 이루어진 묘사이다. 아담하고 음영을 살린 설채법 등은 사임당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수화와 초충도는 별개인데 한쪽만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송시열의 주장에 기인한다.

송시열은 신사임당의 산수화와 난 그리고 초충도를 모두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시열은 그림을 보고 산수화를 ‘위작’이라고 했다. “그림 수준이 전문적이고 소세양이 쓴 글에 승려가 등장하며, 또한 남성이 여성의 그림에 제발(題跋)을 쓰는 일이 가당치 않다”는 것이 ‘위작의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초충도에 대해서는 사임당의 신묘한 그림 솜씨를 대학자 ‘율곡을 낳은 것’과 결부를 시켜서 칭송하고 있다. 화가 사임당으로서가 아니라 율곡의

어머니로서의 비중을 더 둔 것이다.

송시열의 이런 태도는 18세기 들어서는 노론계 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이어졌다. 사임당을 연구해온 고연희 등의 조사에 의하면 이 시대 문집 21건 중에 언급된 신사임당 그림은 오직 초충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속 가을 풀벌레의 울음에서는 ‘지아비를 그리고 가족을 염려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다. 또 효심만을 특별하게 길어 올렸다. 이때에 거론된 신사임당의 초충도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신경(申暲, 1696~1766년)의 소장본과 1978년 박정희 전(前)대통령이 기증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것이 온전하게 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한다. 오늘날 사임당의 작품으로 그림 80여 점과 글씨 7점이 전한다. 하지만 이 작품 모두에는 ‘전칭작(傳稱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⁴⁾

사임당을 연구한 고연희, 유정은 등의 논문에서는 ‘18세기에 신사임당과 초충도라는 등식이 설립된 데에는 율곡이 갖는 학파적 위상과 무관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고 있으며,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파 학자들이 합심해서 진행시킨 문화 현상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당대 최고의 산수화가로 꼽히는 정선(鄭敎) 역시 초충도를 그렸고, 당시 도자기에도 초충 문양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화가, 그것도 산수화가로서 유명했던 사임당이 부덕의 상징으로서 존경받게 된 것은 사후 1백년이 지난 17세기 중엽부터라 할 수 있다. ‘천지의 기운이 응축된 힘으로 율곡을 낳았고 훌륭한 태교와 교육을 통해 율곡을

기른’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의 그림을 찬탄한 송시열이 유학을 보수화로 이끌면서부터다. 유학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된 율곡의 어머니로 칭송받는 것이 승려와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제가 들어 있는 산수화가로 회자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사임당에 대한 유학자들의 존경은 18세기 들어 유학적 가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더욱 신격화되어 뛰어난 화가, 시인, 서예가로 평가받기 보다는 ‘부덕과 모성의 상징’으로 한층 변화되었다. 물론 사임당이 화가로서나 효녀, 그리고 현모양처로서 훌륭한 여성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때 생성된 이미지는 오롯이 전통시대에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것이었다. 화가나 문인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삶이 더 부각된 것이다. 이는 사임당을 부덕의 상징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한 현모양처라는 일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고정화시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없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사임당은 또한 ‘군자(君子)의 길’을 당당하게 걸었다는 기록이 문헌 곳곳에 산재한다. 조선시대 ‘선비’라는 단어와 동일시되는 군자는 곧 남자, 그것도 존망 받는 유학자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사임당을 군자라고 불렀다. 그가 일관되게 지켜낸 행동 때문이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 남편이 그릇된 판단을 하면 망설임 없이 지적했고, 7남매에게도 스스로 모범이 되었다. 자신부터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이 각자 목표대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기다려주었다. 스승 같은 어머니였고 조언하는 아내였다. 규방에 갇히지도 않았다. 태어난 강원도와 서울 그리고 경기도 일대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삶 속에서도 자기완성을 위한

4) 전칭작(傳稱作)이란, ‘그 사람이 그랬다고 말해지는 것으로 전하는 작품’이라는 뜻. 그림을 볼 때 심적 증거만 있고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후대 화가들과 전문가들이 전칭작(傳稱作)이라고 해서 이름 앞에 전할 전(傳) 자를 붙인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훌륭한 작품을 남긴 것이다. 시에서는 지극한 효심을, 서예에서는 <사임당서파(師任堂書派)>가 형성될 정도로 탁월한 유가 미학과 율곡은 인격을 보여준 것이다.

사임당을 평가하는 방식은 달랐다. 율곡이 존송되고 선양될수록 사임당은 그 아들의 어머니에 걸 맞는 모습으로 구성되어갔다. 세상을 떠나 17세기에 접어들자 사임당은 율곡을 종주로 하는 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율곡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임당의 어떤 일면을 부각시키고 무엇을 약화시킬 것인가는 대하는 이마다 달랐다. 이정구(李廷龜), 김집(金集), 이항복(李恒福) 같은 이는 사임당의 글과 그림 실력을 함께 강조했다. 반면 김장생(金長生)은 그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룡이 동해로부터 날아와 율곡의 방 앞에 서려있었다”라는 용태몽 이야기를 언급해서 ‘율곡과 용’의 연관을 기정사실화 했다.

사실 사임당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인물이라 해도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경전에 해박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바느질과 자수 실력 또한 월등했다. 그러나 서인들에게는 사임당이 율곡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태몽까지 율곡의 위대함을 거들었다. 율곡의 신격화가 거듭되면서 사임당은 어머니로서 더욱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다.

송시열은 사임당의 난초 그림을 보고 “신부인의 어머니 됄과 율곡 선생의 아들 됄이 뿌리와 가지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임당화란발(師任堂畫蘭跋)」⁵⁾을 썼다. 이 시기는 1659년으로 서인이 1차 예송

5) 이것은 고 증찬성 이공 부인 신씨의 작품이다. 그 손가락 밑에서 표현된 것으로도 흔연히 자연을 이루어 사람의 힘을

논쟁으로 남인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이다.

2차 예송 논쟁으로 서인의 힘이 쇠약해졌을 때 송시열은 또 다시 사임당의 그림이 뛰어나다는 글을 썼다. 흠어진 서인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율곡과 어머니 사임당에 관한 새로운 서사, 그것도 신격화가 된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17세기의 송시열은 신사임당을 “중국 북송의 대학자 정호, 정이 형제의 어머니 후(侯) 부인 못지않은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칭송했다. 18세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유교 경전의 정신과 대비시키면서 심도 있게 전개된다.

18세기 들어 가장 먼저 나온 글은 김진규의 「사임당 초충도 뒤에 부치다」이다. 그는 사임당의 그림을 “부인의 덕에 부합하는 것”이라 역설했다. 『시경』 속 성녀들의 행위를 형상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김진규의 이 해석은 갈수록 정설로 자리를 잡아 2년 뒤 신정하는 “사임당이 그림을 그린 것은 그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덕을 실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에 이른다. 사임당의 재능은 오로지 현명한 부인, 덕이 있는 어머니로서 포장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런 사임당에 대한 이미지에 또 다른 변화가 이는 것은 개화기였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 여성 교육은 불필요하다 여겨졌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여성의 미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유교적 이념 하의 여성 교육은 개화파 지식인들의 “여성을 계몽해 아들들을 잘 길러내는 교육자로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에

빌려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물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또 천지의 기운을 모아 참 조화를 이룸에는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 - 송시열 「송자대전」 중 「사임당화란발(師任堂畫蘭跋)」

힘입어서였다. 이때 사임당이 ‘올곡을 교육한 어머니’로 재등장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아래 문명국민을 기르는 교육자, 구한말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어머니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일제는 1940년대 초 식민지 조선에 지원병과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조선 여성들에게 국가주의적 양처현모 이념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이미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선택된 국가전략의 하나였던 양처현모 이념을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가정교육의 주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냈다.

일제는 실제로는 ‘침략전쟁의 군사력 확보’라는 교묘한 술책을 실행한 전력이 있다. 이를 식민지 조선에서도 실행한 것이다. 징병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당시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군국의 어머니상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그때 소환된 역사적 인물이 바로 사임당이었던 것이다. 이는 1945년 제3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참가작인 『신사임당』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임당은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해 남편을 서울 벼슬길로 보내고 어린 ‘두 아들’을 엄격하게 교육시킨다. 남편에 대한 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스스로는 예능을 연마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를 흠모하는 아들 올곡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아버지를 질타하고 형을 바로잡을 만큼 총명하다. 남편 이원수는 아내와 아들의 이런 노력에 감동하여 배가의 노력을 하여 금의환향 한다. - 1944년 제3회 국민연극경연대회 참가작 『신사임당』 줄거리.

당시의 국민연극경연대회의 각본은 ‘징병제와 전력증강을 위한 생산력 확충’이라는 일본의 침략정신을 투영한 것만 참가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사임당은 ‘인내와 침묵의 현모양처’라는 모습으로 식민지 역사에 부각된 것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선 창덕여고의 재동 교정에는 5백년 넘는 백송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명물이 있었다. 수많은 인재와 현모양처를 배출한 명문 창덕여고를 상징하는 ‘신사임당의 동상’이었다. 사임당은 창덕여고의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교시 ‘아름답고 슬기롭고 부지런하자’에 잘 어울리는 인물상이었다. 75년이란 역사를 넘어서는 창덕여고는 오랫동안 ‘현모양처의 명문’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요즈음은 그 정도가 떨어진 느낌이다. 창덕여고의 동창회보를 살펴보면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의식을 강조하고 수동적인 자세는 지양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 사임당이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거론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다. 박정희 정권은 ‘민족중흥과 조국 근대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민족문화사업과 국적 있는 교육, 국사 교육 강화정책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일제의 「교육칙어」를 모방한 국민교육헌장 낭독, 국기 하강식, 교련교육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민족의 주체성 확립, 국가를 이끌어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인 동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빠르게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부녀자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또한 ‘국모’로 추앙되던 영부인 육영수에 ‘한국적 부덕의 사표’로 투영되었다. 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의 영웅으로 추앙될 인물이 필요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 중의 하나가 신사임당이였다. 수세기를 거쳐 그때까지 조성된 사임당의 삶은 국가 발전을 위해 부녀자들의 희생을 요구했던 박정희 정권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된 것이다. 동방의 대학자 율곡 이이를 낳아 키우고 어떤 근거를 통해 조성된 이미지인줄은 확실하지 않으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예술가로서 자아성취까지 교육적으로 이룬 사임당이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거의 독재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임당은 천편일률적으로 ‘어진 어머니, 착한 아내에 자기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은 여성’이었다. 물론 사임당은 셋째아들 율곡 이이를 대학자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지경을 큰딸 매창(梅窓)과 넷째아들 우(瑀)를 통해 한껏 넓혔다. 매창은 「달과 매화」 「참새와 나뭇가지」 같이 빼어난 작품을 남겼다. 7남매의 막내 우는 거문고, 글씨, 그림, 시 등에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그의 흘림글씨는 ‘콩을 두 쪽으로 쪼개어 그 한쪽에 시 구절 20자를 썼으나 점과 획에 글씨의 체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송시열도 “옥산의 글씨는 보석보다 더 귀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사임당이 자식을 위해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는 ‘조선시대의 현모’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고, 출산과 육아의 기간에도 꾸준하게 자신의 그림을 그렸고 글씨를 썼다. 바쁜 외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은 먼저 공부하고 실천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스승 같은 어머니였던 것이다. ‘양처’도 그렇다. 당숙인 이기 무리와의 교류를 말린 것은 물론, 죽기 전에는 유교 경전까지 인용하면서 남편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처와 자녀들 간에 발생할 불화를 우려한 때문이었으니 양처가 아니라 오히려 내조를 잘한 여성이었던 셈이다.

사임당은 지금까지 긍정적 평가는 물론 부정적 평가까지 함께 받은 인물이다. 오만 원 권 화폐 인물로 선정되면서는 여성계의 반대운동까지 일었다. 사임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논쟁 진행형인 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율곡의 어머니’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칸막이가 되어 사임당의 다른 모습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 칸막이를 다 걷어내고 사임당이라는 인물 그 자체만을 놓고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야 할 때가 이제는 되고도 남았다.

조선 판 보헤미안 랩소디, 황진이

유사량(인천일보 시사만평가)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맨 꼭대기 상류층 양반들은 물론이고, 제왕과 왕족까지 질편하게 희롱하고 능멸했던 예인(藝人) 집단은 바로 기생이라는 특수한 존재들이었다. 천민이었지만, 사실은 조선의 계급질서 바깥에 비켜선 번외인(番外人)들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된 소유물로 치부되던 시대에, 그들은 일부종사(一夫從事)나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굴레를 훨훨 벗어던진 자유로운 영혼들이었다. 세상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한번 뿐인 인생을 마음 가는대로 산화시키길 원했던 강렬한 양가적(兩價的) 욕망이 조선기생들의 숙명이었다. 보헤미안의 집시들처럼, 카르멘처럼 조선의 기생들 역시 그렇게 불꽃으로 타올랐다 역사의 뒤편길로 가뭇없이 스러져간 한바탕 짜릿한 꿈들이었다.

‘해어화(解語花)’, 말귀를 알아듣는 꽃. 궁녀들과 연꽃을 구경하던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의 미모에 취해 ‘연꽃보다 아름다운 꽃’이라며 치하한데서 유래한 이 말은 훗날 기생들의 별칭이 되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동소이하겠지만, 조선의 지배층들 역시도 마냥 속편한 삶을 누리고 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문과급제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한다. 3대

이상 낙방이 계속되면 양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⁶⁾ 그런 등용문의 압박을 통과해 어렵사리 환해(宦海)⁷⁾에 나서게 되더라도, 사분오열된 당파(黨派)에 줄을 대고 치열한 진흙탕 정치싸움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기방출입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필수코스였던 셈이다. 문제는 주색(酒色)만으로는 그 스트레스가 온전히 해소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쉬이 물리기도 했거니와, 육체적 욕망이 사그라진 이후의 주색은 오히려 고역이기 십상이었다. 결국 주색과 더불어 대화가 통할 정도의 학식을 겸비한 지적(知的) 상대, 뛰어난 예술성으로 감성까지 위무해줄 예인들의 존재가 절실했던 것이다. 바로 기생이라는 특수집단의 탄생배경이다.

마침내 조정(朝廷)에서는 기생청(妓生廳)을 신설해 기생들을 조직적으로 관장하고, 기생학교까지 만들어 가무(歌舞)와 시(詩), 서화(書畫), 행의(行儀) 등 양반사대부들의 교양에 걸맞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기생청은 권번(券番)으로 명칭이 바뀌어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들을 모아 예능과 교양을 겸비한 예인들로 양성했다.

1. 천하제일 명기(名妓)의 출현

역사적으로 기생은 신라 진흥왕 때의 여자무당 유녀화(遊女花)에서 시작된, 화랑의 ‘원화(源花)’를 원류로 본다. 유녀화는 매춘의 역사와도 그 뿌리가 닿아있다. 후에 유랑하던 백제계 ‘유기장(柳器匠)’⁸⁾의 후예들을, 고려의 이익민이

6)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62참조

7) 관리사회, 흔히 험난한 벼슬길을 의미한다.

8) 고리나 대오리를 엮어서 상자모양으로 만든 옷을 담는데 쓰는 그릇, 고로(栲栳) /한국고전용어사전

남자는 노예로 삼고 여자는 기(妓)로 만들면서 기생의 시초가 되었다한다. 고려 때는 사대부들이 관기(官妓)를 사사로이 집에 들여 사물(私物)로 여기기도 한 모양이다. 조선의 『경국대전』은 관기를 공물(公物)로 규정하고 관원이 기녀를 범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지만, 지방수령이나 관료들의 수청기(守廳妓) 폐단은 근절되지 않았다. 세종 시절에는 관기(官妓)의 수가 태부족해 급하게 관비(官婢)를 동원해 충당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조선말까지 존속된 관기제도는, 수모법(隨母法)에 따라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되어야 했다. 세습기생이 아닐 때에는 고아거나, 빚에 팔리거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⁹⁾

조선시대 각 고을 관기(官妓)의 숫자는 현(懸)에 10명, 군(郡)에 20명, 목(牧)에 40명, 영(營)에 80명, 평양에는 200여명이나 되었다하니, 어림잡아도 전국적으로는 2만 여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이 많은 기생 중, 당대 으뜸이 바로 송도삼절(松都三絶)로 유명한 명기 황진이다.

조선 최고의 예술혼으로 평가받는 황진이(黃眞伊)는 수많은 기행과 파격을 만들어낸 전설적 인물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역사적 실존을 조명해줄 직접사료는 전무(全無)하다. 황진이에 대한 모든 신화는 오직 간접사료인 야사(野史)로만 전해질 뿐이다.¹¹⁾ 생몰연대조차 알 수 없다.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는

9) 네이버지식백과-우리나라의 기생이야기 참조
 10) 김용숙 숙명여대교수, 1986, 애환 속의 여성 황진이 참조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권, p511 참조

가정(嘉靖¹²⁾ 초라 하고 허균은 『성옹식소록(惺翁識小錄)』에서 공헌왕조(恭憲王朝)시대 라 하는 등, 시대적 간극이 서로 엇갈리고 자료들마다 천차만별이다. 하여 여러 고증들의 파편을 조각 맞춰 추론해보건대, 대략 연산군 말년(1502년)경쯤 태어나 중종35년(1540)경인 40전후의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가늠될 뿐이다.¹³⁾

황진이의 본명은 진랑(眞娘), 기명(妓名)은 명월(明月)이다. 개성 황진사(黃進士)의 서출이라고도 하고 양반들의 잔치판에서 음곡(音曲)을 부르던 맹녀현수(盲人絃首)의 딸이라는 설도 있지만, 모두 분명치는 않다. 다만 황진이의 시조작품에서 보이는 높은 격조와 한시에서의 해박한 지식을 감안해볼 때, 양반가문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⁴⁾

어려서부터 자색(姿色)과 총명을 겸비해 서사(書史)와 음률(音律)에 능통했던 그녀가 홀연히 기류(妓流)에 투신하게 된 이유도 같린다. 한 청년이 황진이를 연모하다 상사병(相思病)으로 죽게 되었는데, 청년의 상여(喪輿)가 황진이의 집 문 앞에 당도하자 갑자기 꿈쩍도 않더라. 황진이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서야 상여는 겨우 떠나갔다. 그 일을 계기로 청년의 원통한 죽음에 자책하던 황진이는, 세상 모든 남성들의 노리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반쪽짜리 양반이었던 까닭에 명문가의 정실(正室)이 될 수 없는 신분상의 한계를 비판한 나머지, 세상 모든 남성들을 희롱하기로 작정하고 기적(妓籍)에 발을 들였다는 설이다. 물론 진실은 아무도

12) 명나라 세종 때 연호로 조선조 중종 11년(1516)쯤에 해당된다.
 13) 김용숙 숙명여대교수, 1986, 애환 속의 여성 황진이 참조
 14) 김원동, 황진이 시문학연구 참조

모른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재색(才色)을 겸비하고 척당불기(倜儻不羈)¹⁵⁾한 황진이의 성격과 파격적 인생행보를 감안해볼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강요된 규범에 순응하며 평범한 여인네로 살아가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짐작컨대 남달리 영특했던 그녀는 이런 자신의 운명을 꿰뚫고, 가장 자기다운 인생을 명쾌하게 선택했을 개연성이 크다. 자신의 처지를 자탄(自歎)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녀(妓女)로 살다 간 그녀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II. 분방한 남성편력(男性遍歷)과 기행(奇行)의 삶

명기 황진이의 첫 공식등장은 유수(留守) 송공(宋公)의 부임 소연(小宴)에서였다. 송공은 첫눈에 황진이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송공의 부인 역시 문틈으로 엿보다 자신이 황진이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연회장을 이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한다. 이일로 부인을 의식해 황진이에게 무심한 척 내송떨던 송공은 자기부인의 수연(壽宴)자리에서, 다른 기생들과 달리 아무런 장식이나 단장도 않고 화장기조차 없이 가야금을 타고 노래하는 황진이의 모습에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는 스토리다. 배석했던 가야금의 묘수 엄수(嚴守)까지도 황진이를 선녀로 극찬했을 정도다.

조선의 양반들은 기생을 흔히 노류장화(路柳牆花)에 비유했다. 길가의 버들가지나 담장의 꽃처럼 마음만 먹으면 쉬이 꺾을 수 있는 꽃으로 여긴

15) 기개가 뛰어나 남에게 구속 받지 아니함

것이다. 하지만 황진이만큼은 어렵 없었다. 그녀의 환심을 얻기 위해 큰돈도 뿌려대고, 권세를 앞세워 흔들여 봐도 결눈조차 주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풍류와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내들은,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발뒤꿈치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그럴수록 조선의 명망가들은 애가 달아, 너나없이 그녀를 한번이라도 품어보려는 헛된 욕망에 불나방처럼 꼬여들었다.

황진이는 평생 자신이 선택할지언정 선택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¹⁶⁾ 조선의 여성들로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계약동거(契約同居)라는 기상천외한 파격행보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런 황진이의 자유분방한 연애와 거침없는 남성편력(男性遍歷)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남성우위의 위계질서를 정면으로 비웃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선전관(宣傳官) 이사종(李士宗)과의 6년간 계약동거가 그것이다. 이사종이 천수원(天壽院) 넷가에서 의관을 벗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명창 이사종의 소리인 것을 간파한 황진이가 그를 불러 동거를 시작했다한다. 첫 3년은 이사종의 집에서 나중 3년은 황진이의 집에서 살다가, 약속한 6년이 되자 미련 없이 이별을 고했다는 일화다.

퇴휴당(退休堂) 소세양(蘇世讓)과의 계약동거 이야기도 재미있다. 중종4년 등과하여 대제학을 지낸 명사 소세양은 평소 “여자를 자제할 줄 모르면 남자가 아니다”라는 철학의 소유자였다. “제이무리 천하절색 황진이라 할지라도, 딱 30일간만 동숙하면 한 터럭만큼의 미련도 없이 헤어질 수 있다”고 주위에 호언장담을 했던 모양이다. 소문을 들은 황진이가 정말로 소세양과 30일간의

16) 김원동, 황진이 시문학연구, ‘황진이는 남성과의 교류에서 항상 주도적 사고와 행동을 했다’ 참조

동거에 들어갔는데, 결국 마지막 날 그녀의 즉흥시에 감복한 소세양이 대장부의 체면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동거기간을 연장하고 말았다한다.

도력(道力) 높기로 소문난 지족선사(知足禪師)를 파계시킨 일화도 전설로 떠돈다. 송도근교 깊은 암자에서 속진(俗塵)의 오욕(五慾)을 끊고, 열반(涅槃)에 들기 위해 무려 30년 동안이나 면벽수도를 정진해오던 지족선사를 무너뜨려, 끝내 육욕을 탐하게 만든 것이다. 황진이의 유혹에 30년 수도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족선사는 범복도 염주도 내팽개친 채, 반 광인(狂人)이 되어 거리를 떠돌다 생사조차 모르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전한다. 『성옹식소록(惺翁識小錄)』과 『조야휘언(朝野彙言)』에서 “30년 면벽(面壁)의 지족선사를 망치게 한 것도 나 때문”이라는 황진이의 술회를 보면, 이 이야기가 반드시 후대의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어쩌면 호사가들의 술자리 안줏감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지만, 스스로 도덕군자임에 자처하던 남성들의 아랫도리를 적나라하게 벗겨 보임으로써, 남성중심으로 기울어진 세상에 일침을 날린 희대의 사건이라 할만하다.

황진이의 유혹이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과의 일화인데,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체계화시킨 석학(碩學)으로 유명한 화담은 독학으로 13세에 서경(書經)을 읽다가 복잡한 태음력의 수학적 계산을 해독했으며, 대학(大學)을 통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원리를 홀로 깨우쳤다는 천재다. 평생 벼슬길에도 나아가지 않고 화담(花潭) 냇가에 집을 짓고 은둔해 학문에만 정진했다는데, 재색을 동원한 황진이의

갖은 유혹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다한다. 이런 화담의 인품에 감동한 황진이는 그를 스승으로 삼고, 서신과 시문을 주고받는 사이로 남았다. 황진이는 거문고를 메고 술을 걸러 화담의 거처를 찾아 즐기곤 했다.

好與儒士交遊 頗解文字 喜觀唐詩 嘗募花潭先生 每造謁門下 先生亦不爲拒與之談笑

(선비들과 사귀어 놀며 두루 문자를 풀이하고 당시를 즐겼다. 일찍이 화담선생을 사모하여 매번 찾아뵈었으며 선생 역시 황진이와 더불어 답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했다.)

『松都紀異』에 보이는 대목이다. 황진이와 화담선생은 남녀관계를 떠나 서로의 내공을 이미 간파한 능청스런 고수들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황진이는 비록 기적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다른 기생들처럼 화려한 치장을 좋아하지 않았다. 관아의 주석에 나갈 때도 머리를 단아하게 빗는 게 고작일 뿐,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한다.¹⁷⁾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런 황진이의 독특한 정신세계는 금강산 풍류기행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황진이는 재상의 아들이라는 이생(李生)으로 하여금 시종도 없이 포의(布衣)와 초립(草笠) 차림에 행탁(行橐)¹⁸⁾ 친히 메게 하고, 자신은 송낙을 쓴 채 갈삼(葛衫)을 입고 베치마에 짚신을 끌며 대지팡이를 짚고 금강산

17) 이신복, 황진이론 참조

18) 여행할 때 노자를 넣는 주머니, 또는 행장을 넣는 자루

유람을 떠났다. 나중에 노자가 떨어지자 모르는 선비들의 술판에서 노래와 춤을 팔아 술과 고기를 얻어다 이생(李生)을 먹이기도 하고, 절에서 동냥을 하거나 심지어 중들에게 자신의 몸까지 팔아 양식을 얻기도 했다.¹⁹⁾ 실로 놀라운 파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황진이의 유랑벽(流浪壁)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행한 이생(李生)이라는 인물도 필시 보통은 아니었던 듯싶다. 황진이의 이런 기행을 허균은 이렇게 기록했다.

性倜儻類男子 工琴善歌 嘗遊山水間 其自楓岳 歷太白智異至錦城(羅州) 州官方宴節使 聲娘以弊衣膩面 直座其上 門蝨自苦調彈無小作 諸妓氣攝²⁰⁾

(성격이 활달하여 남자 같았으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잘 불렀다. 일찍이 산천을 유람하다 풍악산, 태백산, 지리산을 거쳐 나주에 이르렀을 때, 고을원님이 베푼 잔치에서 황진이는 떨어진 옷에 때 묻은 얼굴로 상석에 올라 이를 잡으면서 노래하고 거문고를 타면서도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어 다른 기생들이 모두 기가 질렸다.)

III. 절창(絶唱)의 문학을 남기다

전해지는 황진이의 문학작품은 총 6편의 시조와 8편의 한시가 전부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빼어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절창이다. 적재적소의 시어활용과 기발한 문장 구사력, 입에 착착 감기는 리듬감과 고도로 절제된

19) 유몽인, 어우야담 참조

20) 허균, 성음식소록 참조

텐션(tension) 등 그의 시편들은 하나같이 절정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런 그녀의 문학적 내용과 풍부한 시적 감수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창작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여성들의 글, 특히 기생들의 문학을 그저 오락이나 재미로만 소비했던 양반사대부가들의 편협한 시각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표적인 황진이의 시조 2편만 감상해보기로 하자.

靑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ㅈ·랑마라
一到滄海ㅎ·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明月이 滿空山ㅎ·니 쉬어 간들 었더리

종친(宗親) 벽계수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읊었다는 즉흥시다. 벽계수와 명월(황진이)이라는 두 주인공의 이름을 빌어 운을 띄운 착상이 기발하다. 그러면서도 중의(重意)적인 수사로 이끌어간 시적맥락 속에 치열한 계산까지 버무려 둔 센스, 천재적 언어감각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작법이다. 인생무상을 빚댄 유혹, 하지만 결코 사정조가 아닌,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다’는 냉소도 은연중 깔려 있다. 각듯한 청유형으로 끝마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가 아무리 꿈무니를 빼도 이미 온 산 가득한 밝은 달빛을 피해갈 수 없다는 충만한 자신감이 종장의 결론이다. 물론 ‘밝은 달빛(명월)’은 황진이 자신의 은유적 표현이다. 게임 끝났으니 그만 용쓰고 행복하라는 일방적 선언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다.

冬至ㅈㄷ·ㄹ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내어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뿔구뿔 퍼리라

애뜻한 기다림의 시다. 황진이 시조의 백미라 할 만 하다. 시적 은유와 수려한 언어 구사, 번뜩이는 천재성을 황진이는 이 시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밤의 허리’, ‘춘풍이불’ 등 선정적인 시어들을 아슬아슬 노출시키면서도, 전혀 외설스럽지 않게 문맥을 엮어 놓는 순발력. 그러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오실님’과의 뜨거운 밤을 자연스럽게 공감하도록 이끌어 내는 의문스런 수사법이 탁월하다. 모르긴 해도 이 시를 ‘오실님’이 읽는다면, 가슴이 울렁대고 은근한 정열이 달아올라,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 틀림없다.

남성에 관한한 초월의 경지에 오른 황진이지만, 이 시에서만큼은 여성적 그리움의 정한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한편으론 애잔하다. 못 남성들의 애정을 한 몸에 누리면서도, 정작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담아둘 한 사람이 부재한 황진이의 고독이 아슴푸레 느껴지는 까닭이다. 아마도 이 시에서의 ‘오실님’은 끝내 ‘오지 않을 님’, 혹은 ‘올 수 없는 님’은 아니었을까? 웬지 그리 읽혀져서 못내 가슴이 서늘하다. 적어도 기다리게 할지언정, 기다리지 않는 것이 황진이의 철학이자 자존심이었기에 그렇다는 얘기가.

IV. 죽음

황진이를 단순히 기생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찌면 난센스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범상치 않은 인생궤적을 음미해볼 때, 어찌면 높은 경지에 이른 도인의 품모까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기를 이용해 축재(蓄財) 하거나, 권세가와 첩실로 들어앉아 신세를 고치는 데 뜻을 둔 여타 기생들과 황진이는 확실히 그 궤를 달리했다. 일신의 안락 따위엔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던 황진이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도도하고 자유분방했던 모양이다. 황진이는 죽음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녀의 유언을 통해 그 마지막 모습을 대강이나마 짐작해볼 수는 있다.

後眞伊病且死 謂家人曰語生時性好粉華 死後勿葬我山谷 宜葬之大路邊 今松都大路邊 有松都名娼眞伊墓²¹⁾

(후에 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집안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살아생전 성격이 분잡하고 화려했으니 죽은 후에 나를 산곡에 묻지 말고 대로변에 묻어 달라 하였다. 지금도 송도 대로변에 명창 진이의 묘가 있다.)

또 “뜻을 말고 장사할 때 鼓樂으로 나를 인도하라²²⁾”고도 했다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황진이다운 종말을 고한 것이다. 울음 따위는 건어치우고, 즐거운 북과 음악으로 자신의 극락왕생을 빌어달라고 말한 걸 보면, 죽음조차도 유쾌하게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21) 유몽인, 어우야담 참조

22) 허균, 성음식소록 참조

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紅顏을 어데 두고 白骨만 문혔는다
盞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 하노라

서북도 병마평사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던 백호(白湖) 임제(林梯)가 황진이 무덤에 들러 읊었다는 시조다. 조선 최고의 명기와 미처 대면하지 못한 백호의 아쉬움과 허전함이 잘 묻어난다. 당대의 풍류객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던 백호는, 황진이의 무덤에 술을 따르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이 일로 조정의 탄핵을 받아 끝내 파면까지 당하고 만다.

“이같이 좁은 조선에 태어난 것이 한이로다!”

백호의 이 탄식은 어쩌면 황진이의 탄식이자, 비틀린 자신의 운명에 전력으로 맞서다 당당히 산화해버린 조선의 이름 없는 ‘해어화’들의 탄식이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판 보헤미안 랩소디 황진이는 결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고한 향기 뿌리며 만공산의 명월로 떠나간 여걸의 영웅담은, 수백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열광적인 노래로, 문학으로, 춤으로 수없이 되 살고 되 살고 할 것이기에 그렇다.

조선 최초의 페미니스트 여성시인 허난설헌 (許蘭雪軒)

유사량(인천일보 시사만평가)

16세기 조선이 낳은 최고의 여성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그녀는 현실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관념적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꿈꾼 불여세합(不與世合)의 천재였다. 엄격한 남존여비의 나라, 뺏속까지 유가적 사의식(士意識)에 포로 잡힌 사대부들의 놀음판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은 오로지 초월적 몽상뿐이었다. 그녀의 시편들이 도가적 사유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녀에게 도가적 상상력은 현실을 견뎌낼 유일한 숨통이자 피안(彼岸)이었다. 여성이 문자를 알고 시를 짓는 것 자체가 불경이던 시대적 통념을 뛰어넘어 난설헌이 210편이나 되는 시편들을 세상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친동생이면서 제자요 학문적 동지였던 교산(蛟山) 허균(許筠 1569~1618)의 덕이 첫째다. 거기에 어려서부터 학문과 예술을 독려한 스승이자 친오빠였던 하곡(荷谷) 허봉(許篈 1551~1588), 그리고 가부장적 관습에서 비교적 유연했던 부친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으로부터 연유한 집안분위기가 그 둘째라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녀와 유사한 이름 모를 수많은 여성천재들이, 미처 조명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이 땅을 스쳐가 버렸을지도 모를 암흑의 시대에 난설헌의

문학은 딱 막힌 현실적 한계를 두드린 한 줄기 소낙비였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잠시 적시고 곧 사그라져 버릴 것만 같았던 그 빗줄기는, 끝내 여성주의를 싹 틔우고 이 땅에 여성성의 자각을 일깨우는 물꼬를 텃다. 이제껏 남성의 권력이자 전유물이었던 문자와 시를 여성이 향유했다는 사실, 그것도 예사 남성들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나는 문장과 문체로 구현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 최초 여성주의의 선봉에 설 자격이 충분하다. 물론 이전에도 시와 글을 지은 여성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문집을 남길 만큼은 아니었다. 인간 허난설헌의 존재와 문학이 기적이고, 새로운 무게로 재평가 받아야 하는 이유다.

1. 성장배경

고려 말 명재상 문경공(文敬公) 허공(許珙)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조 때의 석학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의 셋째 딸로 태어난 난설헌은 그녀의 형제들이 모두 그러했듯,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천재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8세 때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는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이 대표적인데, 광한전은 달에 살고 있는 항아(姮娥)의 상상 속 궁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난설헌은 이때부터 이미 도가적 사유에 익숙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을 사사했던 아버지 초당에게서 영향 받은 것일 테지만,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방대한 양의 신선이야기를 읽은 후에라야 지을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²³⁾ 그러나 난설헌이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즐겨 읽고 그 긴 이야기를 다 외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반드시 후세의 편집이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²⁴⁾

허씨 5문장가(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헌, 허균)를 배출한 소문난 천재집안에서 난설헌은 동복형제인 오빠 허봉, 아우 허균과 특히 우애가 두터워, 학문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스승과 제자로써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던 각별한 사이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 세 남매는 모두 세상과 불화하고 충돌하다, 끝내 젊은 나이에 산화하고 마는 님은 풀 인생을 살았다. 양친허씨 가문의 세 불우한 천재들에게 조선은 너무 비좁고 답답한 굴레였던 모양이다.

강릉에서 태어난 난설헌은 이듬해 초당 허엽이 종2품 경주부윤을 제수 받은 탓에 경주로 내려갔다가, 다섯 살 때 정3품 대사성이 되어 상경한 아버지를 따라 죽 한양 건천동(乾川洞)에서 살았다. 동생 허균의 기록을 보면, 총 서른 네 가구가 살던 ‘마른 냇골’이라 불리던 건천동은 대대로 당대 인물들을 배출해낸 명문대가들의 동네였다. 이는 필경 난설헌의 성장과정에도 직,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자명하다.

조선의 여인네들은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無존재의 존재들이었다. 그저 누구누구의 딸이거나 아내, 혹은 어미로 불려도 충분한 존재들이었다. 문자를

23)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56~57참조

24) 임상원 『교거쇄면』 권1 참조

배워도 쓸 데가 없었다. 오로지 출산과 가사노동만이 주된 가치였고, 바느질을 배우고 수를 놓는 현모양처가 유일한 인생목표였다. 다른 삶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난설현의 집안은 달랐다. 난설현(蘭雪軒)이라는 당호(堂號)뿐 아니라, 초희(楚姬)라는 이름과 경번(景樊)이라는 자(字)까지 지어졌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의식의 소유자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했던 셈이다.

부친은 물론 오빠들과 남동생까지 차별 없이 난설현의 학문적 재능을 높이고 북돋아주는 집안 분위기를 양분삼아, 난설현은 자신의 천재성을 만개할 수 있었다. 여성이 책을 읽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당대 사대부가문의 가풍과는 달리, 유교경전도 아닌 『태평광기』 같은 책에 심취한 난설현에게 오빠 하곡은 책과 붓을 구해주면서, 오동나무의 달빛도 그려보고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볼 것을 권한다. 문장 뿐 아니라 그림에까지 천부적 재능을 지녔던 누이의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관심을 쏟은 것이다.

하곡은 또 자신이 아끼던, 두보시집을 누이에게 선물하면서, 책 뒷장에 당나라 시를 공부하도록 당부하는 글을 지어보내기도 했다.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구입한 그 시집을 통해 풍부한 감성의 당나라 시를 접하게 된 하곡은 “이제껏 읽고 배워온 이성적인 송나라 시를 다 내어버렸노라” 고백했을 정도다. 누구보다 천재적인 누이의 재능이라면, 분명 두보와 같은 절창이 다시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허난설현의 문학에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손곡(孫谷) 이달(李達1539~1612)이다. 쌍매당 이침의 서자(庶子)였던 탓에 뛰어난 내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한 이달은 아름답지 못한 용모와 세속의 예법조차 예사로 거스르곤 해서 세인의 비방과 질시를 달고 살던 천재였다. 이런 친구 이달의 재능을 높이 샀던 난설현의 오빠 허봉은 누이와 동생의 공부를 이달에게 맡겼다. 하늘같은 스승 이달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창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를 보낸 허씨남매들의 의식 속에, 조선의 모순적 신분질서에 대한 반감과 불만이 자연스레 싹 텃으리란 건 불문가지다.²⁵⁾

II. 결혼생활

난설현은 15세 언저리에 당대 최고명문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書雲觀正公派) 11세손인 김성립(金誠立1562~1593)과 혼인한다. 김성립의 집안은 6대나 계속 과거급제자가 나올 만큼 화려한 문벌이었다. 하지만 허균은 자신의 책 『성웅지소록』에서 매부 김성립을 어눌하고 답답한 인물로 평했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 송씨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해 은연 중 고부간 갈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난설현보다 한 살 위의 남편 김성립은 28세에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저작(著作)을 거친 인재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켜 참전했다 전사할 정도로 강직한 선비였다. 시어머니 송씨부인 역시 이조판서를 지낸 송기수(宋麒壽1507~1581)의 딸로, 친정오라버니 송응개는 난설현의 오빠 허봉과 서로 목숨을 함께 나눈 친구사이였다. 이 두 사람과 역시 절친이었던 난설현의 시아버지 김첨(金瞻1542~1584)도 함께 계미년(癸未年

25) 김성남, 2003, 허난설현, 동문선, p19 참조

1583)에 율곡 이이를 탄핵하다 유배되거나 좌천되어 세상을 떠났을 만큼,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끈끈한 동지적 관계였다. 역사는 이 세 사람을 ‘계미삼찬(癸未三巽)’이라 부른다. 이렇듯 세겘 사돈으로 엮힌 집안배경을 고려해볼 때, 특별히 심각한 고부갈등을 일으킬만한 외부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가부장적 관습에 익숙했을 김성립에게 자신보다 뛰어난 천재성을 지닌 부인에 대한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과거공부를 핑계 삼아 밖으로만 돌며 가정을 등한시했을 것이다. 시어머니 송씨부인 또한 그런 아들내외를 지켜보는 게 불편했을 것이고, 허구한 날 『태평광기』 같은 이상한 책을 끼고 사는 유식하고 까칠한 며느리가 결코 달갑지 않았으리란 건 분명하다.

난설현은 난설현대로 자신의 친정과는 너무 다른 시대의 엄격한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생 허균의 토로처럼,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어느 가정이나 상존했을 부부간의 불화나 고부간의 갈등이 난설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내면에 키워왔던 성향이 그녀를 그렇게 몰고 간 혐의가 짙다. 난설현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마음 붙일 곳 없는 현실세계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파기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 타당성을 가졌다 할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난설현의 일화도 새겨봄직 하다. 결혼 전 난설현은 장차

자신의 배필이 될 신랑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집을 가지 않겠노라, 부친인 초당에게 고집을 피웠다한다. 당시의 사회통념상 차마 입에 담아서 안 될 불순한 요구를 한 셈인데, 그만큼 난설현 집안의 분위기가 개방적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초당이 30리쯤 떨어진 신랑 집을 방문해 간선을 하고 신랑의 부친과 혼인이야기를 나누려는데 방문이 열리며 연죽(煙竹)을 든 상노아이 하나가 들어와 옆에 서더라. 초당이 가만 보니 바로 난설현이었다. 기어코 변장을 하고 신랑얼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온 것이다. 물론 후대 민중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분명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이 허난설현이라는 여성선각자의 이름을 빌어, 신랑얼굴도 못 보고 시집을 가야만했던, 당시 조선여성들의 염원과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사랑하던 사람들의 죽음은 그녀의 내세적 열망을 더욱 극대화시킨 요인들이었을 것이다. 결혼이나 평범한 현모양처의 삶 따위는 애당초 그녀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전통적 가치에 자신을 가둬두기엔, 이미 그녀의 의식세계가 너무 앞서버린 까닭이다.

III. 죽음

천재는 본시 박복하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기 마련이라 했던가? 허난설현의 짧은 생애에는 유독 죽음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 선조13년

2월 1일 경상감사로 있던 아버지 허엽이 병을 얻어 서울로 올라오던 상주 객관(客館)에서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작은 오빠 허봉도 율곡 이이의 직무상 과실을 탄핵하다 함경도로 유배된 이후, 전국을 떠돌다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금강산에서 요절하고 만다. 마음 속 울화를 달래기 위한 과도한 술이 원인이었다. 난설헌은 또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 심지어 복종의 태아까지 줄줄이 떠나보내는 아픔도 경험했다.

난설헌은 「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한 바 있다.

碧海侵瑤海 (푸른 바닷물 구슬바다에 넘나들고)
 靑鸞倚彩鸞 (파란 난새가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芙蓉三九朶 (연꽃 스물일곱 송이 붉게 떨어지니)
 紅墮月霜寒 (달빛 서리 위에 차갑기만 하구나)

‘삼구홍타(三九紅墮)’라는 허균의 주석²⁶⁾ 그대로 난설헌은 과연 27세를 맞은 1589년 3월 19일, 숨을 거둬 마지막까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아무런 병도 없이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더니, 집안사람들에게 “금년이 바로 3·9의 수(3×9=27)에 해당되니,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말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다. 그의 신비스런 죽음은 두고두고 세인의 입으로 회자되었다. 난설헌은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월리

26) 장정룡, 2008, 허난설헌 평전, 새문사, p46 참조

안동 김씨 선영에 묻혔다. 그녀의 무덤은 1985년 경기도 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었다.

IV. 문학

여인은 정치와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회와 내왕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백호통(白虎通)』의 통치철학이 시퍼렇던 조선에서 여인의 글이 가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다. 혹 여성이 글을 안다 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추앙하던 그 시대에, 난설헌의 시집은 중국을 넘어 일본에까지 널리 전파됐다. 명나라사신 오명제(鳴明濟)에 의해 처음 중국으로 전해졌고, 남방위(藍芳威)의 『조선고시(朝鮮古詩)』를 통해 중국의 여러 문인들에게 소개되면서 수많은 중국의 다른 문헌에도 수록되어 난설헌은 중국문단에서조차 그 지위를 인정받는 명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체제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쏟던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이런 난설헌의 존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人間願別金誠立 (인간세상에서는 김성립과 헤어졌다가)
 地下長從杜牧之 (지하에서 오래도록 두목지를 따르리라)

시대를 앞서간 실학자로 평가받는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조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난설헌을 칭찬하는 반정균(潘庭筠)에게 이런 시를 들려주며

반박했다한다. 미남으로 이름난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을 연모한 나머지 두목의 호 번천(樊川)을 따서 난설현이 자(字)를 경번(景樊)이라 짓고, 이런 음란한 시를 노래했다며 비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난설현을 음해하기 위해 누군가가 꾸며낸 가짜 시다. 경번(景樊)이라는 자(字)는 ‘초나라 장왕의 어진 아내 번희(樊姬)를 닮으라’는 의미로 아버지 초당이 지어주었을 것이다.²⁷⁾ 난설현의 이름 초희(楚姬)도 바로 번희(樊姬)를 가리킨다. 번희(樊姬)는 장왕이 초나라의 패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여인이다. 난설현은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그런 번희(樊姬)의 삶을 간절히 꿈꾸었다는 것이 이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오빠 허봉과 아우 허균 역시 난설현을 경번(景樊)이라 부르며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난설현집』이 중국에서도 화제를 모으자, 중국의 여성시인 허경란은 난설현을 경모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경란(景蘭), 자호(自號)를 소설현(小雪軒)으로 짓고, 난설현의 시 한편 한편을 모두 차운하여 『해동란(海東蘭)』이라는 시집을 편찬하기도 했다. 허경란은 후에 자신도 난설현처럼 죽기를 염원했지만, 나이 27세가 되도록 죽지를 앓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광려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한다.

哭子 (울며 곡하노라)

去年喪愛女(지난 해에 사랑하는 딸을 잃고)

今年喪愛子(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구나)

27) 허미자, 2007,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32참조

哀哀廣陵士(슬프고도 슬픈 광릉 땅에)
 雙墳相對起(두 무덤 서로 마주보고 섰는데)
 蕭蕭白楊風(쓸쓸한 바람만 백양나무에 불어오고)
 鬼火明松楸(도깨비불 반짝이는 솔숲에서)
 紙錢招汝魂(지전 날려 너의 혼을 부르노라)
 玄酒奠汝丘(술잔 따라 네 무덤에 바치노라)
 應知第兄魂(가연은 너희 형제 님은)
 夜夜相追遊(밤마다 서로 만나 놀고는 있을까)
 縱有腹中孩(비록 복중에 태아를 품었다하나)
 安可冀長成(어찌 잘 자라날 수나 있으리)
 浪吟黃臺詞(하염없이 슬픈 노래 읊조리며)
 血泣悲吞聲(피울음만 비통하게 속으로 삼키노라)

난설현이 두 아이를 잃고 쓴 시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과 여한이 구절마다 흥건하다. 비록 현실을 초월해 도가적 사유에 기댄 삶을 살았다고는 하나, 난설현 역시도 어미였고 한사람의 여인네였다는 사실을, 이 시는 절절히 보여준다. 복중 아이의 암울한 미래를 예감하는 대목에서는 피눈물을 쏟는 그녀의 심정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彤軒碧瓦飾瑤墀(붉은 난간 푸른 기와 구슬장식 계단에)
 不遺青苔染履綦(푸른 이끼 신발을 검붉게 물들이네)
 朝罷列仙爭拜賀(조희 끝난 신선행렬 축하인사 다투는데)
 內家新領八霞司(궁녀들 새로이 팔하사를 임명 받네)

이 시는 천상의 궁전에서 신선회의를 막 끝낸 궁녀들이 ‘팔하사’라는 관직에 새로 임명받아 축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성들도 관직을 받고 정사에 참여하는 세상을 상상로나마 그려본 시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남성중심 사회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난설현의 비애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시라 할 수 있다. 천상의 여인들이 상제의 궁에서 관직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녀의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이유다.

琴高昨日寄書來 (금고가 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報道瓊潭玉藥開 (하늘연못에 옥예화가 피었다고 알려주네요)

倫寫尺牋憑赤鯉 (몰래 답장 써서 붉은 잉어 편에 전했지요)

蜀中明夜約登臺 (촉땅 등대에서 내일 밤 만나기로요)

붉은 잉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선 금고와 주고받은 연애편지 이야기다. 붉은 잉어의 뱃속에 편지를 넣어 은밀히 사랑을 전했다는 전설을 인용한 시다. 비밀스런 연인들의 달달함이 은은하다. 금고의 전설을 빗대 난설현은 상상속의 연인 금고와 나누는 연애감정을 시로 읊었다. 출가한 여인이 상상으로도 다른 남자를 마음에 들이는 것조차 불륜으로 지탄받던 시대에 난설현의 이 시는 파격이라 할 수 있다. 남편 김성립과의 사랑을 일찍이 포기한 채, 상상 속에서만 이상형을 찾아야했던 난설현의 처지가 안쓰러울 뿐이다.²⁸⁾

28) 허미자, 2007, 허난설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30참조

V. 결론

平生著述甚富 (평생 저술이 매우 많았으나)

遺命茶毘之 (유언에 의해 모두 불태워졌다)

『난설현집』 발문(跋文)에서 아우 허균이 밝힌 말이다. ‘다비(茶毘)’라는 불교식 용어를 구태여 허균이 빌려 쓴 이유는, 그 시들이 단순히 시가 아니라 ‘난설현의 분신’이었다는 사실을 예둘러 이야기한 것이다. 난설현에게 시는 그저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나 문장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난설현에게 시란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다비로 불태워진, 누이의 생명이었던 시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끌어 모아 기어이 부활시킨 아우 허균의 노력도 눈물겹다.

그러나 『난설현집』을 펴내고 10년 뒤, 아우 허균도 반역죄로 죽음을 맞게 되면서 난설현의 시편들은 또다시 호된 시련을 겪는다. 위작과 표절논란이 그것인데, 난설현 시의 그런 논란들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허난설현이 꿈꾸어 왔던 여성해방의 흔적들은 그런 논란들과 무관하게 도처에 파편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사대부가의 여인네로, 현모양처로 체제순응(體制順應)적인 편안한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허난설현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시를 쓰고 여성 주체적 삶을 꿈꾸다 결국은 산화하고 만 것이다. 역사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치프리즘을 만들어낸다. 의미는 언제나 부여하는 자들의 몫인 까닭이다.

장희빈(張禧嬪)

전구주(전 세계일보 문화부 여성파크 차장)

악독한 경국지색(傾國之色)의 요부(妖婦)가 아닌

당쟁으로 얼룩진 치열한 권력투쟁의 희생자

1961년 정창화 감독, 김지미 주연의 영화 『장희빈』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장희빈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 현재까지 무려 11편이나 만들어졌다. 각각 해석은 다르지만 장희빈은 천한 출생으로 한 나라의 국모가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에 드라마 소재로 가장 안성맞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린 장희빈은 대체로 경국지색의 미인이었지만 욕망과 질투의 화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역사를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해석과는 판이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장희빈을 말할 때 맨 처음 거론되는 것은 ‘자못 얼굴이 아름다웠다’란 『숙종실록』의 기록이다. 자못이란 생각보다 훨씬이란 뜻이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여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히 경국지색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희빈의 성격을 ‘간사하고 악독하다’고 말한 또 다른 기록이 더 강조됨을 볼 때 기록자가 장희빈을 극렬히

편하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장희빈의 반대 세력인 서인, 특히 인현왕후 민씨의 배경 세력이었던 노론에서 숙종실록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증명된다 하겠다.

장희빈은 천한 출생이 아니다

장희빈은 사역원²⁹⁾ 봉사(종8품)를 지냈던 장형(張炯)(1623~1669)과 그의 후처인 파평 윤씨(1626~1698)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동기로는 아버지 장형의 전처였던 제주 고씨(?~1645)의 소생인 이복 오빠 장희식(1640~?)과 친모 윤씨 소생의 언니 한 명, 오빠 장희재(1651~1701)가 있다. 장희빈이 출생 년도에 대해 흔히 미상이거나 숙종의 2세 연하, 혹은 5살 연상으로 혼동이 있는데 그녀가 죽기 전 숙종실록에 수록된 국청죄인 자근례의 공초 내용³⁰⁾ 중에 희빈 장씨가 기해생(1659년 생)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아버지 장형은 사역원에서 일찍 은퇴하고 집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풍류를 즐기다가 장희빈이 11세가 된 1669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할아버지 장응인은 선조 때 유명한 역관으로 최고 관직이 정3품 첨지중추부사(무관직)였다. 시재(詩才)도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선(善)을 가훈으로 삼아 이 단어를 쓴 종이를 항상 품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윤성립(尹誠立)은 일본어 전공의 사역원 첨정(종4품)이었다. 외할머니 변씨는 조선 최고의 갑부 역관으로 유명했던 변승업의 당고모로 변승업의 아버지이자 소설

29)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30참조

30)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의 글을 벌인 사건을 문초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사람들을 고문하면서 나왔던 내용이다.

『허생전』에 변부자로 등장했던 변응성의 사촌누이다. 외삼촌 윤정석은 조선의 부를 장악했던 육의전의 먼포 상인이었다. 그는 1680년 장희빈이 궁에서 쫓겨나 친정에 머물 당시 이웃에 살았던 만큼 누이인 윤씨(장희빈 모)와 관계가 매우 각별했다.

장희빈의 집안이 대대로 역관이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역관은 외국어를 못하는 조선 사신을 대신하여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나라 사행(使行)이다.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는데 최소 5~6개월, 거리가 1000km. 조선 왕실에서는 사행단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인삼무역권'을 주었고 이 인삼무역을 주관하는 것이 역관이다. 따라서 조선 최대의 무역권을 관장하는 역관은 대대로 부자일 수밖에 없다. 유명한 역관의 집안. 인척이 모두 부자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장희빈은 비록 양반이 아닌 중인 계급이었지만 천한 출신은 아니었다. 오히려 요새 말로 재벌가 혹은 자산가 집안 출신이었다.

또한 장희빈을 헐뜯는 내용 중에 어머니 윤씨에 대한 오해가 있다. 어머니 윤씨는 파평 윤씨 윤성립의 딸인데 조사석³¹⁾ 처가의 중(노비-천출)으로 조사석과 내연관계가 있었다는 숙종실록의 기록 때문이다. 먼저 내연관계라는 점. 이 기록은 장희빈의 정적이었던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이 숙종실록 기록의 최종 책임자여서 장희빈을 폄하한 가능성이 높다. 숙종실록의 보완서적인 『숙종실록보궐정오』에서는 이 기록이 거짓 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31) 조사석(趙師錫, 1632년 ~ 1693년)은 조선 인조에서 숙종 때 살았던 문신. 병조판서 등을 거쳐 1687년 우의정에 올랐다. 이때 김만중이 조사석을 두고 향간에 후궁 장씨와 결탁하여 출세하였다는 말이 떠돈다고 전했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기도 했다. 당파는 원래 서인 출신이지만 당론보다는 중도 정치를 택해 서인, 남인 모두에게 질책을 받았다.

또한 노비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선시대는 처(妻)와 첩(妾)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는데 장희빈의 어머니 윤씨는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처로써 남편의 묘와 나란히 배치되어있다. 첩의 묘는 남편과 같이 할 수 없던 시절이었고 남편의 묘석에도 처로 당당하게 새겨져있다.

궁녀 생활

장희빈이 입궁한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아버지 장형이 죽은 후 장희빈을 돌보아주었던 사촌숙부 장현이 입궁을 시켰다는 설이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로는 당시 장현은 남인에 속했는데 경신환국으로³²⁾ 인해 가세가 기울어져 서인과 권력투쟁을 벌이던 남인들의 제의로 장희빈을 궁녀로 입궐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숙종실록에서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희빈 장씨를 받고할 때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가 장희빈이 22세 전후로 통상 궁녀 입궁 시기와³³⁾ 맞지 않다. 또한 장희빈이 한때 궁녀 생활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때가 22세로 이미 오랫동안 궁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붙는다. 따라서 이런 가설보다는

장현이 어린 시절 장희빈을 천거하여 입궁시켰다는 설이 설득력이 높다. 장현은 이미 자기 딸을 입궁시킨 전력이 있었다.

32) 경신환국(庚申換局)은 1680년(숙종 6년) 남인(南人) 일파가 정치적으로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라고도 한다. 조선 역사에서 17세기 후반은 붕당 간의 대립이 가장 치열했다. 특히 숙종 시대는 20년 동안 집권 세력이 세 차례나 바뀌었다. 서인은 1674년 갑인환국을 통해 남인에게 밀려났다. 남인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축출되고,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이어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제거되고, 남인이 집권한다. 하지만 남인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몰려나고 서인이 재집권한다.

33) 궁녀의 입궁 연령은 대부분 4세부터 16세이며, 조선시대 여성들의 법적 혼인 연령은 14세~20세이다.

장희빈이 숙종을 모시게 된 계기는 숙종의 첫째 부인인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죽은 1680년 10월 26일 이후인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인경왕후는 딸만 3명을 두고 왕자가 없었다. 장희빈이 숙종을 모실 때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나중에 나라에 환란을 일으킬 징조였다는 모함에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장희빈과 숙종은 이미 그 이전에도 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많았다. 장희빈이 궁에 들어와 모신 옷전이 인조의 계비이자 숙종의 증조모인 자의대비 조씨였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눈여겨 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진 장희빈이 눈에 띄는 건 당연했고, 자의대비 또한 장희빈을 대단히 총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당시 갑자기 숙종의 모친인 명성왕후가 콧 짝듯이 장희빈을 출궁시킨다. 이유는 장희빈이 출신이 천하고 성품이 극악하다는 이유였다. 과연 그랬을까. 오히려 경신환국 때 장희빈의 숙부 장현을 포함하여 유배시킨 사람이 바로 명성왕후 김씨의 사촌 오빠였던 김석주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혹시 모르잖는가. 후에 숙종의 승은을 입어 왕자라도 생산하면 가장 먼저 화를 당할 사람이 자신들이란 건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장희빈이 출궁된 직후인 1681년 1월 3일에 서둘러 계비 간택령을 내리고, 같은 해 5월 14일 민유중의 딸인 민씨(인현왕후)와 가례를³⁴⁾ 올린다. 명성왕후 김씨와 남인을 죽도록 싫어했던 서인 노론계의 거두 송시열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두 사람은 장희빈을 숙종 곁에서 제거하고 서인

34) 원래 조선시대 당시 정부인의 3년 상이 마치기 전에 재혼하는 것은 경국대전등에서 엄격히 금지되었고 법통을 중시 하는 왕은 말할 것도 없었다. 숙종이 인경왕후 김씨의 사후 3년 상은 고사하고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인현왕후 민 씨와 재혼을 한 것은 조선 왕실 역사 상 전례에 없는 일이었다. 이는 장희빈과 숙종이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반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출신 인현왕후를 숙종 옆에 앉힌 것이다. 장희빈은 궁에서 쫓기듯 나와 오빠 장희재의 집에서 1686년까지 5년을 살게 된다.

재입궁, 장희빈을 향한 서인들의 격렬한 반발

1683년 10월, 숙종이 두질(豆疾: 두창, 마마, 천연두)을 앓았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는 중전인 인현왕후와 같이 숙종을 위해 절식하고 매일 속옷 차림으로 겨울철임에도 냉수욕을 하며 치성을 올린다. 무당이 일러준 비법이였다. 그런데 그 일로 명성왕후는 감질(感疾: 감기)에 걸려 급기야 2개월 후인 12월 5일에 사망한다. 그리고 1685년 12월 명성왕후 김씨의 3년 상이 끝났을 때 장희빈이 재입궐하게 된다. 출궁 전 옷전으로 모신 대왕대비 조씨가 숙종과 인현왕후에게 재입궐시킬 것을 권하였다고 하는 설과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숙종을 안타깝게 여긴 인현왕후가 주선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후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이미 시어머니 명성왕후가 장희빈을 극히 경계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숙종 12년인 1686년 2월 27일 숙종실록에 인현왕후가 계속 간택후궁을 들일 것을 종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후사를 못 본 자신을 대신하여 후궁을 들일 것을 주장한 것인데 속사정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에게서 왕자가 생길 것을 염려한 조치였다. 결국 장희빈의 재입궐은 인현왕후가 애초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한다.

장희빈이 입궐한 후 숙종이 대놓고 인현왕후를 거들떠보지도 않자 서인들의 위기의식은 날로 심해져갔다. 숙종 시대 자주 발생했던 모든 천재지변을 장희빈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고, 김창협은 '후궁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진실로 관어(貫魚: 궁인들의 순서)를 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종사(叢斯)의 경사가 있게 하고 미색(美色)에 마음이 현혹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은총을 열어 준다는 비난을 없게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해석하면 장희빈의 미색에 현혹되지 말고 궁인의 지위 순서로 성충을 내려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정비인 인현왕후와 당시 유일하게 후궁의 지위를 갖고 있던 숙의 김씨에게서 후사를 보아야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희빈을 향한 비난에는 인현왕후까지 직접 나섰다. 그녀는 숙종에게 장희빈을 쫓아낼 것을 여러 번 주장했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돌아가신 명성왕후 김씨가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장희빈이 원한을 품고 환생한 짐승의 화신이며 불순한 무리(남인들)의 사주를 받고 입궁했으니 반드시 쫓아내야 화가 없다'고 했다. 거기에 덧붙여 '장희빈의 팔자에 본래 아들이 없으니 (숙종이)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셔도 공이 없을 것이다'라고 숙종을 힐난하였다. 뒷말은 훗날 인현왕후 민씨가 폐서인이 되어 폐출되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숙종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희빈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서 종4품 숙원(淑媛)을 거쳐 정2품 소의(昭儀)의를 받게 된다. 소의 품계는 장희빈이 임신을 했을 때 내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1688년 왕실이 그토록 고대하던 숙종의 장남 '균'(均)('윤'이라고도 읽는다)을 낳았으니 이 왕자가 후에 조선 왕조 제20대 왕 경종(景宗)이다. 1689년 1월 15일, 숙종은 균에게 원자(元子: 왕의 큰아들) 명호를³⁵⁾ 대내외에 선포하며 원자 균의 생모 장희빈을

35) 원자는 공식적인 왕의 장자. 곧 장남으로서 조선은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했다. 즉 왕위 계승 서열 1위이다

정1품 빈으로 책봉하여 내명부 품계 1위로 만든다. 이로써 장희빈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그리고 같은 해 경신환국(庚申換局)때 쫓겨났던 남인이 장희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반대파인 서인을 박멸하다시피 했던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난다.

서인 노론계의 거두 송시열은 장희빈의 빈 품계 때도 그랬지만 왕자 균의 세자 책봉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렸다. 숙종은 원래 왕권의 위치를 사사건건 견제하는 송시열을 싫어하던 차에 남인들의 주청으로 서인들을 대거 숙청하고 유배를 보낸다.

제주도로 유배된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중 사약을 받았고, 영의정 김수홍을 비롯해 김만중·김익훈·김석주 등은 보사공신의³⁶⁾ 호를 삭탈당하거나 유배당했다. 정치적 뒤 배경이었던 서인들이 노론계, 소론계 막론하고 사라지자 마침내 중전인 인현왕후마저 폐비되기에 이른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인현왕후 민씨에게 내려진 죄는 죽은 시부모의 계시(罫)를 빙자하여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후사를 못 볼 것이라고 왕의 육체를 조롱한 죄, 투기로 내전(內殿)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내전에서 궁인의 당파를 나누어 봉당을 일으킨 죄 등이었다.

1690년 5월 13일 숙종은 폐출된 인현왕후 대신 새로 계비를 간택하지 않고 원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중인 출신이자 궁녀 출신인 후궁이 국모로 오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인현왕후가 폐비가 된 후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가 돌게 된다.

36) 보사공신(保社功臣)은 경신환국 때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는 한 철일세.철을 잊은 호랑나비 오락가락 노닐더니
제철 가면 어이 놀까 제철 가면 어이 놀까’

김춘택, 한중혁 등이 민간에 왕비 장희빈을 조롱하는 참요를³⁷⁾ 퍼뜨렸다. 미나리는 인현왕후 민씨, 장다리는 중전 장씨를 뜻한다. 숙종에게 장다리 같은 장씨의 품에서 헤매지 말고 미나리 같은 인현왕후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김만중도 소설 ‘사씨남정기’를 써서 장희빈과 숙종을 혼계했다. 내용은 중국 명나라의 유현이 정실부인 사씨를 내쫓고 첩인 교씨를 정실부인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교씨의 간악함을 깨닫고 사씨를 다시 맞아들인 다음 교씨를 죽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 소설처럼 인현왕후 민씨와 장희빈의 운명은 역전된다. 숙종이 장희빈을 내치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 한다’라는 의미의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었다.

숙종은 여인보다 왕권을 사랑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나이가 들어 미색이 퇴색되고 성정마저 방자해져 숙종이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설정하여 장희빈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숙종은 조선시대 후반 왕권정치를 뿌리 깊게 만든 장본인이다. 본래 조선은 사대부(양반 관료)의 나라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고 항상 승리는 신권이였다. 신권은 붕당정치로 대표되는데 어느

37) 참요(讖語)는 시대의 변화나 정치적 징후를 예언하거나 암시하는 민요.

한 붕당이 절대 권력을 잡지 못하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면서 왕권의 독단정치를 막는 구조로 조선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런데 숙종이 등장하면서 이런 틀이 깨진 것이다.

왕이 죽으면 대신들이 왕의 업적이나 이미지를 근거로 묘호를 결정한다.『경종실록』에 따르면, 숙종이 죽은 지 7일 뒤(1720년 7월 19일)에 2품 이상의 대신들이 회의를 열어 숙종이란 묘호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신들이 바라본 숙종의 이미지는 강덕극취(剛德克就).’강직하고 덕스럽고 이겨내며 나아간다’는 뜻이다. 강덕극취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엄숙할 숙(肅)이다. 숙종(肅宗)이란 묘호는 이렇게 결정되었다. 숙종은 대신들의 판단처럼 강하고 저돌적이었다. 그리고 재위 시절 나라가 뒤집어지는 3번의 환국을 통해 왕권정치를 강화했다. 숙종이 재위에 오른 건 나이 13세 때. 조정대신들이 어머니 명성왕후의 수렴청정을 주장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권력의 화신이 등장한 것이다.

숙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붕당 간의 싸움을 이용했다. 단순히 당파투쟁을 조정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다. 특정 당파를 밀어주다가 그쪽이 너무 세지면 반대쪽에 힘을 실어준 뒤 싸움을 붙였다. 3번의 환국(換局)이라는 급진적 정변이 숙종 때 자주 발생한 것은 숙종이 택한 고도의 노림수였다. 거기에 덧붙여 숙종은 조정 내 붕당의 당파투쟁을 궁중의 여인천하(왕비)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숙종은 집권당을 바꿀 때마다 집권당 출신 여인을 왕비로 책봉했다. 각 당파의 목표는 중전 자리를 차지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왕비 책봉권을 가진 숙종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숙종은 당파투쟁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왕비를

교체했다. 집권당이 너무 세졌다 싶으면 현재 왕비에 대한 싫증을 노골적으로 표시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이 어느 정도 세지면 야당 쪽 여인을 왕비로 만들면서 즉시 집권당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남인당 출신 장희빈, 서인당 출신 인현왕후와 뒤에 영조의 생모가 되는 숙빈 최씨(드라마 동이에 나오는 무수리 최씨)는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장희빈이 죽게 된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한 숙빈 최씨. 뒤에 영조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장희빈이 죽은 후 숙종에게 버림받아 궐 밖으로 내쫓겼다. 이렇듯 숙종은 사랑보다는 권력이 더 소중했던 것이다.

사약인가 자진인가?

숙종의 3번째 환국인 갑술환국(甲戌換局, 갑술옥사)은 1694년(숙종 20년) 숙종의 폐비(廢妃) 인현왕후 민씨(閔氏) 복위운동을 둘러싸고 서인 소론계가 남인을 몰락시킨 사건이다. 이때 이미 숙종은 장희빈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아울러 남인 집권당의 권력에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인현왕후의 복위를 바라며 몰래 치성을 드리던 최무수리(숙빈 최씨)에게 승은을 준 숙종은 질투하는 장희빈을 몰아세웠고, 기회를 엿보던 서인들은 장희빈을 강등시키고 인현왕후를 궁에 재입궁하게 해 갑술환국을 완성시킨다. 여기에 숙종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계획되었음은 물론이다. 왕비에서 폐위된 장희빈의 몰락은 가파르게 진행된다. 인현왕후가 질병으로 죽자 남인들이 장희빈의 복권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재차 위기를 느낀 서인들은 인현왕후의 죽음의 원인을 장희빈에게서 찾았다.

인현왕후의 동복 오라비인 민진후(閔鎭厚) 형제는 인현왕후가 생전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숙종에게 받고한다. 여기서 ‘빌미’란 장희빈의 저주로 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증언을 덧붙인 사람은 인현왕후와 함께 노론에 속했던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였다. 그녀는 장희빈이 기거하는 취선당 서쪽에 신당(神堂)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으며 인현왕후는 병이 아닌 희빈 장씨의 저주에 의해 시해당한 것이라고 받고하였다.

그 이전 숙빈 최씨는 장희빈의 질투를 받아 매질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역시 장희빈의 적대세력인 서인들이 집권 후 기록한 것이라 신빙성이 낮다. 하지만 갑술환국을 거친 후 남인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숙종은 장희빈 주위의 시녀들과 무속인들을 국문하면서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실제로 장희빈은 취선당 한쪽에 신당을 지었고 굿을 했지만 장희빈의 측근들은 1699년 세자 윤이 두창에 걸리자 쾌유를 기원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순서였다. 갖은 고문으로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굿이었다는 실토가 시녀와 무속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고, 1701년 숙종은 장희빈에게 죽음을 명하게 된다. 그런데 잠깐 한 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장희빈의 반대파가 저술한 숙종실록 어디에도 장희빈이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한 내용은 없다는 점이다.

장희빈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는 상황이다. 숙종이 직접 보는 가운데 사약을 악독하게 거부한 장희빈을 시녀들이 역지로 4사발이나 먹였다는 장면이다. 이는 인현왕후를 가까이 모셨던 궁인이 기록한 『인현왕후전』에 나온다. 또한 마지막 죽기 전 세자 균을 불러달라는 장희빈의 간청과 함께 균의 남성을 쥐어 잡아 후사를

못 얻게 했던 장희빈의 악행이 기록된 『수문록』도 있다. 하지만 정사인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사약을 먹고 죽는 사사의 기록이 없다. 대신 숙종은 조정대신들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장희빈에게 자진(自盡)을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 인현왕후전에서는 장희빈이 천벌로 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궁 밖으로 시체를 내버렸다고 기록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숙종실록에 기록된 장희빈의 장례 절차는 지극히 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는 물론 후에도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장희빈의 장례 절차는 모두 궁에서 주관하고 치러졌으며 종친부 1품의 예로 모시게 했다. 여기에 경국대전과 궁의 주례 상 세자 균은 3개월의 상을 치러야 했지만 숙종은 대신들의 상소를 물리치고 3년 상을 치르게 했다.

장희빈의 처음 묘는 경기도 양주 인장리다. 그런데 장희빈이 죽은 지 16년이 지난 1717년 12월, 장씨의 묘가 용맥(龍脈)은 있으나 혈(穴)이 없고 수법(水法)도 합당하지 못하여 완전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함일해의 상소가 올라왔다. 숙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이장을 명령했다. 그 후 1년 간 경기도 내 길지(吉地)를 수없이 찾은 끝에 가장 평가가 우수한 광주 진해촌으로 정했고, 와병 중인 숙종이 직접 나와 살핀 후 택점하였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중인 출신이자 궁녀 출신인 후궁이 국모로 오른 장희빈. 하지만 장희빈이 죽은 후 숙종은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국법을 고쳐버린다. 후세의 학자들은 숙종이 얼마나 장희빈에게 염증을 느꼈는가 하는 방증이라고 하지만 고도의 왕권정치를 펼친 숙종이 미리 선수를 쳐서 대신들과 타협점을 찾은 행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숙종과 장희빈. 서로 사랑했지만 숙종은 결국 사랑보다 왕권정치를 택했다. 야사에 기록된 장희빈은 경국지색의 미모를 갖췄지만 악독하고 방자한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한 정사를 면밀히 살펴볼 때 장희빈은 치열한 권력투쟁의 희생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비단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영조를 낳아 최후의 승리자로 인식되는 숙빈 최씨도 숙종에게 버림을 받아 궁 밖으로 내쳐졌다. 왕권정치를 추구한 숙종 시대 역사를 통해 장희빈·인현왕후·최숙빈 모두 그 시대 정치 피해자였다. 승리자는 숙종 한 사람뿐이었다.

혜경궁 홍씨

이동화(인천일보 문화국 부국장)

탄생과 성장과정

사도세자의 부인, 세자빈이었다. 열 살 때 차기 임금이 될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똑똑한 아들까지 낳아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엽기적인 사건으로, 줄지에 그 남편이 죽고 말았다.

영조의 며느리, 사도세자의 부인, 정조의 어머니, 순조의 할머니로서 정치판의 중심에 있었다. 궁궐에서 칠십 년 이상을 살면서도 궁 밖을 벗어나 본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은 일이 없었고, 그의 일언일행은 늘 세상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 후기,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한 많은 여인’ 혜경궁 홍씨다.

혜경궁은 1735년(영조 13) 6월 18일 서울 서대문 밖 평동 외가에서 아버지 홍봉한과 한산 이씨 사이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순조 15년 1815년 12월 15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파란 많은 일생을 마감했다.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릉에 묻혀 있다.

아버지 홍봉한은 혜경궁이 태어나기 전날 밤에 용꿈을 꾸었기에 아들인 줄 알았다. 물론, 나중에 혜경궁이 용상을 차지한 임금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그 꿈은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 셈이다. 홍봉한은 혜경궁이 태어나던 해에 생원진사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벼슬은 얻지 못하다가 의릉 참봉이라는 첫 벼슬을 얻었다. 이후 등과하여 어영대장, 평안감사를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할아버지 홍헌보가 이조참판과 예조판서를 지냈기에 집안 경제 사정은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염려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지각 있음으로부터 부모 사랑하오심을 능히 받자와 대소사(大小事)에 걱정시키옵는 일이 적었다”고 자평하고 유년시절 가정 교육을 양친에게서 눈으로 직접 익혔다고 했다.

혜경궁은 작은 어머니 평산 신씨에게 한글을 배웠다. 집안이 문학적 소양, 특히 이야기 문학의 전통을 이어온 가문이었다. 혜경궁은 궁궐에서 세자빈 수업을 따로 받았고, 결혼 후에는 서울 양반가 여성들처럼 한글 야사와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정조는 생전에 신하들에게 어머니 혜경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젊어서부터 한 번 보거나 들으신 것은 종신토록 잊지 않으셨으니, 궁중의 옛일부터 국가제도, 다른 집 족보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지 못한 바가 없으셨다. 내가 혹시 의심스러운 바가 있어서 질문하면 하나하나 지적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그 충명과 박식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

혜경궁지문, 순조실록, 1816년 1월 21일

혜경궁은 죽은 다음 ‘헌경(獻敬)’이라는 시호를 얻었는데, 총명하고 조심스러웠다고 해서 붙였다고 한다. 그는 한중록을 남기고, 조선 제왕 중 학식과 충기로 으뜸인 이들 정조의 어머니다. 아버지 흥봉한은 물론 오빠 흥낙인, 동생 흥낙신, 흥낙임이 줄줄이 과거에 합격한 수재 집안이고, 많은 저작과 문필을 남겼다. 혜경궁은 타고난 총명애다 이런 문화적·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삼간택을 거쳐 최종 합격한 혜경궁은 입궐해 세자빈 교육을 받고 1744년 1월 11일 가례를 올렸다. 세자빈으로 극적인 인생전환을 이루었지만, 결혼 생활은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파탄났다.

한중록을 옮긴 정병설은 “한중록을 읽어보면, 남편에 대한 절절한 정과 그리움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사도세자가 광증이 깊어져 주위 사람들을 마구 죽이자 남편이 죽기까지 바랐다. 온양 온천으로 간 사도세자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거나, 학질에 걸린 남편이 차라리 그 병으로 죽었으면 했다고 쓴 것이 구체적인 예가 된다”고 했다.

혜경궁은 무슨 특별한 선행을 베푼 사람도, 죽을 때까지 남편을 그리워한 열녀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남편을 죽인 악녀도 아니었다. 그는 남편을 좇아 자신과 친정의 영화를 기대하다가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정치적 반대파의 공격으로 친정의 부모 형제가 죽어 나가는 극한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게 혜경궁 홍씨는 열 살에 왕의 며느리로 입궐하여 왕의 어머니(정조)와 할머니(순조) 신분으로 81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중심처 궁궐에 갇혀 조선여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아픔을 경험한 한 많은 여인이다.

남편 사도세자의 총명함과 엽기적인 죽음

“은 나라 백성들이야 누가 기뻐 춤추지 않으리오.”

1735년 1월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영조는 종묘와 사직의 경사라고 기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조의 맏아들이자 사도세자의 이복형인 효장세자가 1728년 죽고나서 세자 자리가 오래 비어서 밤낮 근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태어난 지 백 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았는데, 네 달 만에 기고, 여섯 달에는 영조의 부름에 대답했고, 일곱 달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고, 두 살에는 글자를 배워 육십여 자의 한자를 썼다. 체격이 장대하고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으시며 또한 총명했다’면서 사도세자의 자질이 범인과 특별히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 혜경궁은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끄셔서 교훈과 자애를 아울러 썼다면, 그 어질고 너그러운 도량으로 성취함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일찍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니, 이 한 가지로 인하여 돌고 돌아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마침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영조의 뜻에 따라 태어난 지 백 일만에 부모곁을 떠나 부모에게 맡겨졌으며, 일찍이 왕세자의 생활공간인 저승전(儲承殿)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상하며 애석해 했다.

혜경궁이 열 살 때 처음 만난 남편 사도세자는 행동이 굼뜨고 말이나 판단도 느리고 둔한 똥보 아이였다. 사도세자는 본격적인 세자수업에 들어갔지만 곧 공부를 싫어했다고 한다. 게다가 세자수업은 대개 오전, 오후 두 차례 있는 서연(書筵)과 소대(召對)를 열었는데, 그 강도가 엄청 높았다.

조선 최고의 여러 선생들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집중지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경전을, 오후에는 역사서를 읽고 외우고 뜻풀이 하고, 그것을 다시 현실에 적용해서 문답하는 방식이다.

지친 것인가. 혜경궁이 궁궐에 들어올 무렵 이미 세자는 눈이 어질어질하다고 호소하는 등 몸에 이상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영조는 세자의 어지럼증을 공부하기 싫은 아이의 피병쯤으로 간주했다. 이 때부터 엄한 아버지의 눈 밖에 나기 시작했다.

혜경궁은 “과연 1745년 즈음 아이들 야단스럽게 뛰노는 것과는 달리 예사롭지 않으신 모습을 보이니 병환이 드신 듯하더라”고 적었다. 뛰어노는 행동도 보통 사내아이들 노는 모습과는 달리 유별났던 모양이다. 영조가 사랑하던 딸 화평옹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실의에 잠겨 있는 사이 사도세자는 잠시 자유를 얻었다. 활쏘기, 칼쓰기,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주술서나 방술서 같은 잡서를 읽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사도세자의 병은 갈수록 깊어져 스무 살이 넘어서면서 우물에 몸을 던지는 등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영조는 그런 세자를 만나기만 하면 꾸짖고, 지독한 모욕도 주었지만, 급기야 1757년 6월부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죽기 전까지 백여 명의 아랫사람을 죽였다고 한다. 내관의 목을 베어 나인들에게 돌려 보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머리를 혜경궁에게도 들이밀었다. 이 같은 살인과 폭력 같은 광기의 비행은 물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나서기까지 했다.

혜경궁은 사도세자가 광증으로 치닫게 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왕 영조의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과 훈육 외에,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던 사도세자의 성장환경을 들고 있다.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나자 곧 부모와 떨어져 살았는데, 게다가 부모가 동궁의 내인을 꺼려 왕래마저 드물게 되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혜경궁은 그런 사도세자가 죽기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서 남편을 지웠다. 마침내 아버지 영조는 아들에게 자결을 명했다. 신하들이 막아섰지만,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게 된다.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놓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정신질환으로 불가피한 단죄였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노론의 세도를 개혁하려는 당쟁의 희생양이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혜경궁이 쓴 한중록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심정과 이 글을 쓴 배경을 엿볼 수 있다.

“경모궁께서도 타고난 본성은 어질고 너르시나, 병환이 만만 망극하셔 종묘와 사직이 위태로우니, 끝내 어쩔 수 없이 일을 당하시니라. 나나 정조나 경모궁의 아내와 자식으로 그 망극한 변고를 당하고도 능히 죽지 못하고 살아난 것은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는 논리 때문이라. 대저 이 일에 대해 영조를 원망하며 경모궁이 병환이 없으신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또한 아버지(홍봉한)께서 뒤주를 들이게 했다고도 하니, 이는 실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조, 경모궁, 정조 모두에게 망극한 말이라. ‘애통은 애통이고 의리는 의리라’는 논리만 잘 붙잡으면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가 무엇이 어려우리오.”

조선의 성군, 아들 정조를 낳다

혜경궁은 결혼하고 만 오년이 지난 1749년 1월에 첫날 밤을 보냈다. 부부가 동침하는 이른바 합례(合禮)는 통상 성인 나이로 간주되는 열다섯 살 어른이 되고 나서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여섯 살에 큰 아들 의소세손을 낳았는데, 두 돌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영조 28년(1752) 봄에 의소가 죽고나서, 그 해 가을에 둘째 아들 정조가 태어나는 경사가 일어났다.

“정조께서는 타고난 바탕이 비범하시고 뛰어난 기상을 가지셨으며 체격이 특별하시고 콧대가 우뚝한 반듯한 얼굴이라. 말을 배우면서부터 글자를 아셨고 어려서부터 학문에 부지런하시니,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책을 놓으시는 일이 없으시더라.”

혜경궁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아들 정조가 열살 때에 남편 사도세자가 죽었다. 궁궐을 떠나면서 정조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망극망극하나 다 하늘의 일이시니라. 네가 몸이 평안하고 착하여야 나라가 태평하고 성을 갈 것이니, 서러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죄인의 아들이었기에 숨죽이며 살얼음판 같은 세월을 이겨내고 1776년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이제 임금의 효도를 받으며 살 수 있었건만, 오히려 친절은 발이 묶였다. 흥봉한이 동궁 정조를 위협했다는 것, 이후 정조보다 정조의 이복동생을 더 잘 돌보았다는 것, 그리고 흥낙임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것 등등이다. 그런 친정식구들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조가 재위 24년(1800) 6월 18일, 49세로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다시 고통의 날이 시작된다. 정조가 죽자 순조 임금의 할머니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섰다. 손자(순조)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대비 측의 벽과 세력은 천주교 금지를 명분으로 남인계 중심의 시파 세력과 실학자들에게 일대 숙청을 가했다. 이 때 혜경궁의 동생 흥낙임은 시파의 거두로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고 제주도에서 사사되고 말았다. 이어 정순왕후는 역적을 토벌했다고 반교문(頒敎文)을 전국에 선포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 흥봉한을 역적의 수괴로 얹어 놓았다. 혜경궁의 집안은 다시 몰락하게 된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자 권력은 다시 혜경궁 쪽으로 넘어왔다. 순조는 아버지 정조가 정해 준 김조순의 딸과 결혼했는데 아버지처럼 왕실의 친인척을 배척하지 않았다.

혜경궁은 팔십의 인생 중 궁궐에서만 칠십년을 넘게 살았다. 궁궐을 떠났던 적은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안국동 친정집으로 간 것과 환갑 때 아들 정조를 따라 수원에 간 것 등 두 번뿐이다.

혜경궁은 1802년 한중록(閑中錄)에 남긴 글에서 “내 어린 나이에 입궐하여 이제 거의 육십년이라. 운명이 험하고 겪은 바가 무궁하여 만고에 없는 고통을 지낸 것 외에도, 억만 가지 큰 변을 다 겪었으니 더 살고 싶지 않되, 정조의 지극한 효성으로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고 했다.

혜경궁은 남편과 사별한 지 오십 년도 훨씬 지나서 남편 무덤 곁에 묻혔다.

조선의 산문 고전, 한중록(閑中錄)을 남기다

한중록(閑中錄)은 혜경궁 홍씨가 회갑때부터 시작하여 10년(61, 67, 71세)에 걸쳐 쓴 네 편의 글을 한데 묶은 작품이다. 영조 때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구한 일생을 엮은 자서전적 글이다.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여류문학으로 작가의 이름이 분명히 밝혀졌으며, 계축일기(癸丑日記),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과 더불어 궁중문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조선의 산문 고전'이다.

이 책은 하나의 단순한 작품이 아니고 전후 네 차례에 걸쳐 각각 목적을 달리하여 씌어졌다.

제1권에서는 회갑년에 친정 조카의 요청으로 사도세자의 죽음과 정조 이후 여러 정치적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다. 제2편은 67세 때 정조 승하 직후 흥봉한의 역적 누명, 흥낙임의 죽음 등에 충격을 받고 쓴 글이다. 제3편은 68세 때 순조의 효성에 호소하여 김귀주 일파의 모함의 내막을 밝히고, 제4편은 71세 때 부친이 뒤주를 들였다는 모함을 해명하기 위해 임오화변의 진상을 밝힌 글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니라 부모형제와 친정 자손을 위해 쓴 글이었다.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시중의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사실을 왜곡한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먼저 사도세자가 정말 반역죄가 있어서 죽었다는 소문은 정순왕후 측에서 퍼뜨렸다고 했다. 반역 혐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광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역죄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혜경궁은 한중록을 쓸 때 집안이 망한 아픔에 화가 치밀어 등이 뜨거워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역사와 문학을 뛰어넘는 인간 내면의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들 정조의 효행길

1762년(영조 34) 윤 5월 12일, 휘령전(徽寧殿, 현재의 문정전) 앞마당에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부주(父主, 아버지 왕)여! 살려주옵소서!"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사도세자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 애원했다.

하지만 아버지 영조는 자결을 명했다. 명령은 단호했다.

"네 날 없애고자 한들 어이 부모상에 입는 생무명 상복까지 입었느냐."

"너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겠다."

"내가 죽으면 조선의 사백년 중사가 다 망하겠지만, 네가 죽으면 중사는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니, 네가 죽는 것이 옳으리라."

영조는 아들이 갇힌 뒤주 뚜껑을 직접 덮고 자물쇠를 채웠다. 그렇게 비운의 왕세자는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굶어 죽었다. 정조가 불과 열 살 때의 일이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죄인의 아들이었기에 감시와 견제 속에서 숨죽이며 살얼음판 같은 14년의 오랜 세월을 이겨 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정조가 내뱉은 첫마디는 비수처럼 노론대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조정은 경악했다. ‘죄인의 아들은 임금에 될 수 없다’(罪人之者 不爲君王)며 필사적으로 왕위 계승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조는 아버지가 묻혀 있는 화성 현릉원을 13차례 행차했다. 특히 을묘년 행차는 특별했다. 정조 19년(1795)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회갑년이였다.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묘소인 현릉원(顯陵園)에 전배(展拜, 능침 등에 참배함)하고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회갑잔치인 진찬연(進饌宴)을 베풀었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거행한 8일간의 화성(수원) 행차는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을 축하하고 현릉원에 모신 아버지의 한 많은 영혼을 위로하려는 효심에서였다.

조선 최대의 축제, 혜경궁의 회갑잔치

드디어 출궁 행렬이 시작됐다. 장엄한 행행(行幸)이다. 1795년 윤 2월 9일 새벽,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창덕궁을 출발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정조가 어머니 회갑잔치를 위해 8일(9~16일, 양력 3월 29일~4월 5일) 동안 연출한 조선 최대의 축제가 막을 열었다.

우의정 채제공을 비롯해 문무백관과 나인, 호위군사 등 6200여 명과 말 1400여 필이 이동했다. 장대한 어가행렬이었다. 한강은 정약용이 창안한 배를 이어서 만든 노량주교(舟橋)를 이용해 건넜다. 첫날밤을 시흥행궁에서 보낸

어가는 빗길을 재촉, 이튿날 저녁 수원 화성행궁에 도착했다.

셋째 날 아침, 정조가 화성 향교에서 공자 등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에 나가 전배했다(화성성묘전배도).

이어 문무과 과거시험을 치르고 시상했다(낙남현방방도). 문과는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책문(策問)을, 무과는 활쏘기를 겨루었다. 정조는 문과 5명과 무과 56명을 선발, 합격증서인 홍패와 어사화·어사주를 내렸다. 이때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 군사들이 대거 합격했다.

넷째 날 아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 있는 현릉원을 전배했다. 이어 오후에는 황금 갑옷을 입고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서장대에 올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군사훈련을 관람했다(서장대성조도). 회갑잔치에 들어 있는 반전 프로그램이다. 정조의 최정예 친위부대 장용영이 군사시범을 보였다. 햇불을 켜고 계속된 야간 훈련에는 우리 고유의 로켓인 신기전 등이 어두운 밤하늘을 갈랐다.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정적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을 듯하다.

드디어 을묘년 윤 2월 13일, 회갑잔치 날이다.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혜경궁에게 올리는 연회를 베풀었다(봉수당진찬도). 봉수당 내전에 혜경궁의 상차림이 마련되고 봉수당 앞에 정조가 자리했다. 앞뜰에는 의빈과 척신이, 중앙문 밖에 문무백관들이 자리를 잡았다.

정조는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세(千歲)! 천세(千歲)! 천천세(千千歲)!”를 외치며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려 만수무강을 빌었다. ‘취하지 않는 자 돌아갈 수 없다’[不醉無歸]며 정조는 신하들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무용과 음악은 잔치의 위용을 더했다.

여섯째 날 새벽에는 화성주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이때 소요된 재원은 임금의 개인 재산인 내당금(內帑金)을 사용했다. 화성행궁 정문에는 흠아비와 과부, 고아 등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이 줄을 섰다.

오전에는 낙남헌에서 양로연(낙남헌양로연도)을 열었다. 나이든 조정 대신은 물론 화성부에 사는 노인 400여 명을 초청한 대규모 경로잔치였다.

회갑연이 궁중의 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성 지역 주민 전체의 잔치였던 셈이다.

낮에는 방화수류정을 시찰했다. 오후부터 밤까지 득중정에서 활쏘기를 하고 축제의 절정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했다(득중정어사도).

일곱째 날 공식일정을 모두 끝낸 어가 행렬은 화성행궁을 출발(시흥환어행렬도),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마지막 여덟째 날 일정을 마치고 환궁길에 올랐다. 노량주교(노량주교도첩도)로 한강을 건너 늦은 오후 창덕궁으로 환궁했다.

그렇게 축제는 끝났다. 8일 동안 성대한 축제는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 행행(行幸)이었다. 한편으로는 어린 정조의 가슴에 새겨진 아픈 과거가 숨겨진 비장의 축제이기도 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반대했던 노론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개혁 군주 정조, 그가 한 발 한 발 내디딘 원행길은 부모에게는 효의 행렬이고, 신하에게는 충의 행렬이었다.

명성황후

이동화(인천일보 문화국 부국장)

조선의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 민씨(1851~1895)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비(妃)다. 서구 열강이 서세동점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던 격동의 시기에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고민한 조선의 마지막 황후다.

철종2년(1851) 경기도 여주에서 민치록(1799~1858)과 한산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 때 부친이 사망한 다음 고향 여주를 떠나 서울 안국동 감고당에서 생활했다. 1866년 16살에 왕비로 간택되어 4남1녀를 낳았지만 1874년에 태어난 왕세자(순종)만이 생존했다.

조선왕조의 명문가인 여흥 민씨 가문 출신이다. 여흥 민씨는 명성황후 이전 조선왕조에서만도 2명의 왕비를 배출했다. 태종의 비 원경왕후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가 그들이다. 원경왕후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이며, 인현왕후는 명성황후의 직계 6대조인 민유중의 딸이자 민진후, 민진원의 누이동생이다.

아버지 민치록은 장릉참봉, 과천현감, 장악원 첨정 등을 지냈지만, 결코 격이 낮거나 한미한 집안은 아니었다. 순조, 헌종, 철종 대의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의 경우와 처지가 달랐지만, 혼맥이나 학맥을 놓고 볼 때 언제든 왕비를 배출할 수 있는 조선왕조의 몇몇 명문 가문 중 하나였다.

글읽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강직하며,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분별력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단성까지 갖추었다. 일찍 홀로된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으며, 왕비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친정세력이 미약하고 고아나 다름없는 명성황후가 고종의 비로 간택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외척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3대(순조·헌종·철종) 60여 년 간의 세도정치 폐단에 비추어 외척이 적은 집안에서 황후를 들여 황실과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흥선대원군의 의도였다. 안동 김씨 외척 세도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명성황후는 본질과 다르게 상반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시아버지인 대원군과 정쟁을 일삼는 권력욕에 불타는 간악한 여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왜곡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감각과 능력이 뛰어난 왕비요, 열강의 각축장 속에서 외세에 당당하게 맞섰던 지혜로운 황후였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다.

명성황후는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국의 침략 세력끼리 서로 견제하고 싸우게 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술을 발휘했다.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대립구도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이 치밀한 계산으로 선택한 왕비인데, 왜 서로

상극관계가 되었을까.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쇄국노선과 부딪치면서 분란이 일어났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개방과 개화에 뜻을 두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다.

갈등의 싹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흥선대원군 부인의 추천을 받아 고종의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대원군과 그 부인인 부대부인, 궁중의 어른들을 잘 섬겼다. 하지만, 정작 지아버인 고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대원군이 고종의 사랑을 받던 궁인 이씨가 낳은 완화군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면서부터 틀어졌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만회하려고 세력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종에게는 아내보다는 정치적 반려자로 다가갔다. 그래서 춘추(春秋),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을 독서했다. 춘추는 중국의 전국시대 이야기이고, 춘추좌씨전은 춘추에 좌씨라는 사람이 해석을 붙인 책으로, 황제나 읽어야 할 정치 서적이었다. 어느덧 황후의 정치적 역량과 판단은 어느 대신들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남편 고종은 1852년 흥선 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863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버지 대원군이 10년 동안 섭정했다. 1873년 최익현의 탄핵으로 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자 고종은 직접 정국 현안을 주도하고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추진했다.

대원군에게 내준 정권을 되찾은 고종의 친정 선포는 나라와 정권이 임금이 아닌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황후의 생각과 계획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후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본격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한다.

1919년 3월 고종이 사망한 이후 기록한 행록(行錄)을 보면, 고종은 서구제도와 문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군주로서 인자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고종의 왕비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고 한다. 고종은 1882년 8월 임오군란 이후 왕비가 다시 대궐로 돌아오자 “일찍부터 어진 왕비가 안에 앉아서 도와줌이 또한 컸다”고 왕비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명성황후가 살던 시기는 한국역사에서 국내외적으로 격변이 가장 심했던 시기였다. 안으로는 봉건체제에 도전하는 민중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상황이었다.

명성황후의 정치 참여는 정치주도권을 둘러싼 대원군과 고종의 왕실 내부 간의 특이한 갈등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아버지 대원군의 지나친 정치적 야망과 남편인 고종의 소극적인 성격에 의해 난국을 타개하는데 명성황후는 고종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명성황후가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데는 한계도 있었다. 왕권 중심의 봉건체제와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인 왕비가 정치 전면에 나선다는 거부감과 부정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명성황후를 죽였는가

작전명령, ‘여우 사냥’.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45분경, 경복궁 내 건청궁 옥호루(玉壺樓)에 난입한 일본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칼로 시해했다.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사른 뒤 뒷산에 묻었다. 전대미문의 국모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이다.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우의 지휘 아래 일본 군인과 자객들이 뒤섞인 무장행렬이 ‘여우를 베어라!’는 작전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르며 한 나라를 상징하는 궁궐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왕비를 색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왕비와 용모가 비슷한 여러 궁녀들을 함께 살해했다.

“일본 자객 중 한 명이 도망치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발로 세 번이나 내리 짓밟고, 칼로 찔러 죽였다.” 주한 외교관들이 묘사한 왕비의 시해과정이다.

조선의 궁궐은 임금의 도덕 군주가 되기 위해 자신을 수양하고 통치자로서의 길을 배우며, 백성을 위해 고뇌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기 위한 공적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건청궁을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군대를 동원해 습격하고, 조선의 국모를 잔인하게 시해한 만행이었다.

구한말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뛰어난 정치적 재능을 발휘한 실세 왕비는 45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을미사변으로 사망한 이후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1897년 명성황후로 추존되었고, 그 전까지는 중전 민씨, 왕후 민씨로 불렸다. 흔히 민비라고도 알려져 있다. 황후의 장례식은 1897년 11월 국장으로 거행됐다. 일본인 흉도의 칼에 처참하게 세상을 떠난 지 2년 1개월 만이었다. 임오군란 때 황후가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장호원으로 피신 했을 때, 행방이 묘연한 황후를 찾지 못하자 대원군이 사망을 선포하고 장례를 치렀으니, 두 번째 장례인 셈이다.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흥릉이다.

어떻게 이런 만행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명성황후는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 반정부 세력이 정부를 뒤엎으려는 혁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는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구성된 김홍집 내각의 권력은 항상 군주를 억압하고, 모든 정무는 내각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강압하에 내정개혁을 추진하던 조선정부는 자주적 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친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삼국간섭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일본 교관들이 양성한 훈련대의 해산방침을 통보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그 결정의 배후로 왕후를 지목한 것이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조선 병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소위 대륙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결국 그들은 ‘국모시해’를 선택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 나라를 지키려다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자객에 의해 희생된 것이다. 당시 국운이 쇠약하여 한나라의 국모가 처참하게 시해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끝내는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다.

을미사변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다. 1896년 21세의 김구 선생은 국모시해의 원수를 갚기 위해 황해도에서 일본 육군 특무장교 쓰지다를 죽였으며, 1909년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 살해 이유 14개 항 중 첫째가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라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은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모 시해사건과 급진적인 단발령은 항일의병운동의 불씨가 되어, 광복까지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명성황후, 어떤 사람이었던가

황후는 모범적인 국모였을까. 아니면, 권력욕이 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여성이었을까. 조선의 멸망과 일제 강점기 개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일까.

명성황후의 이미지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부정적이었다. 왕비는 권력욕에 불타는 간악한 여인으로 시아버지와 권력싸움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존재, 말 그대로 ‘집안을 망친 암탉’이었다. 대원군은 서원철폐와 같은 개혁적 의지를 가졌지만 왕비는 오로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한 여성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렇듯 그에 관한 기록이나 평가는 인색하다. 식민주의적 역사왜곡과 남성 위주의 유교적 가부장 사회라는 시대적 분위기도 한몫했다. 또한 민씨 일가의 권력 독점으로 외척을 통한 세도정치가 되살아 났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뮤지컬과 드라마, 영화를 통한 긍정적인 이미지 묘사와 재평가 작업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외국인과 역사기록에 그려진 명성황후

명성황후를 직접 만난 외국인이 바라본 명성황후는 어떤 모습일까.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나는 왕비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사려깊음, 지성, 통역이라는 단계를 거쳐서도 느껴지는 놀랄 만한 언변 모두가 인상 깊었다. 나는 그녀의 정치력과 통솔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왕비의 주위에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중략) 그녀의 삶은 투쟁이었다”고 묘사했다.

선교사 언더우드 부인은 “중국고전에 조예가 깊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폭넓고 진보적인 정책과 국민복지를 추구했다. 따뜻한 온정과 어린이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주었다. 재치있는 외교관 같았으며 늘 반대자들을 이겼다”고 했다.

윌리엄 샌드 미국 서기관은 “개성이 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의지의 여성이었으며, 시대를 앞섰고 여성을 초월한 정치가였다”고 했다.

초대 주한 미국 공사 푸트 부인은 명성황후가 위압적인 자세와 꿰뚫어보는 눈을 소유했다며 강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명성황후를 기억했다.

명성황후 주치의였던 미국 여의사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남자를 능가할 만큼 늠름한 여걸이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고종은 황후의 (두 번째) 국장을 앞두고 지은 ‘어재행록 (御製行錄)’에서 “아! 내가 황후를 저버렸다. 지금을 슬퍼하면서 지난 일을 쫓아 생각하니 회한이 그칠 줄 모른다”고 자책하고 황후의 성품과 지모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황후는 성품이 단정하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인자하여 어려서부터 행동하는 것이 떳떳하였으며 과격하게 말하거나 웃는 일이 없었다. 처녀들이

꽃을 꺾어서 벌레를 희롱하니 말리며 말하기를, ‘벌레들이 새끼를 부리고 숨 쉬게 하고 잘 기르는 것은 너희 부모가 너희를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보다 일찍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역대 정사에 대한 득실을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환히 알았으며, 국가의 전고 (典故)와 열성조 (列聖朝)의 좋은 말과 아름다운 행실, 혹은 사승 (史乘)이나 보감 (寶鑑)에 실려 있지 않은 것까지도 황후는 능히 말했다.”

“슬기로운 지혜는 타고난 천성이어서 사물의 기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신과 같았다. 어려울 때 (임오군란)를 당한 이후로는 더욱 살뜰히 나를 도왔다.”

“교섭하는 문제 (외교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짐을 권해서 먼 곳을 안정시키도록 하니 각국에서 돌아온 사신들이 아뢰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감복한다’라고 하였다. 황후가 일찍이 짐을 도와서 (외교에 관해)말한 것이 있는데 근년에 지내면서 보니 모두 황후가 일찍이 말한 것이 일마다 다 딱딱 들어맞았다.”

“황후가 일찍이 인재 등용에 관해 얘기하면서 ‘국가의 치란과 안위는 오직 인재등용의 잘잘못에 달려 있습니다. 인재가 어진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전적으로 맡겨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어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황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찍 용단을 내려 김홍집, 유길준, 조희연, 정병하 네 역적을 제때에 처형하지 않아서 끝내 저들이 외국 군사를 불러들이고 몰래 훈련대를 사주하여 을미년의 천하 만고에 있어본 적이 없는 변란을 일으키게 하고 말았다.”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명성황후 생가는 여주시 명성로 71(능현동 250-3) 명성황후 생가 유적지 내에 있다.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8세까지 살았던 집이다.

숙종13년(1687) 왕의 장인인 민유중의 묘막으로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은 안채 27평뿐이었으나, 1995년에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을 복원하였다. 명성황후가 어렸을 때 공부한 방이 있던 자리에 그녀의 탄생을 기념해 세운 명성황후 탄강구리(明成皇后 誕降舊里), 즉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이라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 옆에는 민유중 신도비도 있다. 그 외 명성황후 기념관(2000년도에 건립), 문예관(2002년도 건립), 감고당(2008년도 이전) 등이 있다.

비록 집에 쓰인 목재가 그리 크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인 간살도 넓지 않으나 각 구조물의 형태와 쓰임 등에서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생가 맞은 편에는 명성황후를 추고하고 관련 유물, 자료들을 전시하는 명성황후 기념관이 있다. 연면적 520㎡의 전시실에는 명성황후 친필, 고종 편액 등 관련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000년 건립 이후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발길이 늘 끊이지 않는다.

감고당(感古堂)은 조선역사에서 인현왕후와 명성황후 두 분의 왕비가 거쳐했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서 깊은 건물이다. 감고당은 장희빈이 왕자 균(위의 경종)을 낳으면서 세자 책봉을 둘러싼 문제에 휘말려 폐서인된 인현왕후가 6여 년간 머물던 곳이다. 감고당이라는 당호는 영조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피 준 인현왕후를 위해 지어준 이름이며, 어필(御筆)로 편액을 써서 새겨 걸도록 했다. 명성황후는 아홉 살 때 부친이 사망한 다음 안국동 감고당에서 살다가 1866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감고당은 1966년 안국동에서 쌍문동으로 옮겨진 후 쌍문 고등학교 신축계획에 따라 멸실 위기에 처했다가 2008년 여주 명성황후 생가 인접 부지 내로 이전 복원됐다. 감고당은 조선시대 중부지방 사대부 집안의 전형적인 건축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연표

명성황후 明成皇后

1851.11.17~1895.10.8(양력)

1851년 9월 25일(양력 11.17) 명성황후 출생

1863년 12월 13일 조선 제26대 고종 즉위

1866년 3월 6일 명성황후 왕비 책봉

1871년 11월 4일 원자 출산(11.8 사망)

1873년 2월 13일 공주 출산(9. 28 사망)
 1873년 11월 5일 고종 친정 선포(대원군 실각)
 1874년 2월 8일 대군 출산(조선 제27대 순종)
 1876년 2월 2일 강화도 조약 체결
 1882년 2월 19일 왕세자 혼례(세자빈 민태호의 딸)
 1882년 6월 9일 임오군란
 1882년 6월 10일 명성황후 사망 발표(명성황후 장호원 피난)
 1882년 8월 1일 명성황후 환궁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
 1886년 2월 22일 명성황후 이화학당 교명 하사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4년 청일전쟁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1897년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명성왕후에서 명성황후로 개칭)
 1897년 11월 21일 명성황후 국장 거행

최용신

이동화(인천일보 문화국 부국장)

들어가는 글

“내 몸뚱이는 샘골과 조선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그 샘골과 조선을 위해 일하다 죽었던들 그게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최용신(崔容信 1909~1935)은 일제의 식민지 농촌 수탈에 맞서 교육을 통한 농촌 계몽과 민족의식 고취에 몸을 던진 전설적인 여성이다. 1931년 안산 샘골에서 농촌운동에 뛰어들어 한글강습과 의식계몽 등에 힘을 기울였다.

수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농촌 계몽사업에 헌신하다 병을 얻어 25년 6개월의 짧지만 빛나는 생애를 마쳤다. 안산 상록수 샘골마을에 묻혀 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심훈이 지은 개화기의 유명한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이 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샘골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최용신 선생입니다. 왜정의 칼날 같은 감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주었고, 담대히 학원을 열어 민족혼을 불어넣어 주었지요.”

독립운동가 최용신

최용신(崔容信 1909.8. 12~1935.1.23)은 식민지 수탈로 피폐해진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이다.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223명 중 한 명이다. 공훈록에는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는 생각에서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한 그녀의 업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39년 최용신 전기를 최초로 집필하고, 1998년 증보 9판까지 발행한 류달영은 최용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동네의 모든 사람은 최 선생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주저 없이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최 선생은 더욱 조심하고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모든 사람을 받들었다. 모든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은 모두 다 최 선생에게 가지고 왔다.

심지어 내외끼리 밤새도록 싸움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시비를 가려 달라고 최 선생에게로 온 일까지 있었다. 닭 한 마리를 잡아도, 붕어 몇 마리쯤 낚아와도, 보리개떡을 찌더라도 그들은 최 선생에게 나누어 드리지 않고서는 마음 편하게 먹지를 못하였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백만사가 모두 선생의 뜻에 맞게 움직여지되 절대로 앞에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지시하는 일은 없었다.”

이런 최용신의 모습을 류달영은 “샘골의 돌도 없는 중, 돌도 없는 여왕”이라고 표현했다.

샘골의 농촌계몽가

최용신 연구자 중 한 명인 역사학자 김형목은 농촌계몽운동사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인물로 평가한다. 김형목은 최용신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응집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상적인 농촌 건설을 위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한 점, 남에 대한 배려나 이해로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 점, 남녀가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남녀평등권을 실현한 점 등을 최용신 농촌계몽 활동의 특징으로 정리했다.

최용신은 샘골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과 겸양으로 묵묵히 해내고 마침내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든 샘골강습소는 단순한 ‘학습장’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공간이자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민들 각자가 자신감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일깨워 준 마음의 상징물이었다.

최용신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문학 연구자 차혜영은 최용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최용신의 현재적 의미는 농촌계몽활동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있다”고 주장했다.

차혜영은 노천명의 샘골의 천사 최용신 양의 반생, 류달영의 최용신 소전, 심훈의 상록수 글에 나타난 최용신과 채영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섬기고 돌보는 카리스마 있는 여성리더, 소통하고 공유하는 최용신의 리더십’을 발견한다.

민족주의 집안의 넷째 딸

최용신은 1909년 8월 12일 원산과 가까운 함경남도 덕원군 현면 두남리에서 최창희의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위로 맏언니 용손, 오빠 시풍과 시항, 밑으로 여동생 용경이 있었다. 그의 가문은 원래 경주에서 대대로 살다가 12대조 때에 정변으로 원산 접섬에 귀양 온 것을 계기로 원산에서 살게 됐다.

1880년 개항한 원산에는 1883년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산수, 기기, 농업, 양잠, 병서 등을 가르쳤다. 원산학사는 덕원·원산 주민들과 원산상회소, 원산감리 정현석 등의 정부 관료, 원산감리사 소속 외국 군인 등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한국 최초의 민간학교이자 근대적인 교육기관이었다.

최용신의 조부는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운 지역 인사였고, 부친은 신간회 덕원(원산)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용신은 일찍부터 신학문과 민족주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어릴적 천연두를 앓아 얼굴에 심한 곰보 자국이 있었지만 성격이 활달했고, 옳다고 생각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대로 하고 마는 고집 있는 아이였다. 고향 두남리는 최용신이 경험한 식민지 조선의 농촌이었다.

신여성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1928년 20살이 되던 해 최용신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다. 그때는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신식교육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지난 무렵이다. 그러기에 여성의 활동이나 사회진출은 자연스런 사회변화의

하나였다. 1930년까지도 신식교육을 하는 고등보통학교는 전국적으로 남녀 모두 42개교에 불과했고, 취학률도 0.09%정도였다.

최용신은 졸업하던 해 4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교문에서 농촌으로’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래 이 사회의 조직은 남녀 양성으로 된 것이다. 재래로 우리 조선 여성이 반만년 동안 암흑 중에 묻혀 사회의 대세는 고사하고 자기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그럼으로 남녀 양성을 표준으로 한 이 사회에서 남성 편중의 활동과 노력뿐만으로는 원만한 발달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최용신은 신여성이었다. 당시 신여성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신식교육을 받은 여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1900년대 문명개화론을 통해 집안에 머물던 여성들이 ‘학교’라는 공적 공간으로 나와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받은 여성’이 나오게 되었다.

최용신도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찾는 곳이 사회라고 보았다. 중등교육과 신교육을 받은 신인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와 부족을 채우는 신여성이 되는 것, 그것이 졸업하는 최용신의 포부였다.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었다. 여성교육의 목적은 곧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고, 이것이 민족의 중흥을 가져온다는 논리였다. ‘현모양처’라는 가족 내의 역할을 통해 여성은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용신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남녀가 평등하게 활동하고 노력할 때 사회가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난한 농촌, 무지의 암흑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타작이 끝나면 장리로 갚기로 하고 빌린 장릿쌀과 지주에게 주는 소작료격인 도지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화려한 도시 생활을 찾아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었다. 1910년대에 거의 변화가 없던 경성부의 인구가 192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최용신은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물었다.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그리고 ‘교문에서 농촌으로’ 답한다.

“참으로 현대 교육 받은 여성으로서 북데기 쌓인 농촌을 위하여 몸을 헌신하는 이가 드문 것은 사실인 동시에 유감이다. 문화의 눈이 어두운 구여성만 모인 농촌이 암흑에서 진보되지 못한다 하면 이 사회는 언제든지 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농촌 여성의 향상은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들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1923년에 시작된 YMCA의 농촌운동, 1929년 조선일보가 주도한 ‘문자보급운동’, 1931년부터 시작된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 등

1920~30년대 사회 각계에서 농촌계몽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기저에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농촌계몽운동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운동인 셈이다.

최용신은 1929년 검사위원 겸 협성여자신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대표로 참석하면서 조선 YWCA연합회와 인연을 맺는다. 1930년 여름방학에는 협성여자신학교의 농촌지도사업과 교수인 황애덕의 지도로 김노득과 함께 황해도 수안군 원곡면 용현리에서 농촌교육사업을 직접 경험한다. 그리고 1931년 10월 조선 YWCA연합회가 파견한 농촌지도사의 자격으로 수원군 반월면 현 안산의 샘골로 가게 된다.

문화촌 샘골

최용신이 가게 된 곳은 수원군 반월면 사리의 ‘천곡학원’이었다. 천곡학원은 1930년 상동교회에서 부임한 장명덕 전도사가 천곡교회에서 시작한 강습소로,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경과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당시 천곡은 조그만 동산 아래 20호가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지만 1907년 천곡교회의 전신인 ‘사리교회’가 세워진 후 한두 가정을 빼놓고 모두 기독교인일 정도로 교화된 곳이었다.

이후 ‘천곡리’라고 불린 사리의 원래 이름은 ‘샘골’이었다. 맑은 샘이 많아 지어진 이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행정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천곡’이 되었다. 해방 이후 천곡교회, 천곡학원이라 칭하던 이름을 사람들은 샘골교회, 샘골강습소라 불렀다.

1931년 10월 10일 최용신은 황애덕, 김활란과 함께 샘골교회 샘골강습소를 찾아간다. 그리고 샘골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최용신은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초기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르치겠다며 도시에서 온 신여성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금세 인원이 많아져 예배당 안에 한 번에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등 세 반으로 나누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르쳤다. 학생의 범위도 날로 넓어졌다. 주간에는 어린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야간에는 부인네들, 총각들, 할머니들이 찾아왔다.

신문학을 배울 수 있는 곳

당시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보통학교나 야학, 강습소였다. 서당에서는 조선시대의 전통대로 한학과 경전을 가르치고 있었던 반면, 보통학교에서는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수,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창가, 체조, 가사 등을 가르쳤다.

농민야학에서는 국어, 산술, 작문, 습자, 한문, 역사, 일본어, 농업 등을 가르쳤다. 최용신이 샘골강습소에서 가르친 과목은 한글, 산수, 초보 채봉, 수예, 가사, 노래공부, 성서공부 등이었다.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도 엄하고 무서운 서당 선생님과는 달랐다. 배우는 내용도, 가르치는 방법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였고, 신선한 경험이었다.

샘골에 온 다음 해인 1932년 최용신은 강습소를 새로 짓기로 한다. 아이를 가르치던 곳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샘골강습소를 시작할 즈음 40여

명이던 아이들이 100여 명을 넘어섰다. 강습소를 감독하던 주재소에서 정원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안전상의 이유였다. 정원을 초과하는 아이들을 울며 돌려보낸 후 최용신은 강습소를 새로 짓기로 마음먹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용신은 한글과 산수 등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만이 아니었다. 목사, 의사, 서기, 재판장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최용신의 말과 행동은 샘골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갔다.

1933년 강습소를 완공하고 낙성식을 했다. 늦가을에 시작된 건축이 3개월이 지난 한겨울에 끝이 난 것이다. 강습소를 새로 짓고 난 후 분위기는 더욱 활기찼다.

최용신은 학창시절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다. 일종의 영양 결핍 증세인 각기병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용신에게 추위와 배고픔, 질병은 문제가 아니었다. 잘 먹으면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 샘골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습소가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갔지만 최용신은 만족할 수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1934년 3월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에 들어가기 위해 샘골을 떠났다가 6개월만인 9월에 귀국한다. 각기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5년 정초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장중첩증으로 두번의 수술 끝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1월 23일 숨을 거둔다.

-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
- 김 군과 약혼한 후 십년 되는 금년 사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였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하나?
- 샘골 여러 형제를 두고 어찌 가나?
-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 어머님을 두고 가매 몹시 죄송하다.
- 내가 위독하다고 각처에 전보하지 마라.
- 유골을 천곡강습소 부근에 묻어주오.

장례는 샘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장으로 치러져 강습소 학생 120여 명을 비롯해 5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최용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달려온 김학준의 외투에 덮인 채 일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학교가 잘 보이고 종소리가 들리는 강습소 부근에 유골을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나?

“최용신 양은 금년 26세로 우리 농촌 개발과 무산아동의 문맹을 퇴치코자 1931년 10월에 수원군 반월면 사리에다가 천곡학술강습소를 설립하고 농촌 부녀들의 문맹퇴치와 무산아동 교육에 많은 파란을 겪으며 노력 중이던바, 불행하게도 우연히 장중첩증에 걸리어 신음하다가 지난 9일에 도립수원의원에 입원하여 개복 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지난 23일 오전 0시 23분에 쓸쓸한 병실에서 최후로 유언 몇 마디를 남겨 놓고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다.”

-수원군하의 선각자 무산아동의 자모 최용신 양 별세, 조선중앙일보, 1935.1.27

장례식이 이루어지던 1월 27일, 최용신의 생애가 짙막한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 기사는 최용신을 ‘무산아동의 자모’로 소개하고 있다. ‘무산아동’은 무산자 아동, 즉 프롤레타리아 아동을 의미한다.

부고 기사가 나가고 약 한 달 후 최용신에 대한 특집기사가 3회에 걸쳐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다. 여기에서 최용신은 ‘브나로드의 선구자’로 소개되었다. 브나로드운동은 문자 보급 운동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차원의 문화운동이었다. 1931년부터 활동했던 최용신은 이러한 브나로드운동의 선구자였다. “인테리 여성들이 여기에 한번 눈을 던지라!”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사는 최용신의 뒤를 따를 후진들을 생각하며 그에 대한 기사를 썼다.

1935년 4월 1일 동아일보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500원 상금의 장편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약 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심훈의 작품 상륙수가 최종 선정되어 8월에 발표되었다.

심훈의 상륙수에는 청석골에 학당을 만든 채영신과 한곡리에 마을회관을 지은 박동혁이 등장한다. 상륙수는 박동혁이 회관 낙성식 날 청년들과 함께 읍겨다 심은 것이었다.

신문에 연재된 후 1936년 발행된 소설 상륙수를 통해 채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최용신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속

여주인공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남녀의 사랑이야기에 최용신의 행적과 정신이 가려져 있었다.

1939년 성서조선의 주필 김교신(1901~1945)은 최용신의 생애를 전기로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 시 후원금 문제로 최용신을 만난 적이 있던 류달영(1911~2004)에게 집필을 부탁한다.

최용신 소전의 집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류달영은 신문기사 스크랩과 잡지 조각, 최용신의 노트 등을 바탕으로 수원의 샘골과 원산의 루씨여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일화를 수집했다. 그해 가을 최용신 소전 초판본이 발간된 후 몇달 만에 수 천 부가 판매될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심훈은 소설 상록수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던 중 총독부 검열 당국의 방해로 영화제작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36년 9월 요절하고 만다. 그 뒤 25년이 지난 1961년 9월 신상옥 감독이 만든 영화 상록수가 나온다. 심훈의 꿈을 후대가 이룬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았나?

최용신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항상 감싸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단호하게 꾸짖고는 “압박 받은 민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해서 되겠냐?”며 함께 울었다. 이들이 민족의 압박을 풀어줄 희망의 끈이기 때문이었다.

류달영은 마을 사람들의 회고담을 빌어 “기름 같은 부드러움 속에 칼처럼

예리한 힘이 있으며, 상냥하고도 자비롭지만 반면에 엄격하여 범하기 어려운 성격이었다”고 최용신을 기록했다.

샘골사람들은 최용신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설과 영화속의 이야기가 청춘 남녀의 사랑으로 전개된 것이 불만이었고 불편했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 최용신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대상은 한 남자가 아니라 민족이었다. 최용신이 사랑한 민족은 농촌이었고, 그 농촌이 바로 샘골이었다.

최용신은 샘골 사람들을 사랑했다. 샘골이라는 농촌은 최용신에게 곧 민족이었다. 최용신은 민족을, 농촌을, 샘골을 사랑했다. 그리고 샘골사람들은 그 사랑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다.

최용신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최용신의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이었다.

1995년 최용신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소설 속 여주인공에서 역사 속 독립운동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최용신의 생애³⁸⁾ /

최용신의 출생

1880년 원산 개항

1909년 8월 12일 최용신 출생

38) 전시실 내용 표로 재정리 요함

더벅머리 아이들이 강습소 바다에 둘러앉아 재잘거릴 때면 선생님께서는 이따금 푸른 바다 위에 집채만 한 함선들이 떠다니고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활개를 치던 원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나고 자란 두남리에서 10리 길이면 별천지 같던 원산읍이니 “경성사람들이 촌스럽더라.”는 재미난 이야기에 우리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습니다.

한일 강제병합

1910년 한일 강제병합 1910.

선생님께서 태어난 이듬해 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아버지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 모진 고초를 겪기도 하셨다며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선생님의 나라 사랑은 아버님을 쫓 빼 닮았나 봅니다.

교문에서 농촌으로 1928-1930

1928년 조선일보에 ‘교문에서 농촌으로’ 투고

1929년 황해도 수안군 천곡면 용현리 1차 농촌실습

1930년 강원도 통천군 옥마동 2차 농촌실습

민족을 위해 ‘손을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고 굳게 다짐한 선생님은 협성여자신학교에 진학하였고, 황애덕 교수의 지도로 두 차례 농촌실습을 다녀온 뒤 농촌계몽활동의 확신과 보람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샘골에 오신날 1931-1933

1931년 10월 YWCA 농촌지도사로 샘골파견

1932년 5월 천곡학술강습회 설립 인가

1933년 1월 샘골강습소 낙성식

검정치마, 하얀 저고리, 맑고 지혜로운 눈동자를 가진 선생님이 샘골에 처음 오신 날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강습소가 아이들로 가득 차 새로 온 아이들을 돌려보내던 날 눈물짓던 선생님 모습, 병아리를 치고 밭일까지 도맡아하시며 땀 흘리던 모습.

겨우내 주먹들을 날라 우리 손으로 지은 강습소가 완성되던 날 환하게 미소짓던 모습, 모두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샘골 귀환

1934년 일본 고베여자신학교 유학

일본에서 선생님이 돌아오시던 날, 철없던 우리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선생님을 꼭 끌어안고 매달렸지요.

농민의 하소연 1934년 10월

1934년 9월 YWCA 샘골강습소 지원 중단

1934년 10월 여론에 ‘농민의 하소연’ 발표

우리말 우리글을 마음놓고 배울 수 없던 시절에 선생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어렵게 강습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지원 중단 통보는 선생님에게 청천벽력 같았나 봅니다.

“배움에 굶주린 농촌 아이들은 장차 어디로 가며, 가르쳐 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 하소연 하오리까.”라시며 강습소를 살리기 위해 전전공공하시던 선생님의 병색은 날로 짙어만 갔습니다.

순직 사회장 거행

1935년 1월 23일 순직, 사회장 거행 1934. 1. 23.

“샘골 여러 형제들을 두고 어찌가나. 애처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이십육년, 짧기만 했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샘골강습소와 학생들 걱정이 앞섰던 우리 선생님은 이제 ‘어리석은 선구자’로 기억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나혜석

이동화(인천일보 문화국 부국장)

생애와 사상

정월(晶月)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은 수원이 낳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다. 그는 비범한 문인이요, 시대를 앞서 여성해방론을 주창하고 성평등을 추구한 선각자였다.

그는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보수적인 사회의 벽을 온 몸으로 부딪혔던 진취적인 신여성이었다. 남녀차별이 극심하던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트려냈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여성담론을 본격 제기한 근대기의 선구자였다.

‘화가 나혜석’은 단지 화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신여성이 주변의 낯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 가는 내용의 소설 〈경희〉를 쓴 근대 최초의 여성 작가였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여성이 각성하여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면서 여성들이 살림살이를 개량하는 구체적 방법까지 담은 글들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나혜석은 존경과 폄하를 동시에 받는 특이한 존재다. 사생활이 관건이었다. 한때 탕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멜로 드라마의 단골 주인공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신여성, 선구자, 탕녀, 비승비속의 은둔자 등으로 불리는 ‘자유인 나혜석’은 여러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그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나려는 자유인이었다.

그는 현모양처라는 시대 이데올로기 교육은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속셈이 숨어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대놓고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세상 법칙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봉건적 인습에는 소신발언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맞섰지만 이혼과 정신장애 등 잇단 비극까지는 넘어설 수 없었다.

나혜석은 개화기 시대상황과 부유한 집안배경에 힘입어 일본 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수학했다. 일본 유학 시기는 단순히 서양미술의 습득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의식과 시선을 심어준 계기였다. 유학 때부터 조선의 여권 현실을 대담하게 거론하며 그 개선의 필요를 역설했다.

귀국한 후에는 항일 민족운동인 3·1운동에 적극 나섰다. 옥고를 치를 정도로 투철한 민족의식의 면모도 보여 주었다. 그 뒤로 그녀는 신문과 잡지에 소설과 시, 산문 등 문학작품을 실어 새로운 사상과 사회계몽 의지를 나타내면서 사회적 스타로 부상했다.

서울에서 첫 유화 개인전을 열어 격찬을 받았다. 남편과 함께 떠난 세계일주 여행 때 파리에선 벌어진 스캔들 문제로 이혼하고, 무일푼에다가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기고 유랑자로 떠돌다 세상을 떠났다. 질곡의 시대에 그릇된 인습과 사회규범에 맞선 선각자였다.

고향 수원에 그의 이름을 딴 ‘나혜석 거리’가 생기고,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 등 그를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혜석학회도 출범했고, 학술지 나혜석연구가 발간되어 학술적으로도 조명하고 있다.

나혜석의 삶은 사건의 연속인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일본유학, 애인의 요절, 독립운동과 옥고, 변호사와의 연애와 결혼, 죽은 애인의 무덤으로 신혼여행가기, 서울에서 최초의 유화 개인전 개최, 만주생활, 부부 동행 세계일주 여행, 파리에서의 염문과 이혼, 이혼고백서, 위자료 소송, 행려병자, 쓸쓸한 최후, 비승비속(非僧非俗)의 무애행(無碍行)이 그것이다.

윤범모는 화가 나혜석에서 “이혼 이후 사회활동을 접고 은둔자 생활을 했지만, 그는 세인의 생각처럼 비참한 말년을 보낸 것은 아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영위했다”면서 “끝까지 작가로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갈고 닦았다”고 했다.

수원이 낳은 조선의 딸

나혜석은 1896년 수원군 신평리(현재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에서 2남 3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호는 정월(鼎月)이다. 부친은 나주나씨 나기정(羅基貞)이며, 모친은 최시의(崔是議)다. 증조부가 조선시대에 호조참판을 지냈고, 아버지 나기정은 사법관을 거쳐 용인과 시흥군수를 역임했다. 비교적 부유하고 개방적인 집안이어서 남성도 유학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그것도 서양화 전공이라는 파격적인 동경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수원 삼일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진명여학교에 진학했다. 학교 성적은 늘 우수했고,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나타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일본 유학을 떠난다. 일본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 선편(選科) 보통과(普通科)에서 서양화(유화)를 전공했다. 유학 당시 후견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오빠 나경석(1890~1959)이었다.

나혜석의 사상과 의식은 오빠 나경석과 애인 최승구(1892~1916)의 영향도 있었다. 장차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 최승구는 경기도 시흥 출신으로 보성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게이오대학 예과를 거쳐 사학과를 다녔으나 폐결핵으로 1916년 요절했다. 나혜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였으며, 한동안 비탄에 빠졌다.

그는 1918년 3월 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의 정신여자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교단에 선다.

이듬해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서울의 여학교 교사들과 이화학당 지하실에서 비밀회합을 가지며 거족적 독립운동에 따른 참가계획을 추진하다 일제 군정에게 체포되어 5개월간 옥중 곤욕을 당했다.

그는 24세 되던 해에 일본 유학시절부터 열렬히 접근해 왔던 김우영(1896~1958)과 결혼했다. 결혼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애인 최승구가 죽은 이후, 변호사 김우영의 강력한 구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예술가, 특히 화가로서 안정적 삶을 영위하겠다는 의미였다.

그가 활동했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이기도 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딸로 태어나 해방된 대한민국의 쓸쓸한 행려병자로 삶을 마감했다. 그의 생애에서는 근대사의 질곡과 개인적 삶의 기구함을 엿볼 수 있다.

이구열은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에서 “그녀의 예술가적

낭만과 자만은 유럽 여행지에서 뜻밖에 만난 당시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부도덕한 순간의 악연으로 인해 참담한 파멸을 자초하게 되고, 끝내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말았다”면서 “그렇다고 나혜석의 극적인 생애는 우리 근대 여성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강렬한 불꽃이었다”고 했다.

한동민은 ‘나혜석: 불꽃같은 삶’이라는 글에서 “‘나혜석’이라는 이름에는 가부장적 완고함에 저항하다 상처입은 한 개인의 자유를 향한 고단한 투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한동안 부정확한 여자의 대명사로 널리 회자되었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예술가적 삶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이렇듯 나혜석의 평가가 극단적이듯 그의 이름에서는 여전히 뭘지 모를 신비함이 묻어난다”고 했다.

문필가로서의 업적

나혜석의 문학작품은 그의 생애 시기별로 주제와 형식에서 변화를 보인다. 동경 유학시절의 글들은 도전적인 문체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한 최초의 여성 소설가다. 이외에도 시와 희곡, 산문을 신문, 잡지에 기고하며 그의 작가의식을 내보였다. 그 내용은 여성에게도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의 세계관 특히 여성해방론은 그의 문학작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14년 동경 유학생들의 잡지 ‘학지광(學之光)’ 3호에 최초의 사회적 발언으로 근대적 여권을 주장하는 이상적 부인을 기고한다. 이어 이 잡지

12호에 역시 근대적 여권론인 ‘잡감雜感’을 ‘정월’이라는 아호로, 13호에도 연속적 여권론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부르짖는 내용의 ‘잡감’을 C.W(정월의 이니셜)로 실었다.

도쿄 유학 2년차, 18세 ‘애송이 학생’ 나혜석은 이상적 부인에서 여성해방론을 당당히 펼쳤다. 현모양처주의가 여성의 노예만들기라는 획기적인 주장을 담았다.

나혜석은 이상적 부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지식 지예(枝藝)와 예리한 판단력, 현대를 이해하는 개성적인 자각, 지성과 품성과 실력의 겸비를 강조했다. 연애지상주의와 평등주의 그러면서 원만한 가정, 이것이 나혜석의 이상적 여성상의 핵심요소였다.

1917년 여성 유학생들의 친목모임을 결성하고 동인지 ‘여자계(女子界)’를 발간, 창간호에 단편소설 부부를, 2호에 〈경희〉를 발표하는 등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근대적 여권론을 강조하는 칼럼과 단편소설을 기고함으로써 한국문학사의 또 다른 금자탑을 쌓았다.

1935~1937년 〈삼천리〉에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기고한다. ‘신생활에 들면서’, ‘아껴 무엇하리, 청춘을’, ‘반도 여성에게’, ‘이성간의 우정론’, ‘나의 여교원 시대’ 등 그즈음 나혜석의 정신적 갈등과 참을 수 없는 고독 그리고 갈수록 약해지는 마음을 독백하는 글들을 계속 발표한다. 지난날의 또 다른 구미 여행담이자 간접적 여권론인 ‘부인참정권운동자회견기’와 ‘윤돈(潤頓) 구세군 탁아소 심방기’, ‘불란서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와 소설 〈현숙〉을 기고한다.

나혜석 생애의 비극적 종장을 알려주는 좌절과 실의의 고백인 ‘애정에

우노라-화필을 안고 심산유곡 3년에 심회를 기쁘게 한다’, ‘어미와 딸’, ‘영靈이나 육肉이나, 영육이나’가 1937년 〈삼천리〉에 실린다. 과거의 문단 선배이며 나혜석보다 먼저 자기 파멸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승려가 되어 수덕사에 있던 김일엽을 찾아가던 시기이기도 한다. 그는 자기 구원으로 부처와 산사를 찾아 전전하고 또 반겨주는 이 없는 길을 방황하던 때에도 많은 스케치를 남겼다. 그러나 이때의 그림엔 이미 지난날의 재기와 예술 역량은 빛을 잃고, 그녀는 겨우 화가임을 지탱할 뿐이었다.

나혜석은 그의 문학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자각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의 글이 사회구조적 인식이 결여되었으며 엘리트적인 민중관을 가지고 있었고 가부장제에 이미 젖어든 남녀평등을 주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가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한 시대상황에서 세인의 질타를 감수해 가며 직접적인 명확한 표현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자각을 촉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미전과 작품세계

현재 나혜석의 작품이라고 전칭되는 유존작품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출처가 확실한 조선미전의 작품은 도판자료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미전의 경우 나혜석은 제1회(1922)부터 참가하기 시작해 제7, 8회를 제외한 제11회(1932)까지 모두 18점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들 작품은 나혜석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화풍의 특징은 견고한 구성, 치밀한 묘사력, 형태의 완결미, 아우트라인의 확실한 처리, 영성한 부분과

불필요한 소재의 과감한 제거, 자신있는 붓질, 중첩된 질감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미술작품은 초창기에는 <이른아침>(早朝)과 같은 목판화로 민중의 삶을 표현했다. 해외 여행을 떠날 때를 빼고는 1922년부터 1932년까지 매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과 특선을 한 재주 있는 화가였다. 조선미전 출품작의 특징은 인물보다 풍경화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풍경화는 국내의 시골 농촌에서부터 서양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

그의 작품 경향은 파리에 가기 이전에는 주로 사실적인 수법으로 인물과 풍경을 그렸으며, 그 뒤로는 야수파와 표현파 등의 영향을 받아들인 한결 참신한 수법을 보였다.

그는 300여점이 넘는 작품을 그린 전업작가였지만 안타깝게 현재 전해지는 유화는 30~40점에 불과하다. 이들 그림의 수준이나 화풍과 품격 등이 들쭉날쭉하여 진위문제를 의심받을 정도다.

화가 나혜석은 1921년 <경성일보> 내청각 전시장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치른 이 전시에 70점의 작품을 진열한다. 그의 유화 개인전은 서울에서 한국인 화가로는 최초의 일이어서 신문들이 큰 사건으로 대서특필한다. 5천명의 관객이 운집하는 장안의 화제였다. 20여 점이 고가에 팔렸다. <신춘>은 경쟁 속에서 당시 큰돈인 350원에 거래됐다. 이 개인전은 서울에서 열린 최초의 유화 개인전이다. 국내에서는 1916년 평양에서 개최된 김관호 유화 개인전에 이은 두 번째의 유화 개인전이다. 이어 제1회 서화협회전에 유화를 출품했는데, 이 때 유화 출품자는 나혜석 외에도 도쿄 미술학교 출신인 고희동뿐이었다.

나혜석이 파리 체류 시기에 습득한 야수파와 입체파의 경향을 접목한

그림은 아직 완전히 체득하지 않은 화풍으로 완성도 낮은 이미지를 낳았다. 이는 새로운 화풍에 익숙하지 않은 화단에서 호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동경유학과 파리체류 시기의 화풍을 자신의 정서와 접목시켜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했다. 이는 귀국 후 복잡한 개인사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발전을 보지 못하고 다시 과거 인상주의적인 화풍으로 퇴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1929년 수원 불교 포교당에서 구미 여행 중에 그린 유화와 스케치들을 전시한 귀국 개인전을 열었다. 특히 1935년 생활비를 얻기 위해 소품 200여점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나혜석과 그에 관한 사건을 아는 사람들의 냉소와 무관심으로 실패했다. 결국 그는 크게 좌절했다. 현재 나혜석의 유화작품으로 알려진 것은 30~40점 정도다. 이 중에 졸작이 적지 않다. 이들 작품들은 그 진위 여부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많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윤범모는 그동안 나혜석 작품이라고 알려진 작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작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불꽃 같은 삶의 시대정신

나혜석은 서양미술의 유입 초창기 한국화단에 첫발을 내딛었다.

속박과 억압의 통제를 받은 전근대 여성,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갖는 것을 용인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유화가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소망했으며, 그림으로 자신의 언어를 갖고자 했다. 남다른 선구자적 의식은 그의 생애와 문학작품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리적이고

명쾌한 문장으로 여권신장과 여성의식계몽 그리고 사회제도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나혜석은 생애와 문학작품에서는 선각자적 면모를 보여줬지만, 회화에서는 그 뜻을 전개하지 못하고 유타주의적인 화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미술작품으로 직결되지 않은 것은 유타 수용 초기단계라는 시대적 한계와 그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과 사회적 편견, 관습 등의 제약과 함께 복합적으로 해석해 평가되어야 할 문제다.

나혜석은 사회적 자각이 뚜렷한 여성예술가로서 사회활동과 문학활동,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의식을 여과 없이 내보였다. 개인사적으로는 가혹한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에 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근대기 미술사와 여성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세계일주 부부동반 여행

1923년 일본 외무성 외교관이 되어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부임한 김우영을 따라서 만주 생활을 시작한다. 안동현에서 여자 야학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의열단의 무기 반입을 도와주는 등 나혜석의 민족적인 행보는 지속됐다.

어느덧 3남매의 어머니가 된 나혜석은 김우영과 함께 시베리아 철도로 모스크바를 경유, 세계일주 여행을 떠난다. 부부동반 세계여행은 지금도 그리 쉽지 않은데, 식민지 조선에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1927년 6월 19일 부산진역에서 봉천행 기차를 타면서 시작된 구미 여행은 1929년 3월

10일 도쿄를 출발하여 다시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나혜석은 꿈에 그리던 미술의 도시 파리에서 8개월간 머물며 화가로서 다각적인 견문을 넓히는 동시에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던 새로운 미술 경향을 직접 접한다. 그는 또 야수와 계열의 진보적인 화가가 지도하던 미술 연구소에 다니며 자신의 회화 예술에 진취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파리에 거처를 두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을 여행하며 미술관, 박물관, 관광시설, 기타 유럽의 풍물과 여러 분야의 사회구조를 관람, 견학하고 여행스케치도 했다.

연초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 각지를 여행하고 태평양 횡단 여객선으로 귀국길에 올라 부산에 도착, 한동안 시가(煙家)가 있는 동래로 가서 2년 만에 다시 만난 자녀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세계일주여행은 절정기의 예술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이혼과 소송사건 그리고 추락, 만인으로부터 추앙받던 그는 이제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파리 여행 중 3·1운동을 이끌었던 천도교 지도자 최린(1878~?)과의 만남은 다재다능한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았기 때문이다. 파리의 스캔들로 나혜석은 남편 김우영에게 이혼을 당하고, 최린은 일제에 의해 적극적 친일파로 활용되었다.

그는 김우영과 이혼 이후 화가로서 그리고 사회 비판력과 지성을 갖춘 한 여성으로서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남성 위주의 사회 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자유의 몸으로 독자적인 삶의 길로 들어간다.

조선 남성을 고발한 이혼고백서와 정조유린소송사건

나혜석의 남성과의 대결의식 혹은 자존의식은 이혼고백서 사건에서 극치를 이룬다. 1934년 <삼천리> 잡지에 이혼한 김우영 앞으로 띄운 대담한 공개서를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다. 이 고백문은 여성운동사에 빛나는 전무후무한 글이다. 조선사회와 남성에 대한 고발이었고, 그의 분노와 저항심리의 폭발이었다. 이혼 후의 심회를 허심탄회하게 토로한 글이다.

즉 약혼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10년 간의 부부생활, 화가생활, 해외여행, 시집살이, 최린과의 관계, 이혼과정, 이혼 후의 생활, 모성애, 금욕생활, 조선사회의 인심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부부관계 및 정조에 대한 남녀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여권신장을 주장한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의 견고함은 사회통념상 이혼을 죄악으로 생각하던 시절, 그것도 외간 남자와 불륜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는 털어놓았다. 이혼고백서는 자신을 옹호하면서 당대의 정조관념과 남성들의 위선을 통렬히 공박한 글이다.

신문·잡지들은 그의 저항과 고독한 생활 변모와 행선지를 추적하여 보도했다. 작심한 나혜석은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특종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중적인 성규범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했던 나혜석은 아래와 같이 그 부당한 핵심을 지적한다.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서양에나

동경사람쯤 하더라도 내가 정조관념이 없으면 남의 정조관념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남에게 정조를 유린하는 이상 그 정조를 고수하도록 애호해주는 것도 보통 인정이 아닌가. 종종 방중한 여성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쾌락을 맛보면서 간접으로 말살시키고 저작시키는 일이 불소하외다. 이 어이한 미개명의 부도덕이나.” (이혼고백서, 삼천리, 1934:8~9)

또, 천도교 도령 최린(崔麟 1878~1958)을 상대로 처권(妻權)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다. 손해배상 1만2천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압에 의해 수십 회 정조를 유린당했다. 이 일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그때 최린은 이광수를 통해 나혜석의 장래를 인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단 한푼의 생활비의 보조조차 없어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다. 하여 금년 4월 프랑스 유학을 작정하고 여비 1천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혼당하고, 사회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현재는 극도의 신경쇠약이 들었다. 김우영에 대한 처권을 침해하여 나혜석으로 하여금 일생에 막대한 손해 받게 했다. 이는 위자료 1만2천원에 상당하므로 여기에 청구한다.’

이 같은 정조유린 청구소송 사건이 동아일보 1934년 9월 20일자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이혼고백서와 최린에 대한 고소사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받은 입장에서 엘리트 여성의 관념적 여성해방론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의식에 도전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컸다.

이혼고백서를 통해 남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건 이후 나혜석의 삶은 사회는 물론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전람회 반응은 차가웠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나혜석의 심신은 서서히 병들어 갔다. 절집과 양로원을 떠돌던 그는 1948년 12월 10일 서울 원효로의 시립 자재원에서 행려병자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불꽃과 같았던 삶, 나혜석의 생애는 파격과 대자유를 향한 행진이었지만, 그의 뒷모습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예술 생활의 헌신적 후원자였던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에게 맡긴 어린 아들과 딸에게 다음과 같은 눈물겨운 유언을 남겼다.

“사남매 아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 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더니라. 뒷날 파리에 오거든 에미의 무덤을 찾아 꽃 한송이 꽂아달라.” 그리고 마침내 불꽃 꺼지는 그녀의 마지막 몸부림을 슬프도록 표현한 한 편의 시를 마치 자작 묘비명처럼 남겼다.

필필 날던 저 제비
참혹한 사람의 손에
두 죽지, 두 날개
모두 상하였네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허덕이다

끝끝내 못이기고
그만 축 늘어졌네
그러나 모른다
저 제비에게는
아직 따뜻한 기운 있고
숨쉬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중천에 떠오를
활력과 용기와
인내와 노력이
다시 있을지
뉘 능히 알 리가 있으랴

3부

전통시대 경기도의 여성인물

도미부인(都彌夫人)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도미부인은 미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절관념이 투철했던 백제의 여성이다. 전통시대 여성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문데, 그나마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미부인 역시 이름이 없다. 도미는 남편의 이름이고, 그의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도미부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도미부인의 이름을 ‘아랑’이라고 하는 것은 1937년에 쓰여진 박종화의 단편소설 『아랑의 정조』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미부인의 이름을 ‘아랑’이라고 한 것은 박종화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도미부인은 정절관념이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삼국사기』 「열전」에 처음 등장한 이래 조선시대에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등의 역사서에 큰 변화 없이 계승되었고, 조선 세종 때의 『삼강행실도』, 정조 때의 『오륜행실도』 및 유형원의 『동국여지』, 홍경모의 『중정남한지』 등에 기록되어 열녀의 표상이 되었다. 열녀란 의(義)를 중하게 여기고 삶을 가볍게 여기는 여인을 말한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하면서 도미부인을 「열전」에 넣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미부인의 기록은 「열전」에 실려 있으면서도 논란이 생략되어 있어 「열전」이라기보다는 설화의 형식으로 기술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도미부인은 역사학 보다는 문학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도미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국사기』 「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①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이다. 비록 호적에 편입(編戶)된 평민(平民)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예뻐으며 또한 절개 있는 행실이 있어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 ② 개루왕(蓋婁王)이 이를 듣고 도미를 불러 더불어 말하였다. [왕이] “무릇 부인의 덕은 비록 지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함을 우선으로 하지만 만약 그윽하고 어두우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한 말로써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미는] “사람의 마음이란 헤아릴 수 없으나 저의 아내와 같은 사람은 비록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③ 왕이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일을 핑계로 도미를 머물게 하고는 가까운 신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왕의 옷을 입고, 마부를 데리고 밤에 그 집에 가도록 시키고, 사람을 시켜 먼저 왕께서 오실 것임을 알리도록 하였다. [왕을 가장한 신하가]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네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도미와 내기하여 그를 이겼으니 내일 너를 들어 궁인(宮人)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다음부터 네 몸은 내 것이다.”
- ④ 드디어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자 부인이 말하였다. “국왕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이니 제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에 들어가소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러나서는 한 계 집종을 치장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 ⑤ 왕이 후에 속았음을 알고 크게 노하였다. 도미를 무고하여 처벌하였는데, 두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 작은 배에 태워 강에 띄웠다.

- ⑥ 드디어 그의 아내를 끌어다가 강제로 육보이려 하니,
- ⑦ 부인이 말하였다. “지금 남편을 이미 잃었으니 홀로 남은 이 한 몸을 스스로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왕의 시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월경 중이라서 온몸이 더러우니 다른 날을 기다려 향기롭게 목욕한 후에 오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허락하였다.
- ⑧ 부인이 곧 도망쳐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가 없었다.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홀연히 외로운 배가 물결을 따라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풀뿌리를 캐서 먹다 드디어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蒜山) 아래에 이르렀다.
- ⑨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과 음식을 주었다. 마침내 구차히 살다가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도미전은 ① 발단, ② 전개, ③-④ 위기, ⑤-⑦ 절정, ⑧-⑨ 결말이라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평민의 아내를 뺏으려 하는 포악한 개루왕에 맞서 끝까지 인간적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평민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주인공이 처한 절대 위기 상황에서 홀연히 배가 나타나는 신비한 내용은 흥미를 유발시키고도 남는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주로 평민의 아내를 뺏으려 한 지배 계층에 맞서 남편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 열녀 설화, 관탈민녀(관탈민녀)형 설화로 연구되었으며, 특히 「춘향전」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도미의 처는 끝까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만 결말은 비극적이다. 이것이 고난을 겪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 민담과 비교되는 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지녔던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불분명하고 허무맹랑한 설화적 이야기를 그냥 「열전」에 올린 것은 아니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설화적 요소가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에 가깝다고 여긴 것만 기록으로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발단에서 도미는 “비록 편호소민이나 자못 의리를 알았다.”고 하였다. 도미가 신분적으로 상층민이라면 의리를 아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도미의 사회적 신분은 편호소민이다. 의리를 잘 알지 못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예뻐으며 또한 절개 있는 행실이 있어 당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였다. 도미부인 역시 한미한 편호소민의 아내이기 때문에 절개 있는 행실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미의 사회경제적 신분, 즉 편호소민은 어떤 존재일까? 도미부부의 사회경제적 신분인 편호소민(編戶小民)은 일반적으로 ‘호적에 편입된 평민’ ‘일반 소경리민(小經理民)’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도미전에서 보듯이 도미부인이 계집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평민은 아니다. 그래서 도미부부는 소민(小民)에서 분화하여 호민(豪民)으로 발전하는 과도 계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 개루왕은 여인의 정절은 고정 불변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자, 도미는 저의 아내는 비록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아내를 굳게 믿고 부부의 신의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신념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위의 도미전에는 당시의 왕이 분명히 개루왕(蓋婁王, 128~166)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2세기 대의 개루왕이 아니라 5세기 대의 개로왕(蓋鹵王, 455~475)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도미전의 배경을 개로왕대로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이병도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 즉 2세기 개루왕 대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대방군이 끼여 있어 곧바로 갈 수 없다는 점, 백성을 편호한 점, 왕을 대왕으로 칭한 점,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삼국사기』에서는 개로왕을 ‘근개루’라고도 불렀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 외에도 도미전의 개루왕과 실제의 개루왕은 성품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즉 도미전에 등장하는 개루왕은 실로 포악하고 음흉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비해 실제 개루왕은 성품이 공손하고 품행이 방정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본기와 열전 사이에 왕의 성품을 묘사하는 데 차이가 날 수 있고, 통치자로서의 이성적인 왕과 사사로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한 한 남자로서의 감정적인 왕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미전의 개루왕도 기록대로 2세기 대의 개루왕일 수 있다고도 한다.

다음으로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나루터의 위치에 대해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의 송파, 광진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중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있던 도미나루(渡迷津)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자(漢字)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미나루는 쌀을 건넌던 나루라거나, 도미는 ‘두미’로도 쓰였고 두미는 두 물이 합류되는 ‘두무’(두물머리)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도미전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한다. 그런데 한자가 다른 경우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기록인데, 그런 의미에서 유형원이 편찬한 『동국여지』의 기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17세기는 백제로부터 시간적인 갭이 크기는 하지만, 도미전의 나루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가장 이른 자료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열녀란 의(義)를 중하게 여기고 삶을 가볍게 여기는 여인을 말한다고 하였다. 남편 사후에 개가할 수 있는데도 개가하지 않은 여인도 열녀이다. 개루왕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도미부인은 당연히 열녀이다. 뿐만 아니라 도미부인은 도미가 개루왕 앞에서 한 말처럼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인물이다. 도미부인의 결말은 비극적으로 비취진다. 그러나 도미부인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절과 사랑을 지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패배한 비극은 아니다. 도미부인은 자신이 간직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세속적 가치와 고통과 비애를 넘어선 숭고한 인물이다. 그래서 도미부인의 이야기는 근대 이후에 와서도 소설, 영화, 무용극, 오페라 등으로 공연되어 다양한 장르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염경애(廉瓊愛)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염경애(1102~1148)는 봉성(파주) 염씨로 할아버지 염한(廉漢)은 병부상서를 지냈고, 아버지 염덕방(廉德方)은 검교상서우복야 태부소경을 역임하였다. 외할아버지는 추밀원 우승선 급사중을 지낸 심후(沈候)이고, 어머니는 의령군대부인 심씨(沈氏)로 총명하고 부지런하며 검소한 사람으로 아내와 여자의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한다. 염경애의 형제는 순약, 행약, 충약, 신약과 여동생 정애가 있었다. 순약은 뒤에 순주 수령이 되었고, 행약은 일찍 죽었다. 충약은 진사시에 급제하고 뒤에 평주 수령을 지냈으며, 신약은 진사시에 급제하고 감찰어사를 거쳐 종2품 정당문학에까지 올랐다. 묘지명에 의하면, 염경애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러우며 정숙하였다. 또한 자못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을 뿐 아니라 말씨와 용모, 일شم씨와 행동도 남보다 뛰어났다.

염경애는 25세에 수주(水州, 수원)지방의 향리 자제인 최루백(?~1205)과 혼인하였다. 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 연령이 대개 15~18세인데 비하면 늦은 나이였지만, 최용의 처 김씨나 윤언영의 처 유씨도 24세에 혼인을 한 것을 보면 늦은 나이의 혼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귀족 여성의 혼인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혼인 대상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는 같은 계층끼리 혼인을 했으며 가문의 격도 따졌다.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10대에 혼인을 했겠지만 조건을 갖춘 상대를 찾지 못하면 20대를 넘기기도 하였다.

염경애의 남편인 최루백은 대대로 수원 지방의 향리를 지냈으며 시아버지 수원 최씨 최상저(崔尙耆)도 호장이었다. 최루백 집안이 비로소 중앙에 진출한 것은 그가 과거에 급제한 이후이다. 그러므로 혼인 당시 최루백의 가문은 그리 명망이 있거나 번성한 상황은 아니었다. 고려시대 향리는 토착 기반이 강한 세력이며 호장은 향리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개경 귀족들은 서로의 중첩된 혼인 관계로 기득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귀족이 지방의 향리 가문과 혼인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루백이 과거 급제자에 효성으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고려사』 효우전에 따르면, 수원의 향리였던 그의 아버지 최상저는 사냥을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이때 최루백의 나이 15세에 불과했는데,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잡아 배를 가른 뒤 호랑이 고기는 항아리에 담아 개울바닥에 묻고, 아버지의 뼈와 살점은 골라 모아 그릇에 넣어 홍법산 서쪽에 매장하였다. 최루백은 그 곁에 여묘를 세우고 3년간 묘소를 지켰다. 거상이 끝난 뒤 그는 묻었던 호랑이 고기를 꺼내서 다 먹었다. 그 뒤 과거시험 준비를 하여 급제했다. 최루백은 과거 급제자일 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중요시 하던 가치관인 효를 실천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지만 봉성

염씨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염경애가 최루백과 혼인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계셨다. 그래서 염경애는 혼인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행에 비추어본다면 어느 기간 정도는 친정에 머물다가 시어머니를 모셨어야 한다. 고려의 혼인예법은 남자가 혼인과 함께 여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돌아오는 술서혼(率婦婚)이 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경애의 묘지명에 “시집은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어른의 뜻을 미리 알아서 받들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 염경애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은 신흠집도 수원이 아니라 개경이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관리들은 지방관으로 부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개경에 살았기 때문이다.

혼인생활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내조일 것이다. 고려 때에는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부임하기도 하고, 홀로 몇 년을 외지에서 관직에 복무하기도 하였다. 염경애는 최루백이 패주(지금의 전남 보성)와 중원(지금의 충북 충주)에 수령으로 나갔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천 리 길을 쫓아가 아내의 역할을 다하였다. 또 최루백이 군사에 종사할 때에는 가난하고 추운 규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지어 보내주었고, 혹은 내시(內侍)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음식을 해 보냈다. 그래서 최루백은 무릇 나를 쫓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은 다 적을 수가 없다고 회상했다.

1145년 봄에 최루백이 사직(司直, 정7품)에서 우정언 지제고(右正言 知制誥, 정6품)로 승진하자 염경애는 “우리의 가난이 가시려나 봅니다.”라고 기뻐했는데

최루백은 “간관은 녹이나 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염경애는 “문득 어느 날 당신이 궁전의 섬돌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옹고 그른 것을 쟁론하게 된다면, 비록 가시나무 비너를 꽃고 무명치마를 입고 삼태기를 이고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달갑게 여길 것”이라고 답했는데, 최루백은 이 말이 평범한 부녀자의 말 같지 않았다고 하였다.

가계를 꾸려나가는 일 역시 내조 못지않게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衣食)이었다. 염경애는 최루백이 관직의 복무 대가로 받는 양반 과전과 녹봉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한 듯하다. 묘지명에 “저는 집안의 의복이나 식량을 주관하는 게 맡은 일인데, 비록 반복하여 힘써서 구하여도 여의치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쉽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안팎 친척의 좋은 일과 언짢은 일,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에 모두 그 마음을 함께 했다고 하니 친척들에게도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의 여성들 중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고리대에 손을 대거나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염경애는 “제가 재주가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가난을 막던 일을 잊지 마시오”라고 한 것을 보면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생전에 섬기지 못했다 하여 제사에 정성을 다하였다. 명절이나 복일(伏日), 납일(臘日)이 되면 매번 몸소 제사를 드렸다. 또 스스로 길쌈하여 저고리나 바지 등을 만들어 두었다가 제삿날이 되면 영위를 모신 자리에 절하고 바쳤고 재(齋)에 나아가면 무리가 많은 적든 벼신을 지어 가서 모두 승려들에게 시주하였다고 한다. 최루백은 묘지명을 쓰면서 이것이 가장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제사는 조선시대처럼 장남의 집에다 사당을 만들고 부계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지내는 형태가 아니고 사찰에서 재를 지내는 형태로 치러졌다. 사찰에서 재를 지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노동에서 벗어났을 것으로도 생각하지만 염경애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제사 때마다 자신의 수고로 극복해야만 했다. 시아버지를 위해 옷을 만들고 불사를 해준 승려들에게 버선으로라도 감사 표시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가정교육 또한 여성이 가정에서 전담하는 일 중의 하나이며, 4남 2녀의 자식을 둔 염경애 역시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짧은 묘지명에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 단인(端仁), 단의(端義), 단례(端禮) 세 아들이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아직 벼슬길에는 나아가지는 않은 듯하며, 4남 단지(端智)는 출가하여 승려가 된 상태였다. 큰 딸 귀강(貴姜)은 흥위위녹사 최국보(崔國輔)에게 출가하였으나 사별하여 집에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고, 작은 딸 순강(順姜)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속세를 떠나 출가한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대개 한창 공부에 전념할 나이였으므로, 학문적 성취 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듯하다. 게다가 큰딸은 청상이 되어서, 작은 딸은 너무 어려서 어머니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쓰였을 것이다.

훌륭한 아내이며 며느리, 어머니였던 그녀는 1146년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루백은 계속 승진하였고, 그녀가 낳은 4남 2녀 중 아들은 한 명이 승려가 되고, 세 명은 관리가 되었다. 이로써 그녀의 가정은 나라에서 많은 녹을 받게 되었으나 최루백은 집안의 의식이 오히려 그녀가 고생하며

살림을 꾸릴 때만 못하였다고 슬회하고 있다. 그리고는 아내의 죽음을 맞아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해 애통하다”며 절절한 심정으로 묘지명을 썼다.

그러나 최루백은 이후 유씨(柳氏) 부인과 재혼하여 100세가 넘도록 수를 누렸다.

최루백(崔魯伯, ?~1205)은 47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염경애의 죽음을 슬퍼하며 직접 묘지명을 지었다.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세로 30.3cm, 가로 69.7cm, 글자크기 1.2cm)에 보관되어 있으며, 연대는 1148년(의종 2년)이다. 묘지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무덤 속에 묻은 돌이나 도판에 그 일생을 새긴 글로 고려시대에는 귀족과 승려들만의 전유물이었다. 이 묘지명이 주목받는 이유는 ‘염경애’라는 여성의 이름이 드러난 데 있다. 전근대 사회가 그랬듯이 고려시대 여성 또한 사회에서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성씨로만 불렸다. 사회생활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성의 이름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최루백이 남들처럼 묘지명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염경애는 ‘봉성현군 염씨’라고 적혔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 최루백이 직접 묘지명을 지음으로서 아내 이름을 밝히게 되었고 염경애는 이름을 남긴 고려의 몇 안 되는 여성이 되었다. 묘지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황통 6년 병인년(1146, 인종 24) 정월 28일 무술일에 한남 최루백(崔魯伯, ?~1205)의 처 봉성현군(峯城縣君) 염씨(廉氏, 1100~1146)가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순천원(順天院)에 빈소를 마련하였다가 2월 임인일에 개경 북쪽 박혈(朴穴)의 서북쪽 산등성이에서 화장하였다. 유골을 봉하여 임시로 도성 동쪽에 있는

청량사(淸涼寺)에 모셔두었다가, 3년이 되는 무진년(의종 2, 1148) 8월 17일에 인효원(因孝院) 동북쪽에 장례 지내니, 아내의 아버지 묘소 곁이다. 루백이 다음과 같이 묘지(墓誌)를 짓는다.

아내의 이름은 경애(瓊愛)로 검교상서 우복야 대부소경(檢校尙書右僕射 大府少卿) 염덕방(廉德方)의 딸이고, 어머니는 의령군대부인(宜寧郡大夫人) 심씨(沈氏)이다. 아내는 25세에 나에게 시집와서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남은 단인(端仁)이고, 2남은 단의(端義)이고, 3남은 단례(端禮)인데, 모두 학문에 뜻을 두었고, 4남 단지(端智)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장녀 귀강(貴姜)은 흥위위녹사(興威衛錄事) 최국보(崔國輔)에게 시집갔는데 최씨가 죽자 집에 돌아와 있고, 2녀 순강(順姜)은 아직 어리다.

아내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럽고 정숙하였다. 제법 문자를 알아 대의(大義)에 밝았고 말씨와 용모, 일شم씨와 행동이 남보다 뛰어났다.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온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어른의 뜻을 먼저 알아 그 뜻을 받들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힘써 살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내가 패주와 중원의 수령으로 나갔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꺼리지 않고 함께 천 리 길을 갔으며, 내가 군사(軍事)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동안 가난하고 추운 규방(閨房)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지어 보내 주었다. 혹은 임환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보내기도 하였으니, 무릇 나를 좇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여 명절이나 복일과 납일(臘日)이 되면 매번 몸소 제사를 드렸다. 또 일찍이 길쌈하여 이것을 모아서 저고리 한 벌이나 바지 한 벌을 지어 제삿날이 될 때마다 영위(靈位)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절한 다음 이것을 바쳤으며, 곧 재에 나아가 무리가 많은 적든 버선을 지어 승려들에게 시주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잊지 못할 일이다.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독서하는 분이니,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안의 의복이나 식량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는데, 비록 여러 번 힘써 구하더라도 맘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설사 불행하게도 뒷날 내가 천한 목숨을 거두게 되고 그대가 후한 녹봉을 받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더라도, 제가 재주 없었다고 하지 마시고 가난을 막던 일은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고는 크게 탄식을 했다.

다음 을축년(인종 23, 1145) 봄에 내가 사직(司直)에서 우정언 지제고(右正言 知制誥)로 자리를 옮기니, 아내는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말하였다. “우리의 가난이 끝나려나 봅니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간관은 녹봉이나 지키는 자리가 아니요.” 그러자 아내는 “혹시라도 어느 날 그대가 궁전의 섬돌에 서서 천자(天子)와 더불어 옹고 그른 것을 논쟁하게 된다면, 비록 가시나무 비너를 꺾고 무명 치마를 입고 삼태기를 이고 살아가게 되더라도 또한 달게 여길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평범한 부녀자의 말 같지 않았다. 그 해 9월에 아내는 병이 들었는데 병인년(인종 24, 1146) 정월에 병이 위독하여 세상을 떠나니, 한(恨)이 어떠하였겠는가.

나는 병인년 여름에 우사간에 오르고 12월에는 좌사간으로 옮겼다. 정묘년(의종 1, 1147) 봄에 시어사로 옮겼다가 그 해 겨울에는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로 좌천되었다. 무진년(의종 2, 1148) 봄에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옮겼다가 다시 청주부사(淸州副使)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벼슬이 오르면서 계속하여 후한 녹을 먹게 되었는데, 집안을 돌아보면 의식(衣食)은 오히려 아내가 어렵게 애써서 구할 때와 같지 못하니 누가 아내를 말하여 재주가 없었다고 하겠는가. 아내가 장차 목숨을 거두려 할 때 나에게 죽은 뒤의 일을 부탁하였고 여러 자식들에게도 유언을 남겼는데, 그 말들이 모두 이치에 닿아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47세였다.

명(銘)하여 이른다.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라.

아직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일이 매우 애통하도다.

아들딸들이 기리기처럼 뒤따르니

부귀가 대대로 창성할 것이로다.

강정일당(姜靜一堂)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강정일당(1772~1832)은 조선후기의 여류 문인으로 본관은 진주, 호는 정일당이다. 세조 및 성종 대의 공신으로 학문과 인품이 뛰어났던 강희맹의 후손이다. 충청북도 제천 근우면 신촌 출신으로 아버지는 강재수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서응의 딸이다. 명문 가문 출신이나 조부인 강심환과 부친인 강재수가 단명하여 가문이 쇠락하게 되었다. 정일당의 행장에 의하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돌아가신 두 시어머니가 모두 꿈에 나와 지극한 덕인(德人)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그래서 태몽에 따라 이름을 지덕(至德)이라 지었다. 정일당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린 나이로 바느질과 김쌌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부모를 모시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 부모가 병이 나면 비록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도 옷을 벗지 않고, 눈을 붙이지도 않으며 약이나 음식을 직접 시중들었고,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너무 슬퍼하여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부모의 묘소 앞에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막살이를 하는 것은 남자도 어려운 일인데, 정일당은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17세의 나이로 그 힘든 일을 해냈다.

그녀의 일생을 기록한 행장(行狀)에 의하면, 정일당은 매우 조용한 성품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조용하게 지냈으나,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는 열성이 넘쳤다. 정일당이 살던 시대는 유교적 여성관이 지배했던 시절이었기에 정일당은 “아녀자는 나쁜 일도 하지 말고, 훌륭한 일도 하지 말라.”는 시경(詩經)의 말과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다니라.”는 예기(禮記)의 말을 실천하려 애쓴 여성이었다.

정일당은 1791년 20세에 6살 연하인 충주 출신 윤광현에게 출가했는데, 혼례를 치르고도 3년 동안 시댁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시아버지 윤동엽은 미호 김원행의 제자였고, 시어머니 천안 전씨 지일당(只一堂)도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시댁도 매우 빈곤했기 때문에 윤광현이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문에 힘쓸 상황이 아니었다. 과천에서 살 때에는 흉년이 들어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었다.

밥을 짓지 못한 지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글 배우는 아이가 마침 호박 덩굴을 걷어왔는데, 그 속에서 주먹만 한 열매 몇 개를 찾아 칼로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구해볼까 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단지 국만 올리게 되니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혼인할 때 시어머니 지일당이 며느리에게 “가난이란 늘 있는 일이다. 명예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일당도 먹고사는 일로 바쁜 남편에게 그것은 “정도를 버리고 생계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학문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일당은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면서도 남편에게 학문을 권하였고 학문과 수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윤광현은 부지런히 공부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는 못하였다. 정일당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학문이나 문학에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길쌈을 해야 했기에 공부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 후 나이 서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의 글소리를 듣고 함께 공부했다. 남편의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남편의 글소리를 들으면서 간혹 글자의 음과 뜻을 모르면 묻고 했는데, 한번 들으면 외었고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그녀의 학문적 재능은 남편을 능가하여 남편과 학문적 토론을 함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일당은 조선시대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전체 학자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 중의 한명이다. 철들 무렵부터 책을 끼고 살았던 남성들에 비해 서른이라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학문적 성취를 본다면 정일당의 총명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녀가 만약 어릴 때부터 학문을 시작했다면 아마 조선의 어느 학자도 그녀의 학식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 서른에 공부를 시작하니
학문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네.
이제부터라도 모름지기 노력하면
아마도 고인과 같아지리라.

또 남편에게 학문을 권하여 당시 노론의 대학자였던 강제 송치규(송시열의

6대손)의 문하에서 배우게 했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선비들과 교류토록 하면서 자신도 남편이 배운 바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학문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해서 윤광현은 부인의 권고로 늦게 학문에 입문하였지만 당시 노론의 대학자인 송치규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송치규의 문인록에는 10명의 문인 중 한사람으로 올라있다. 학문의 길에 있어서 스승과 벗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남편에게 교유를 적극적으로 권하여 오현 이우재나 해석 김재찬, 스승의 아들인 송흡성, 아버지 윤동엽의 스승이었던 김원행의 후손 김병운, 매산 홍직필, 양화 이의성, 최한기 등과도 교분을 쌓게 하였다.

정일당은 바느질하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고, 밥하고, 상을 치르며 질병을 간호하는 일 외에는 유교 13경에 심취하였고, 여러 전적들에 두루 통하면서 고급의 정치변동과 인물들의 행적을 밝게 알았다. 정일당은 특히 『주례』, 『이아』, 『춘추좌씨전』, 『근사록』, 『격몽요결』 등의 책을 좋아했다고 한다. 정일당은 거의 독학으로 학문을 했지만, 남편 윤광현의 스승이었던 송치규와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율곡-사계-우암을 잇는 노론 정통 기호학파의 성리학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정일당은 학문과 수양에 경서에 두루 통하였으며, 시문에 뛰어나 당시에도 문명(文名)이 높았다. 시는 대개 학문 또는 수신에 관한 내용이 많다. 또 글씨에 능하여 홍의영(洪儀泳)·권복인(權復仁)·황운조(黃運祚) 등의 필법을 이어받았으며, 특히 해서를 잘 썼다.

정일당은 사람들이 그의 남편에게 글을 청하면 본인이 대신 지어주는 일이 많았다. 대신 지어주는 일[代作]은 한문학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쓰기 형태이지만, 부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쓴 경우[代夫子作]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보가 그의 시 한수를 보고 매우 칭찬하였는데, 이 소문을 듣고 저술을 일체 남에게 보이지 않았다.

『정일당유고』에 수록된 산문은 척독(尺牘, 편지) 82편, 명(銘) 5편, 서(書) 10편, 기(記) 3편, 설(說) 1편, 제발(題跋) 2편, 묘지명(墓誌銘) 및 행장(行狀)과 제문(祭文) 각 3편, 잡저 2편이 있다. 그중에서 대부자작은 서신 5편, 기문 2편, 제발 2편, 묘지명 3편, 행장 3편, 제문 3편으로, 산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모두 38제인데 대부자작 시는 8제이다.

정일당은 생전에 5남 4녀를 낳았으나 모두 돌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보냈다. 당시 자녀를 잃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9명의 자녀를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고 보낸 것은 불행 중에서도 불행이었다. 정일당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자기 분수에 정해져 있으니 근심할 바가 못 됩니다. 다만 근심되는 것은 자기 도리를 스스로 다할 수 없는데 있으니 무엇을 원망하여 허물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하나 둘도 아닌 아홉의 자식을 모두 잃고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일당이 거의 도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일당은 가게 관리를 잘한 덕에 생애 말년에는 상당한 재물을 모았고, 1814년 서울 남대문 밖 약현(藥峴, 현재 중립동)에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살게 되었다. 정원은 탄원(坦園)이라고 명명했는데, 탄원은 남편의 호이기도 하다. 「탄원기(坦園記)」에는 그곳의 풍경과 삶이 나타난다.

탄원은 그윽하고 고요하니

그 단아함이 지인(至人)이 살기에 적합하네.

홀로 천고의 서적을 탐구하며
작은 오두막에서 고고히 살아가네.

이들 부부는 청계산 동쪽 넓은 임야를 위토로 사서 3대 조상 7위의 묘소를 천리 길로부터 이장하여 단장하였다. 현재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관리되는 성남시 금토동 산자락 묘역 전체가 모두 그가 생존 시에 마련한 선영으로 자신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 친척들의 혼례와 상례를 대신 치러준 일도 적지 않았다. 정일당은 1832년(순조 32년) 9월 14일 향년 61세로 타계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고, 문하의 학도들이나 어린 시절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 수십 명이 가슴에 흰 띠를 두르고 그녀를 위해 곡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살았을 때에는 가난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죽어서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 매산 홍직필이 묘지명을 쓰고 강원희가 행장을 썼으며 홍치규가 비문을 썼으니 그녀는 아마 여한이 없었을 것이다.

정일당이 돌아가자 남편 윤광현은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 남편 윤광현은 이런 정일당을 일종의 스승이었다고 고백했고, 정일당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애석해 하면서 제문을 반복하여 올렸다. 그렇다면 윤광현은 정일당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윤광현이 죽은 아내 정일당의 회갑날을 맞아 쓴 글에 의하면, 정일당을 다른 부녀자는 할 수 없는 공경과 경계를 모두 실천했으며, 법도로 삼을 만했고, 스승으로 삼을 만했으며, 중히 여길 만한 존재로 그리고 있다. 또한 엄한 스승처럼 무섭고 떨리는 존재로 형용하고 있어 마치 엄처이기만 했던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음을 한탄하는 마음, 삶과 학문의 의문점을 함께 풀어갈 사람을 잃었다는 표현에서는 부부가 동지적인 애정을 보이고 있다.

당신은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후덕하며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정직하였으니 스승이 될 만했고, 법도가 될 만했으며, 존경할 만하였고, 중히 여길 만한 사람이었소 ... 비록 부부사이 이지만 엄하기가 마치 존엄한 스승을 대하는 것 같아서 조심하여 조금도 소홀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번 당선과 마주 앞으면 마치 신명을 대하는 것과 같았고 매번 당신과 말을 할 때마다 눈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아 가슴이 아픕니다. ...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러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의 슬픔이 너무 심하네. 신세가 처량해서 그런가? 어찌 그리 남과 달리 슬퍼하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아니네, 아니네. 자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는가. ...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나에게 의문나는 것이 있을 때에 누가 그것을 풀어줄 것이며.

윤광현은 정일당이 돌아간 바로 다음 해부터 아내의 문집 간행을 위해 애를 썼다. 아버지의 문집도 아직 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였다. 1836년 윤광현은 자손도 흩어지고 비복도 없는 초가집에 홀로 거하면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필요로 하는 문집, 그것도 아내의 문집을 기어코 완성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가 바로 그것이다. 성남시에서는 강정일당을 기리기 위해 매년 성남문화원 주최로 강정일당 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올해로 21회 째이다.

임윤지당(任允摯堂)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조선시대 여성들 가운데 시문을 남긴 여성들은 많지만 윤지당처럼 철학적인 글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윤지당은 여성의 삶을 살았지만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그녀의 문집에 서문을 써준 유한준은 풍천 임씨 가문의 여성 군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규상은 견식과 문장 솜씨가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임윤지당(1721~1793)은 본관이 풍천이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의 둘째 오빠 임성주가 태임의 덕을 본받으라고 지어준 ‘윤지당’이라는 당호만 전한다. 윤지(允摯)는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과 문왕의 부인인 태사(太姒)를 독실이 신봉한다.’는 뜻이다. 태임은 유교세계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이었다. 더구나 태임의 성씨가 임씨(任氏)였으므로 윤지당과 임성주는 더욱 친근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는 함흥관관을 지낸 임적(任適)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로 이조판서에 증직된 윤부(尹扶)의 딸이다. 아버지 임적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장녕전참봉, 장원서별제, 양성현감 등을 거쳐 함흥관관으로 재직하다가 탄핵을 받아 관직을 떠났다. 윤지당은 아버지가 양성현감으로 부임하던 해에 태어났다. 임적은 44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윤지당의 나이 8세였다. 아버지를 여의고 9세 되던 해 청주 근처 옥화(玉華)라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윤지당의 형제는 5남 2녀로 위로 오빠가 셋, 언니가 하나, 남동생이 둘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큰아들 임명주는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동생들 교육은 둘째이자 조선후기의 대성리학자인 녹문(鹿門) 임성주가 맡아서 했다. 당연히 윤지당은 임성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임란 이후 관학 교육이 유명무실화되면서 양반집에서는 독선생을 초빙해 자녀 교육을 하곤 했는데, 그러자 여성들도 남자 형제와 함께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윤지당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라버니의 지극한 우애를 받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입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수신할 줄 알아서 죄와 과오에 빠지지 않게 된 것은 오라버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남녀가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 뜻에 의문이 있으면 오라버니께서 반드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 제가 완전히 깨우친 다음에야 그만 두었습니다. 병오년(1786) 이후에는 의심나는 것을 편지로 왕복하여 문의하면서 만년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동생인 윤호(雲湖) 임정주(任靖周)가 쓴 유사에 의하면, 윤지당은 오빠나 남동생들을 따라 경전과 역사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배우고, 때때로 토론을 제기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많았는데, 임성주가 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효경』, 『소학』, 『열녀전』, 등의 책을 가르치니 윤지당이 몹시 좋아했다고

한다. 이후로 낮에는 부녀자의 일에 진력하고 밤이 깊어서는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어 공부하는 티를 내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녀의 학문 진취를 알지 못하였으나 경전에 대한 조예와 성리학의 이해는 당시의 대학자들에 견주어 손색이 없었다.

유인(儒人, 윤지당)은 단정하고 한결같으시며 성실하고 장엄하셨다. 어릴 때부터 빠른 말이나 황급한 거동이 없었고 천성이 총명하고 영리하셨다. 여러 오빠 형제들을 따라 경전과 역사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배웠고 때때로 토론을 제기하였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이 많았다. 둘째 형님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효경 열녀전 소학 사서 등의 책을 가르치셨는데 누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낮에는 종일토록 여자의 일을 다하고 밤중이 되면 소리를 낮추어 책을 읽으셨다. 뜻이 목소리를 따르듯 하고 정신이 책장을 뚫을 듯하였다. 그러나 학식을 깊이 감추어 비운 듯이 하였기 때문에 친척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17세 때 조상들의 선영이 있던 여주에 와서 살았다. 동생인 임정주가 여주에 살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나이 열한 살 때 청주 옥화에서 여주로 이사가 살게 되었다. 여주는 변화한 곳이어서 친구들이 밀고 당겨 나도 모르게 방자하게 되었다. 누님이 조용히 타이르시기를 ‘왜 방심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남들을 따라 다니면서 두레박처럼 오르락내리락 놀기만 하느냐’ 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곧 마음을 바로 잡았다. 누님께서서는 순순히 가르치시고 타이르는 성의가 간절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큰 죄를 면하게 된 것은 실상 우리 누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신 덕분이다.”라고 하였다.

윤지당은 19세 때 한 살 아래인 원주의 선비 신광유(申光裕)에게 시집갔다. 신광유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으로 살림이 넉넉하였다. 결혼 후 난산 끝에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어려서 죽었고, 그 후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였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위로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간원 사간을 지낸 시동생 신광우, 신광조 가족과 함께 살았다. 시어머니가 돌인 것은 신광유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양시어머니가 있었던 까닭이다.

마흔 살이 되던 해 신광유의 장남 재준을 양자로 들여 키웠다. 남편을 일찍 잃은 윤지당에게 재준의 성장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재준은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28세에 죽었다. 양자로 들인 아들까지 죽자 윤지당도 평정을 잃었다. 당시 임성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자신을 죽은 누이로 여기라고 하면서 비통해 하였고, 임성주는 성인의 글을 읽어 사리를 알면서 아들을 따라 죽으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 윤지당은 2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고 마흔에 입양해서 키운 아들을 육십 대 후반에 잃었다. “아마도 내가 죽어야만 이 비통함이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절망스러운 심정을 토해냈다. 윤지당은 연이어 스승이자 친구 같았던 오빠를 잃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임성주의 죽음에 윤지당은 “오장이 무너져 찢어질 것만 같고, 피가 솟아 얼굴에 덮어 쓸 것만 같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자신을 두고 타고난 팔자가 기박해서 네 가지 궁함 가운데 세 가지를 갖추었으니 고금을 둘러보아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당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은 세 편의 제문 외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글이 없다는 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결혼 후 계속 불행한 일을 겪은 윤지당에게 학문은 고단한 삶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었다. 윤지당은 가혹한 운명에 대해 “이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분발케 하고 인고의 성품을 길러 부족한 점을 증대하려 하심이 아닐까?”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한 삶이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자양분이 된 것이다.

윤지당은 65세 되던 해 자신의 문집 초고를 엮어 아들인 재준에게 주고, 이를 보내달라는 막내 동생 임정주에게 한 부 베껴 보내면서 자신이 학문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어려서 임성주의 지도로 공부를 시작한 윤지당은 “나는 어릴 때부터 성리의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 조금 자라서는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듯이 학문을 좋아하여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었다. 이에 감히 아녀자의 분수에 구애되지 않고 경전에 기록된 것과 성현의 교훈을 마음을 다해 탐구하였다고 하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자 조금 말을 할 만한 식견이 생기게 되었는데, 문장으로 저술할 뜻이 없어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만 있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으면 초목과 같이 썩어버릴 것을 생각하고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글로 써 두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윤지당이 모은 글은 모두 40편이었는데 임정주가 다시 35편으로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윤지당유고』에는 서문은 없고, 『윤지당유고』 부록에 시동생 신광우가 쓴 언행록 19조와 친정 동생 임정주가 쓴 유사 16조가 실려 있으며 시동생 신광우와 친정 동생 임정주가 각각 쓴 발문이 있다. 2편의 여성 인물전을 비롯해서 11편의 역사 인물론, 6편의 설(說)과 2편의 경의(經義),

8편의 잠명(箴銘), 3편의 제문 등이 실려 있다. 윤지당에 의하면, 「송씨 아내의 전(宋氏能相婦)」부터 「안자의 즐거움(論顔子所樂)」에 이르기까지 8편은 시집가기 전에 쓴 것이고, 나머지는 중년과 만년에 쓴 것이라고 하였다. 평생에 걸쳐 쓴 것을 정리한 것이지만 그 양은 많지 않은 편이다. 시동생 신광우가 북쪽에 있을 때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있었으나 언문으로 썼기 때문에 문집에는 모두 빠졌다.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6편의 설과 2편의 경의다. 6편의 설은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 「인심도심사단칠정설(人心道心四端七情說)」, 「예악설(禮樂說)」, 「극기복례위인설(克己復禮爲仁說)」, 「치란재득인설(治亂在得人說)」, 「오도일관설(吳道一貫說)」이다. ‘이기심성’이나 ‘인심도심’ 등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남성들의 영역으로 알려진 주제들이다.

경의는 유교 경전을 풀이한 글인데, 윤지당은 『대학 7조』, 『중용 27조』에서 경전의 중요한 구절을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설이나 경의의 전체적인 수준은 기존의 해석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견해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임성주와 주고받은 편지에는 주자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지당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것은 인물론이다. 그녀는 예양, 보과, 미생고, 안자, 자로, 가의, 이릉, 온교, 사마광, 왕안석, 악비 등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윤지당은 왕안석을 통렬하게 비판했는데, 그 이유는 왕안석이 송나라의 재상으로서 인의를 저버린 채 부국강병만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마광에 대해서는 어질고 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하면서도 역사 서술에 대한 사관 문제는 비판하였다. 즉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유비의 촉한 대신 조조를 정통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조는 한나라의 헌제를 협박해 제위를 찬탈한 인물인데도 헌제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윤지당은 인의를 저버린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윤리와 명분의 중시를 강조하였다.

윤지당은 시문이 실려 있는 다른 여성 시문집과는 달리 시문을 전혀 쓰지 않았고, 반대로 다른 여성 시문집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인(引), 논(論), 경의(經義), 설(說)이 들어가 있다. 임종 무렵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평소에 시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시를 지었다고 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내용이나고 묻자 “슬픔만 더할 뿐,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윤지당이 시를 쓰지 않은 것은 어쩌면 계속 이어지는 사별의 슬픔과 고독에서 오는 삶의 통증을 견드리기 보다는 견디고 이겨내서 성인을 닮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는 성리학이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수십 년 간 경전을 연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녹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해결하곤 했던 그녀에게 시문은 여기(餘技) 혹은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니까 낮에 집안일을 돌본 뒤 밤이 깊은 뒤에야 보자기에 싸 두었던 경전을 펴놓고 읽을 수 있었으니 늘 시간이 부족하고 쫓기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윤지당이 지향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아아! 나는 비록 부인이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본성은 애당초 남녀 간에 다름이 없다. 비록 안연(顏淵)이 배운 것을 능히 따라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 윤지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이었다.

고양 밥할머니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고양시 동산동 마을에 목, 머리 부분이 훼손된 채 북한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석상이 하나 있다. 북한산 노적봉에서 왜군을 퇴치했기 때문에 석상의 방향 또한 북한산이 보이도록 세웠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석상을 ‘밥 할머니’ 또는 ‘고석(古石) 할머니’, ‘보시 할머니’, ‘보살 할머니’ 등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향토문화재 제4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석상은 총 높이가 141cm 가슴둘레는 85cm 규모이며, 이 석상 앞에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밥 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임진왜란 당시 벽제관 전투와 행주대첩 그리고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이며, 내용은 설화 형식을 띠고 있다. 고양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는 밥 할머니 이야기가 전설로 소개된다고 한다. 줄거리는 쓰는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또는 살이 붙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고양시사』에 실려 있는 내용을 보자.

북한동의 노적봉과 밥 할머니

일본이 병화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산천을 피로 물들인 지 8개월이 지난 선조 26년 정월, 조선의 조정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명은 이여송을 파견했다. 총병관 이여송은 양국의 연합군을 총지휘하여 왜군에게 함락되었던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양을 향해 남진을 하였다.

그러나 그해 정월 26일 한양을 눈앞에 둔 옛 고양군 벽제면의 남쪽 솟돌고개 전투에서 연합군은 왜군에게 참패를 당하여 북한산으로 뿔뿔이 패주하여 이여송과 장수들의 일부는 노적봉 밑에 집결하게 되었다. 왜군이 포위망을 좁혀 오자 이여송은 “이제 길은 두 갈래뿐 이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적에게 투항하여 목숨이라도 살려 달라고 애걸하느냐,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는가?” 하고 말하면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조선 관군의 총사령관격인 부원군 김명원이 “길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혈로를 뚫고 적진을 돌파하여 흩어진 병력을 재정비하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김부원군의 말씀이 좋기는 하나 알다시피 아군은 이번의 패전으로 다수의 병력을 상실했고, 적군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면서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을 굳히고 있으니 혈로를 뚫기는 고사하고 쥐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이여송은 침통하게 대답했다. 이에 김명원도 더할 말이 없어 장막 밖으로 나왔는데 한 노파가 “장군께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하고 다가왔다. 이 노파는 솟돌고개 남쪽의 진거리에서 떡 장사를 하는 할머니였다. 초조해하던 김명원은 그 노파가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안색이 금세 밝아졌다. 그는 즉시 진으로 들어가서 이여송에게 노파의 말을 전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보낸 여신인지도 모른다.”며 이여송은 김명원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휘하의 장졸들에게 명령했다.

“이 근처의 마을에 내려가서 짚단이란 짚단은 있는 대로 다 모아 오도록 하라.” 얼마 후 노적봉 기슭을 휘돌아 진거리 앞으로 흘러가는 냇가에는 수많은 왜군들이 모여들어 술렁대고 있었다. “목이 타서 죽겠는데 마실 물이 있어야지.” “글쎄 말이야. 저 냇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지만 물빛이 저렇게 뿌옇니...” 왜군들이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냇물은 무슨 까닭인지 물빛이 뿌옇게 흐려 있었다. 그 때 한 노파가 함지박에 흰쌀을 수북이 담아 이고는 산에서 내려왔다. 조금 전에 아군 진영으로 김명원을 찾아갔던 그 노파였다. 한 왜군이 노파를 불러 세워 물었다. “여보 할멈, 이 냇물이 왜 이렇게 흐리오?” 노파는 그 왜군이 바보스럽다는 듯이 툭 쏘아주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쳐들어 왔기로 그까짓 것도 모르고 무슨 싸움을 한다는 거요? 저 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데다 군량미가 남아서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하오. 그 혼한 쌀을 씻어 수많은 군사들의 밥을 지으니 당연히 냇물도 흐려질게 아니요?” “저 산에 그렇게 군량미가 많소?” 왜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르다 뿐이오, 정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저길 똑바로 보시오.” 노파는 손을 들어 노적봉을 가리켰다. “저기 저 산봉우리처럼 쌓여진 짚단이 뭔지 아시오? 그게 바로 노적가리란 거요.” “노적가리가 뭐요?” 왜군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따 무식한 왜나라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니깐, 우리나라에선 밖에 쌓아둔 곡식더미를 노적가리라 부른단 말이오.” 노파는 왜군들을 핀잔하고 나서 “자 이걸 또 봐요.” 하고는 머리에 이고 있는 함지박을 왜군들 앞에 내밀어 보였다. “마침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군사들이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옥같이 흰쌀을 퍼주는 구려.” 왜군들은 기가 막혔다. 노파는 그들을 싸늘한 눈초리로 훑어보고는 총총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왜군은

멀리 도망가 보이질 않게 되었다. “그 노파의 계략이 들어맞았군. 아군의 병력과 군량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여 도망친 것이 틀림없어.” 부원군 김명원은 회심의 웃음을 지었다. 왜군들의 눈에 노적가리처럼 보인 것들은 노적봉에 둘러쳐진 짚단들이었다. 그리고 냇물이 흐려진 것은 회를 탄 물을 흘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노파가 제안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군은 즉시 혈로를 뚫고 전열을 재정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동산동 길가에는 머리 없는 지장보살의 석상이 있으며, 고양 사람들은 그것을 밥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석상이 아군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출한 슬기로운 노파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당시 조선군이냐 명군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 하늘에서 보낸 것 같은 노파가 찾아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짚단을 쌓아 놓아 군량미가 많다는 것, 그래서 쌀을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것, 회를 물에 타서 물을 뿌리게 하여 조선군과 명군의 수가 많다고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적처럼 왜병들이 물러갔다. 조상우는 이 설화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민중들이 왕이나 조정대신, 장수와 정규군들을 믿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장수나 정규군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노파가 등장하여 해결했으며, 결국 이는 민중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밥 할머니라 부르는 석상의 실제 인물이 있다고 한다. 남평 문씨 충양공파 문옥형의 부인 오씨(혜주) 또는 박씨(밀양)라고 한다. 1975년 화장되기 전까지는 밥 할머니의 묘소가 불광동 150번지에 있었다고 하며,

재실도 진관외동에 있었으나 1957년 화재가 나서 전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고양시에서 개최된 「고양 밥 할머니 학술세미나」에서는 인조가 밥 할머니의 아들 문천립에게 종2품 가선대부의 위계를 내리고 전주 이씨 성을 하사하여 종실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예우가 있었고, 밥 할머니는 정경부인, 남편 문옥형에게는 가선대부의 위계를 하사했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석상이 약사불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석상을 세울 당시 유교적 이념에도 맞지 않고, 특히 여인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미륵을 연상하고 보살의 형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문천립(文天立)이나 문옥형(文玉亨)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단 『승정원일기』나 『실록』에는 이들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

줄거리도 쓰는 사람마다 다르다. 『고양시사』에서는 그 이튿날 왜군들이 멀리 도망가서 보이질 않았다고 했는데, 2013년 3월 28일자 「법보신문」에는 다음날 조명 연합군이 급습을 했는데, 왜군들은 뿌옇게 변한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바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한다. 밥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밥 할머니는 부녀자들로 구성된 여성 의병대를 조직해서 행주산성으로 들어갔다. 성안으로 들어간 밥 할머니는 부녀자들을 동원해 하루에 1만 명분의 주먹밥을 만들어 병사들의 배를 채웠고, 치마에 치마를 덧댄 ‘행주치마’를 개발해 부녀자들이 손쉽게 돌맹이를 옮겨 전투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부녀자들이 돌을 나르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의병활동에 나선 것으로 유명한 ‘행주대첩’의 중심에는 밥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밥 할머니를 고양시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고 쓰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성을 지키는 방안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1781년(정조 5) 10월 28일 『정조실록』에는 병조참의 윤면동이 정조에게 성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마솥을 맡는 부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의 여인들 가운데 노성(老成)한 사람을 뽑아내어 10명씩으로 한 대오(隊伍)를 만들고 또 부통(釜桶, 솥이나 통) 같은 물건을 준비하여 물이 필필 끓는 여러 가마솥에서 자루가 긴 목표(木瓢, 나무 표주박)로 운반해 쓰게 하는데, 적이 성벽에 기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들어부으면 좋습니다.

즉 성을 지킬 때 여성들을 대오로 편성해 물을 끓여 운반하여 성벽에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쏟아 붓자는 의견이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에게 화살을 퍼붓거나 돌을 떨어뜨리는 방법 외에 뜨거운 물 등을 쏟아 붓는 방법은 전통적인 수성(守城)의 방법의 하나였다. 훈련이 없이도 싸움의 의지만 있다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이다. 고종 때 병조 판서와 훈련대장을 역임한 신헌도 『민보집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부인들을 두 부대로 나누되 긴장한 자를 한 부대로 편성한 다음 다시 4개 대로 나누고 대마다 식견이 있는 부인 1명을 선발하여 대원을 통솔하게 한다. 그리고 민보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개 대가 한 구역씩 맡고 각각 잡병의 임무를 부여받아 순찰한다. … 노약자도 1개 부대를 만들어 역시 4개 대로

나눈 다음 각 대마다 가난한 집 부인 1명과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 1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공동으로 통솔하게 한다. 각 대는 가마솥 8개, 항아리 8개, 물통 16개를 마련하여 민보 4곳에 설치하고 유사시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데 이들을 사부부대(司釜婦隊)라고 한다.

민보란 19세기경에 민란이 고조되고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민간 방위에 대한 구상으로 향촌 주민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수비하는 방어책이다. 여성들의 역할은 행주산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밥 할머니는 이후에도 창고의 곡식을 개방해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했으며, 인조반정 때는 아들 문천립을 시켜 위기에 빠진 인조를 보필하게 하였고, 이에 인조는 밥 할머니를 정경부인에 봉했다고도 한다. 밥 할머니는 불심도 깊어 황폐해진 북한산 일대의 사찰을 재건하기 위해 재산을 희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석상의 목, 머리 부분이 훼손된 것은 일제강점기 석상의 유래를 안 일본군이 목을 잘랐다고 전해진다. 후에 머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역민들은 억지로 머리를 만들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고 한다. 석상을 만든 주체에 대해서는 밥 할머니의 호국정신과 자비심을 기리기 위해 임금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밥 할머니에게 도움 받은 민초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그녀의 불심을 반영한 보살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숙빈 최씨(淑嬪 崔氏)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淑嬪 崔氏)는 숙종의 후궁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아버지는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충무위부사과(行忠武衛副司果, 종6품 무관직) 최효원(崔孝元)이고, 어머니는 남양 홍씨로 통정대부 계남(繼南)의 딸이다. 숙빈 최씨는 1670년(현종 11년) 11월 6일 서울 여경방(현재 세종로 일대) 서학동에서 1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최효원은 1638년(인조 16년) 2월 23일에 태어나 35세 때인 1672년(현종 13년)에 세상을 떠났다. 최씨가 세 살 때의 일이다. 또 어머니 남양 홍씨는 1639년(인조 17년) 10월 17일에 태어나 1673년(현종 14년) 12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최씨는 네 살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고아가 된 것이다.

당시 오빠 최후(崔瑩)는 10세 전후였을 것이므로 절박한 집안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최후는 훗날 벼슬이 만호(萬戶)에 이르렀는데 순흥 안씨 통정대부 안준영의 딸과 혼인했다. 만호는 조선시대 정4품 외관직 무관이다. 실록에서는 그의 집을 만호 댁으로 칭하고 있다. 언니 최씨는 부사 서전과 혼인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숙빈 최씨는 1676년(숙종 2년) 7세의 나이로 입궁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사별하고 생계 문제로 인해 궁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숙빈 최씨의 신분에 대해서는 궁궐에서 물이나 길어 나르는 천한 무수리 출신이라는 설도 있으나,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에는 고종의 후궁 광화당 이씨와 삼축당 김씨가 고종으로부터 선대의 숙빈이 침방나인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숙빈 최씨는 7세에 입궁했고, 7세는 보통 궁녀들이 입궁하는 평균 연령대이므로 최씨가 침방나인으로 있었다는 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씨가 인현왕후를 위해 몰래 음식을 차리고 방에서 기도를 드렸다면 무수리가 아니라 나인 신분임에 분명하다. 무수리는 출퇴근하는 잡부로서 궁중에 자신의 방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한밤중에 불을 켜놓고 기복 행위를 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연잉군이 어머니 최씨에게 침방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제일 어려웠냐고 묻자 중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가 다 어렵지만 세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었다고 대답했고, 효심이 깊었던 영조는 그때부터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1689년(숙종 15년) 5월,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가 투기를 일삼았다는 빌미로 폐출한 다음 중전과 가까웠던 귀인 김씨 역시 폐서인하여 사가로 내쫓았다. 이듬해인 1690년(숙종 16년) 6월에는 원자 이균을 세자로 책봉하고, 10월에는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책봉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역사에 숙빈 최씨가 등장한다. 이문정의 『수문록(隨聞錄)』에는 숙종과 최씨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 있다. 이문정은 사알(司謁)을 지낸 유경관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숙종은 지팡이를 짚고 궁궐 안을 거닐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궁녀의 방을 엿보았다. 그 안에서는 한 궁녀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

아래에서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임금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까닭을 물었다. 깜짝 놀란 궁녀가 엎드려 아뢰었다. “저는 중전마마의 시녀였는데 평소 분에 넘친 총애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중전마마의 탄신일인데 어느 누가 찬수(饌需)를 올리겠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중전마마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했지만 이를 올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방에 진설하고 정성이라도 전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숙종은 비로소 중전의 생일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감동하여 깨닫는 바가 있었고, 그 정성스런 뜻을 아름답게 여기었다. 마침내 그 궁녀를 가까이 하었는데, 이로부터 태기가 있었다.

인현왕후로부터 분에 넘치는 총애를 받았던 궁녀가 자신이 모셨던 인현왕후를 그리워한 나머지 인현왕후의 탄신일에 올릴 음식상을 마련해 두고서 슬픔에 잠겨 있었고,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숙종이 그 정성에 감동하였고 결국 동침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693년(숙종 19년) 숙종은 최씨가 회임했음을 알고 내명부 종4품 숙원(淑媛)의 첩지를 내렸다. 그해 10월 6일 최씨는 첫째 아들 영수를 낳았지만 두 달 만에 죽고 말았다. 인현왕후가 복위된 1694년(숙종 20년) 6월 2일 숙종은 재차 회임한 숙원 최씨에게 종2품 숙의(淑儀)의 첩지를 내렸다. 그해 9월 20일 최씨는 창덕궁 보경당에서 둘째 아들 연잉군 금(吟)을 낳았다. 숙종은 몹시 기뻐하며 호산청에서 최씨의 출산을 도운 환관과 의관들에게 내구마를 상으로 주었다. 이는 다른 후궁들이 출산하면 어주를 내리던 것과는 격이 다른 포상이었다. 1695년(숙종 21년) 6월 8일, 숙종은 최씨를 종1품 귀인(貴人)으로 승격시켰다. 1698년(숙종 24년) 7월 7일 최씨는 셋째 아들을 낳았지만 사흘 만에

죽었다. 1699년(숙종 25년) 10월 23일, 숙종은 그녀를 내명부 최고의 품계인 정1품 빈(嬪)으로 승격시키면서 숙(淑)이란 휘호를 얻어 숙빈이 되었다.

그때 최씨는 만호 직위에 있던 오라버니 최후를 퇴임시킴으로써 구설수를 피해갔다. 자칫하면 연잉군이 당쟁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빈은 두 내전을 모실 때,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고 모든 비빈이나 궁인을 접할 때 공손하고 온화하여 숙종이 마음속으로 애중히 여겼다고 한다. 인현왕후 역시 특별한 대우를 했으나, 더욱 겸손하고 두려워하였고, 남의 장단점을 말하기 좋아하지 않아 옆에서 모시는 자들이 어쩌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곧 꾸짖었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후궁들에게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했고, 자신을 모시는 궁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했다.

빈(嬪)은 천자(天姿)가 신중하고 단정하여 희노(喜怒哀)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고 양전(兩殿, 왕과 왕비)을 모실 때 주야로 힘써서 항상 공경하고 조심하였다.

여러 빈어(嬪御)와 궁인들을 접할 때는 겸손하고 화목하여 모두 환심을 얻었으므로 임금께서 매우 중히 여겼다. … 빈은 성품이 온유하고 거동이 정숙 신중하였으며 돈독하고 화목하며 온순하고 공손하였다. 숙종을 보필하여 은우(恩遇)를 입은 지 30여 년에 이르도록 근검하고 조심하였으며 스스로 낮추어서 귀하고 영예로운 지위에 올랐으나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궁중생활에서 덕의(德義)가 넘치고 성신(誠信)이 독실하여 비난하는 말이 없었다.

(장서각소장탁본자료집 3, 69쪽. 숙빈최씨신도비명 하)

그러면서도 연잉군에 대한 교육은 철저했다. 연잉군이 겨우 걸음을

배웠을 때에 숙종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무릎을 모아 앉고 물러가라는 명 없이는 하루해가 다 가더라도 어려워하는 빛이 없었는데, 숙빈은 연잉군이 오래 꿇어앉느라 발이 굵을까 염려하여 넓은 버선을 만들어서 힘줄과 뼈를 펼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1701년(숙종 27년) 8월 인현왕후 민씨가 세상을 떠나자 숙빈 최씨는 그 동안 희빈 장씨가 행해왔던 저주의식을 숙종에게 고했다. 이에 분개한 숙종은 내관들에게 취선당 일대를 수색하여 저주의 실체를 확인한 다음 장씨 일문을 척살하고 희빈 장씨까지 사사했다. 이른 바 무고의 옥이었다.

후일 노론의 중심 인물이었던 민진원의 『단암만록(丹巖漫錄)』에 의하면 숙빈은 광성부원군 김만기와 일정한 교류가 있었고, 인현왕후와도 친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암만록』에는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 때 광성부원군의 손자였던 김춘택이 숙종의 유모였던 봉보부인을 통하여 숙빈에게 계책을 전해 남인들의 행태를 숙종에게 알림으로써 정국을 뒤집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남인과 소론이 숙빈을 김씨들의 사인(私人)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숙빈의 정치적 작용은 노론의 환국 정략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희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숙빈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던 희빈과 노론과 결부되어 있었던 숙빈은 정치적으로 초연할 수 없었고, 각기 세자와 왕자가 있었으므로 궁중의 암투도 적지 않았다. 결국 1701년(숙종 27)에 인현왕후가 죽자 궁중의 무고(巫蠱) 사건이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희빈이 사사되었는데, 여기에도 숙빈의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대행왕비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민진후 형제가 입시하니, 왕비가 하고하기를, …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귀신의 재앙(所祟)이 있다.’고 한다. 궁인 시영이란 자에게 의심스러운 자취가 많이 있고, 또한 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주상께 감히 고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겠는가? … 이때에 이르러 무고(巫蠱)의 사건이 과연 발각되니, 외간(外間)에서는 혹 전하기를, “숙빈(淑嬪) 최씨(崔氏)가 평상시에 왕비가 베푼 은혜를 추모(追慕)하여, 통곡(痛哭)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에게 몰래 고(告)하였다.” 하였다.(숙종실록)

1702년(숙종 28년) 숙종은 세 번째 계비로 소론인 경은부원군 김주신의 딸 인원왕후 김씨를 맞이했다. 최씨는 새로운 중전에게 예를 다했으므로 두 여인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연잉군 이금은 1703년(숙종 29년) 관례를 치른 다음 이듬해인 1704년(숙종 30년) 11세의 나이로 진사 서종제의 딸과 혼인했다. 후궁의 아들이나 딸이 혼인을 하면 꺾 밖에 기거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숙종은 호조에 명해 저택을 새로 구입하게 했지만 연잉군을 곁에 두고자 했으므로 차일피일 출함이 미루어졌다.

일찍이 숙종은 숙빈 최씨의 사제로 과거 광해군의 잠저였던 이현궁을 하사했는데 신료들로부터 후궁이 쓰기에 너무 호화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숙종은 1711년(숙종 37년) 이현궁을 환수하고 추후에 연잉군의 사가인 창의궁에서 함께 살라고 명했다. 1712년(숙종 38년) 2월 12일, 19세가 된 연잉군은 궁궐에서 나와 창의궁으로 들어갔다. 혼인한 지 8년 만의 독립이었다.

그때부터 연잉군은 훗날 왕세제로 책봉될 때까지 10여 년을 잠저에 머물면서 일반 백성과 어울렸다.

숙빈 최씨는 아들과 함께 창의궁에 살면서 종종 입궐하여 숙종을 모셨다. 최씨는 1716년(숙종 42년)부터 깊은 병을 앓았는데, 궁 밖으로 나오면 왕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조금만 차도가 있어도 곧바로 대궐로 들어갔다. 숙종은 그녀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궁궐 출입을 금하고 사제에서 요양하도록 했다. 하지만 숙빈 최씨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숙종이 죽기 2년 전인 1718년(숙종 44년) 3월 9일 창의궁 서별실 동익각에서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연잉군은 어머니 숙빈 최씨의 상례를 치르며 부왕 숙종과 은밀한 갈등을 겪었다. 본래 후궁 소생의 왕자들은 모두 중궁전 왕비의 아들로 입적된다. 그러므로 숙빈 최씨는 연잉군의 사친(私親), 즉 생모일 뿐이었다. 예법에 의하면 머리를 풀어헤치는 피발(披髮)을 해서도 안 되고, 거친 생포로 만든 최복(衰服)을 입어도 안 되며 상기도 단상으로 마쳐야 했다. 그러나 연잉군은 경황이 없었고 국왕과의 소통도 잘못되어 일반인들처럼 피발을 하였고, 최복을 입고 상을 치렀다. 이 때문에 후에 숙종의 문책을 받고 해명서를 올려야 했다.

그런데 연잉군의 마음을 더욱 참혹하게 만든 것이 묘지 문제였다. 최초로 장지를 석관동 목장산으로 정했는데 숙종이 왕릉 터로 표를 해둔 곳이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주 신원리에 묘터를 잡았는데 산주인이 거부해서 쓸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광주의 세동에 터를 잡았지만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소 경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어서 양재동에 장지를 잡고 산 주인과 매매 계약까지 맺었는데, 숙종은 또 다시 그곳에서 태종의

헌릉이 보인다는 이유로 재가해주지 않았다. 생전에 숙빈 최씨가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았을지라도 정해진 예법과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그로 인해 연잉군이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차례의 실패 끝에 연잉군은 지관 목호룡과 김원명 등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양주군 고령동 웅장리를 장지로 확정했다. 그렇게 해서 숙빈 최씨의 유해가 묻힌 곳이 소령원이다. 숙빈의 묘는 장례 직후 묘표, 상석, 향로석 등의 석물을 설치하고 곡장을 들렀으며, 이후 제청을 건축하여 묘역이 대략 정비되었다. 당시에 그려진 「소령원도」와 「소령원화소정계도」, 「묘산도」 등 4종은 현재 보물 제153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후 1724년 8월 25일 경종이 승하하고 보위에 오른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에 대한 추숭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조는 숙종의 정비인 인원왕후 김씨의 아들로 입적되어 즉위했으므로 국법에 따라 생모 최씨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국조오례의』에 국왕의 사친(私親)에 대한 제사는 국가 의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조는 1724년(영조 즉위년) 국상에 따른 조정의 공식 애도 기간인 공제(公除)가 끝난 뒤 이진검의 주청에 따라 숙빈 최씨의 사당을 세우기로 하고 한양 북부 순화방에 있는 청릉군의 아들 이언형의 집을 구입했다. 경북궁 북쪽 산기슭 아래 숙빈의 사당인 숙빈묘가 완성된 것은 1725년(영조 1년) 12월 23일이었다. 영조는 또 양주 고령에 있는 숙빈 최씨의 묘소 입구에 신도비를 세웠다. 1734년(영조 10년) 2월 18일, 영조는 외할아버지 최효원을 영의정으로, 외할머니 남양홍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했다. 그해 6월 25일에는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의 호를 높여 묘호를 ‘육상(毓祥)’이라 하고, 묘호는 ‘소령(昭寧)’이라

했다. 1753년(영조 29년) 6월 25일, 영조는 숙빈 최씨에게 ‘화경(和敬)’이란 시호를 올린 다음 묘(廟)는 궁(宮)으로, 묘(墓)는 원(園)으로 하는 새로운 궁원제도를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숙빈 최씨 묘인 소령묘는 ‘소령원’으로, 사당인 육상묘는 ‘육상궁’으로 승격되었다.

이사주당(李師朱堂)³⁹⁾

이사주당은 세계 최초로 태교전문서인 ‘태교신기’를 저술함으로써 과학태교의 지평을 연 조선 후기의 여성 유학자이며 실학자이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이 62세(1800년)에 완성한 책으로 인성과 건강, 그리고 총명함을 갖춘 인재양성에 대한 꿈과 열정을 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18년 전에 현대의학에 비취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과학태교를 주창할 수 있던 것은 이사주당의 학문적 깊이와 실증적 연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태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보다 150년 이상을 앞 선 것으로 이사주당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예이며 태교 분야의 독보적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사주당이라는 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사주당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했다고 말 할 수 있다. 더욱이 역시 학문에 뛰어났던 남편 유태규를 만남으로써 천문, 산술학, 음악과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영추 소문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익히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더욱 넓어진 학문의 세계는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서 과학 태교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의 원천이 됐다.

39) 이 이사주당 항목은 아래의 글에서 편집자가 발췌하여 전재하였다. 박숙현, {이사주당의 학술적 결실 ‘태교신기’, 그 가치와 계승}[제2회 경기학연구자모임 연구발표자료집](유인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9.

태교신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희(柳愔 1773~1837) 등 4남매를 낳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서, 여성 교양서와 당시의 구전태교 등을 참조하여 독창적으로 저술했다.

사주당이 남긴 저술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태교신기가 유일해 연구자료 자체가 빈약한 형편이지만, 최근 아들 유희가 지은 ‘문통(文通)’에 ‘선비숙인이씨가장(先妣淑人李氏家狀)’이 포함돼 있어 이사주당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끝부분에 남편 유한규에게 답한 이사주당의 편지글 일부가 인용돼 있는바, 주자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는 견해에 반대하고 논어와 맹자의 성론(性論)으로 돌아가려 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글로, 이를 통해 여성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희의 ‘문통’에 부친 유한규의 ‘애오공시집(愛吳公詩集)’이 실려 있어, 이중 부부가 주고받은 시가 ‘규합창수록(閨閣唱酬錄)’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돼 이사주당이 남긴 시 전체 8제 9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주당은 한시를 여가로 여겨 한시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물론 묘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던 남편과 나눴던 성리문답이나 친정어머니와 주고받았던 편지꾸러미가 발굴, 연구된다면 보다 진척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문중의 의견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이사주당은 충청도 청주에서 출생했다.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의 11대손으로 직계 선대는 정치적으로 크게 이름을 떨친 이가 거의 없다. 조부인 이함부와 부친인 이창식은 벼슬을 하지 못했고, 다만 고조인 이천배는 한산이씨 이덕사의 딸과 혼인해 송시열과 동서간이다.

이천배 이후 두드러진 행적을 남긴 인물은 없고 부친은 좌랑 강덕언의

딸과 혼인해 2남 5녀를 뒀다. 사주당은 7남매 가운데 6째로, 남자 형제 모두 벼슬을 하지 못해 쇠락한 가계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 유희가 쓴 어머니 가장(家狀)에 따르면 “어머니의 고조는 우암 송시열의 우서였고 어머니의 친정은 회론을 힘써 도왔다. 우리 종조부는 약천 남구만의 향노(鄉老)로 우리 집안에서는 이론(尼論)을 높이 쳤다”고 했다. 회론은 회덕의 송시열을 따르는 노론을, 이론은 이성의 윤증을 따랐던 소론을 말한다. 곧 유희의 친가는 소론이며, 외가는 노론이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천배에게서 보이는 가문과 학문적 특성은 이사주당에게 영향을 끼쳐 주자학에 경도된 학문적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아들 유희에게도 적용되는 바라 하겠다. 이사주당은 어린 시절 이름날 정도로 길쌈과 바느질을 잘 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요구되는 여성상에 부합되는 유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으나 성장하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길쌈과 바느질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자각을 통해 책을 읽기 시작해 1년 만에 문리를 터득하고 그 후 사서삼경 등 경서를 섭렵, 청주 지역 이씨 문중의 남성들 가운데 이사주당을 능가할 자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한원진, 송명흠 같은 호서사림 거유가 이사주당을 대면할 수 없음을 한스럽게 여겼을 정도였으며, 근기의 후학들인 이면눌과 이양연은 사주당에게 나가 절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이사주당은 25세 때 21세 연상의 유한규와 혼인, 용인 모현면으로 시집왔다. 유한규는 3명의 부인과 사별한 후 혼인할 뜻이 없다가 사주당이 경사에 능통하고 행실과 재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라 여겨 칭혼했다.

진주 류씨는 원래 용인지역의 대표적 가문 가운데 하나로 모현면에 세거한 것은 중종대에 영의정을 지낸 유순정의 8세손인 진운의 묘소를 일산리에 조성하면서부터다. 그의 아들 수는 좌승지를, 정은 형조참판을 지낼 정도로 가문의 성세를 이뤘다. 그러나 이후 후손 가운데서는 과거급제자가 거의 배출되지 못하다가 시조부 유응운은 행(行) 안협현감을 지냈고, 시부 유담은 성균 생원에 그쳤다. 더구나 사주당이 혼인(1763)하기 전 을해옥사(1755)에 연루돼 집안이 영락했다. 유한규는 옥사에 연루된 유수의 조카라는 이유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났고, 그 동생 한기는 자살을 했다. 유한규는 정조 재위 때 경릉령을 거쳐 1779년 6월에 목천현감을 제수 받았으나 당시 관찰사가 조카인 李秉鼎이었으므로 親嫌을 이유로 그해 9월에 현감직을 그만두고 돌아와 1783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유한규와 사별한 사주당은 변변한 호미도 없이 밭을 일굴 정도의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아들 유희와 세 딸을 가르치며 학문에 힘썼다.

사주당의 학문 세계는 시집오기 전 이미 완성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사주당의 학문 세계는 철저히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다. 보통 여성지식인들이 출가 후 남편의 후원을 입어 재능을 발휘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녀는 실력을 갖춘 유학자였지만 여성이라는 굴레를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선비들조차 그녀에게 사사했다고는 하지만, 유학의 큰 흐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시대를 유평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선비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었다. 이는

남성들은 도달할 수 없는 별개의 세계로 이사주당은 생명을 만드는 태교를 통해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군자의 이상을 실현해 낼 수 있었다. 유학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여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주당은 마침내 1800년에 태교신기 저술이라는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태교신기 5장 2절에서 사주당은 “열 달을 노력해서 군자의 어머니가 되려하지 않는가”라며 어머니들에게 태교를 해서 군자를 낳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태교를 하면 군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주당은 태교를 위해 어머니 된 자가 열 달 동안 마음을 바르게 하기위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유교의 수양 덕목으로서 결국 이같은 태교를 통해 군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주당은 태교신기 4장 14절에서 태아와 어머니는 혈맥이 이어져 있어 어머니의 성품과 건강함과 총명함이 모두 태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사 삼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어머니가 군자 같은 행실을 해야 태아에게 군자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군자를 낳을 수 있는 태교법을 담고 있는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에게 있어 군자의 이상을 실현케 하는 교육서라는 의미와 함께 자신에게는 군자의 이상을 실현해 낸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교신기에는 “음악소리와 맛있는 음식은 예로써 절제해야 하는데, 군자는 그 가르침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제3장 1절)라든가, “옛 성인 역시 어찌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다르겠는가. 태교를 하고 안함의 차이이다”(제5장 2절)라며 자녀가 성인군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태교에 힘써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사주당에게 저술한 태교신기에서는 유학, 양명학, 실학의 복합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태교의 목적이나 경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촉구하는 측면에서는 유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평등사상 측면에서는 양명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실용적, 실증적인 태교를 주제로 한 실용서라는 측면에서는 실학에 다르다.

이사주당에게 있어서 태교신기는 그녀가 평생을 천착해왔던 유학의 최종 결정판이었다. 즉, 그녀는 자신이 평생 공부했던 경서의 내용을 태교를 통해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군자가 되는 길은 생명의 첫 시작인 태교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태교신기 저술은 그녀가 평생 매진했던 유학의 사생아가 아니라 유학의 정수, 옥동자임이 분명하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네 명의 자녀를 통해 증명까지 마쳤기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유희는 태교신기 발문에서 “일찍이 시험 삼아 너희 네 자녀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해보았더니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형체와 기질이 크게 어그러짐이 없었다. 이 책을 집안에 전함이 어찌 태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씀을 적고 있다.

조선후기에 여성들이 문집이나 실용서를 펴내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주당의 저술은 차원을 달리하는 태교 전문서였다.

내용은 물론이고 우선 태교 전문서를 펴내야겠다고 판단한 자체부터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당에게 있어서 태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구분하지 않고 욕망하는 마음 전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인간의 몸을 중시하여 몸의 기원이 되는 태아의 문제를 탐색했기에 그 탐색의 결과 태교신기를 집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어머니의 마음, 태교의 경험, 네 자녀를 통한 검증까지 더해져 태아의 건강과 총명함을 추구하는 실용서를 저술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초음파 기기와 같은 문명의 이기라고는 없는 조선의 두메산골에서 과학문명이 발달한 서양보다 앞서서 태교책을 저술한 것은 독보적 위치를 점한다고 할 것이다. 과학이 발달한 서양에서조차 태교는 고사하고 태아의 중요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던 시대에 그녀는 태교를 독립된 분야로 연구했을 정도로 생명의 첫 시작과 태교의 중요성을 꿰뚫었고, 더나가 전문서를 저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은 시대를 앞선 풍부한 식견과 판단력에 바탕하고 있다. 물론 당시 동양에서는 태교와 관련해서 열녀전 등에 어머니의 몸가짐 등에 대한 단편적 내용이 전해지고는 있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인성과 건강과 총명함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태교 전문서 사례는 없었고, 당연히 태교신기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조차 없는 독창적이고 실증적인 인문서이면서 과학서였다.

태교신기에 경서의 인용구들이 실려 있다 보니, 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것이라고 말하는 (의)학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유학자였던 사주당은 경서에 나와 있는 문구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 이해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태교를 서술하는 데 활용하거나, 태교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강조하기

위해 기존 경서의 문구를 인용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태교신기 음의서략을 쓴 위당 정인보는 “자기에게 실험하여 몸소 경험하신 것으로서 헛되이 이치에만 의존해 이론을 내세워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차라리 경서의 인용을 내용적 측면보다 서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실제 태교신기의 두드러지는 서술 방식 중 하나는 시경, 서경, 논어 등 경전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신독, 경이존심 등 조선 내내 중요하게 거론되던 심성 수양의 개념과 더불어 자작지얼과 같이 두루 통용되는 경계 내지 협박성 인용 또한 활용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경전 인용은 장이나 절에서 자신의 말을 맺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경전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며, 익히 알고 있을 법한 구절이나 개념을 삽입하거나 연상하게 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노리는 것이다. 이는 대개의 남성 문인들의 글처럼 한문 교양을 통한 설득과 논리를 갖춘 글쓰기를 지향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전의 인용은 자신의 글에 권위에 의거한 신뢰를 더하고 설득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태교신기를 언문으로 집필하지 않고 한문으로 저술한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태교신기는 여성 태교를 강조한 바 사주당은 당초에 남성까지도 독자대상에 포함하고 글쓰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지만 여성의 영역에 한정된 글쓰기가 아니라 남녀의 성별 구도를 넘어서는 생명과 관련된 보편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라는 점이다.

아들 유희는 어머니가 한문으로 써 놓은 태교신기를 언해⁽¹⁸⁰¹⁾해서

오늘에 전하고 있다. 유희에게 태교신기는 스스로의 삶을 지도한 경전 이상의 서적으로서 ‘절장구(節章句), 석음의(釋音義)’의 성경(聖經)으로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구를 분절하고 음의를 해석하는 일은 종래에 경전에 대한 훈고주석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던 것인데 유희는 그것을 모친의 저술에 시도했다.

사주당이 평생을 바라보며 달려온 오로지 한길, 유학의 정점은 바로 군자이며, 이를 교육하는 태교신기를 펴내는 것에서 사주당의 소임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육아독본인 교자집요(부전)를 지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군자 교육은 태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좋은 육아서는 존재하므로 자신이 첨부할 말이 없다고 판단, 오직 전해지는 바가 없는 태교신기만을 지어 후세에 남겼다. 그녀가 묘에 묻어달라고 한 세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격몽요결을 필사한 책이었다는 점에 미뤄 볼 때 그녀가 추구하고자 한 바가 더욱 확실해진다 하겠다.

사주당은 태교신기 1장 1절에서 사람의 성품을 다루고 있다. 태교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최초의 길잡이임을 보여주는 바, 태교는 바로 인문학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사주당은 태교신기에서 반복적으로 마음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인성교육 문제를 태교로부터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태교신기는 태교의 가치를 인성에 두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과학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 현대 임신부들이 아이의 총명한 두뇌를 기원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음악, 미술, 태담 태교 등 각종 실천적 태교법을 망라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사주당은 이 책의 내용으로 이미 천재 아들 유희를 낳고 나서 실증을 마친 내용을 추려 쓴 것이니, 매우 과학적인 태교책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의 임신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과학서로서 당시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위당 정인보는 이 책을 보기 위해 10년을 마음을 줄이며 찾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교신기는 부성태교, 가족태교, 과학태교, 평등성 등 몇 가지 특징을 추릴 수 있다. 여기서 부성태교, 가족태교라고 한 부분 역시 과학태교에 다름 아니다.

부성태교 부분에서 아버지 하루 낳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액의 낭비 없이 행복한 낳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부부간의 예절을 갖춰 행복한 임신에 해야 함을 강조한 바, 행복한 임신을 했을 때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연구되는 바이다.

가족태교 부분에 있어서도 시집살이가 본격화 된 조선시대에 가족들로 하여금 임신한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한 점은 획기적이다.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고 한 것은 현대 의학적 측면에서 매우 과학적인 내용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태교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후성유전학인 태아프로그래밍 이론에 관심이 높는데,

이같은 내용이 태교신기에 언급되고 있다. 당연히 사주당은 유전학과 상관없이 기술한 것이지만, 이미 태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태교신기 8장 1절에서 어머니 열 달의 영양 공급이 자식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밝힌 부분으로서, 이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최근의 과학태교 이론이라 하겠다.

계급사회에서 누구나 태교를 하면 훌륭한 군자를 낳을 수 있다고 한 점은 생명을 존중한 평등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사주당은 성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태교를 하고 안 함의 차이일 뿐, 비천한 자도 태교를 하면 어렵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태교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으니 오로지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휴머니즘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두뇌 발달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음악, 미술, 태담 태교는 물론 EQ태교, 인성(성품)태교, 걷기태교, 음식태교 등 다양한 태교법이 망라돼 있어 태교신기 한편으로 현대의 임신부는 마음의 수양과 동시에 각종 태교를 실천할 수 있다.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소현세자빈(1611~1646)의 성은 강씨이고 본관은 금천(衿川)이다. 시호는 민회빈(愍懷嬪)이나 일반적으로 강빈(姜嬪)으로 많이 불린다. 강빈은 1611년(광해군 3) 3월 5일 아버지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와 어머니 고령 신씨의 5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강빈은 정묘호란이 일어난 1627년(인조 5) 12월 17세의 나이로 소현세자와 가례를 올렸다. 강빈은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이석철(李石鐵), 이석린(李石麟), 이석견(李石堅)이고, 딸은 경숙군주(慶淑郡主), 경녕군주(慶寧郡主), 경순군주(慶順郡主)이다. 원손 석철은 1636년 3월 25일 조선에서 출산하였고, 2남 4녀는 청에 볼모로 가있는 동안 낳았는데 그중 군주 1명은 1640년 초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인조실록』 소현세자 졸기에는 3남 3녀로 되어 있으나, 이식(李植)이 지은 소현세자의 묘지에는 3남 4녀라고 되어 있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이듬해 세자 부부는 조선과 청나라 간의 화약조건으로 심양(瀋陽)으로 끌려가 8년간의 볼모생활을 시작하였다. 심양으로 가는 날 세자는 도성에 들어가 인조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으나, 강빈은 군영에 있다가 그대로 떠났다. 2개월 정도의 노정을 거쳐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 일행은 조선 사신이 묶던 동관에 머물다가 5월 청에서 새로

지은 관소로 옮겼다. 이 관소는 심양관이라고 불렸다. 세자 부부를 비롯하여 봉림대군 부부, 배종 신하와 질자, 딸린 가족 노비들까지 포함하면 심양관의 실제 상주 인원은 200명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볼모살이를 하는 동안 강빈은 심양관의 안주인이었다. 강빈은 세자가 관소를 비우는 경우에는 세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자는 청 태종의 명에 따라 사냥에도 나가고 명 침략전쟁에도 종군하였다. 청에서는 빈번하게 연회를 베풀었고 그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세자의 중요한 일이었다. 황제의 생일, 왕실의 혼사, 전쟁 승리의 축하연, 외국사절단을 맞는 연회, 왕실의 장례 등에도 세자는 참석해야 했다. 당연히 세자가 부재중인 관소에서 강빈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1646년 강빈이 역모로 몰렸을 때 ‘간여하지 말아야 할 바깥일에 간여하고 조정에 올리는 장계를 함부로 보고 고치고 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계를 보고 고친 일 또한 강빈이 세자를 대리하여 관소의 일을 주관했기 때문이다.

심양관에는 많은 인원이 상주하여 상당한 운영 경비가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식량과 찬, 일용품은 청에서 비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은 계속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심양 지역의 흉년과 식량난 때문이었다. 1638년에는 배종신과 질자들에게 찬물(饌物) 대신 호부에서 은 1천냥을 찬가(饌價)로 보내며 관소에서 구입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 1641년부터는 야판을 설치하여 관소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고 가축을 길러 찬으로 쓰게 하면서 찬가를 줄였다.

1642년부터는 청나라에서 준 땅에 직접 농사를 지어 양식을 조달하였다. 이에 심양관에서는 속량인(贖良人)을 동원하여 이를 경영하고, 식량과 경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은 청인들과 교역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 황실이나 귀족 여인들과도 일정한 교류를 하였다. 강빈은 청의 심양관에서 볼모살이를 했지만, 당시 왕실여인들과 달리 적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강빈은 왕실 여성으로는 드물게 8년 동안 심양에서 볼모살이를 하고, 귀국할 때 많은 재물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영 수완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강빈과 세지는 1644년(인조 22) 11월 귀국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세지는 채단 400필과 황금 19냥을 호조로 보냈다. 강빈 역시 실어온 진귀한 물건이 80바리였고 금수(錦繡) 금옥(金玉)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자 부부를 맞이한 인조의 태도는 싸늘하였으며 조정의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인조는 청나라가 친청(親淸)의 입장을 가진 소현세자를 즉위시키고, 자신을 폐위시킬까 의심하였다. 인조는 아들 내외를 냉대하여 결국 소현세자는 귀국한지 두 달 만에 학질을 앓다가 치료 중에 급서하였다. 인조는 세자의 상례를 예법에 맞지 않게 단상(短喪)으로 치렀다. 그리고는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 장성한 군주가 있어야 한다며 10살이 된 원손(元孫)을 제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세자로 세웠다. 1645년(인조 23) 궁중에서 조귀인에 대한 저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강빈이 이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되었다.

인조는 강빈의 옥사를 진행하기 전 인조는 강빈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세력들을 배제해 갔다. 우선 1645년(인조 23) 강빈이 인조의 총비(寵妃)인 조귀인을 저주하였다는 궐내의 1차 저주 옥사사건의 죄를 빌미로 강빈의 측근이나 심복인 궁녀들을 연루시켜 제거하였으며, 청 황제가 소현세자에게 하사한 명의 환관과 궁녀들도 다시 청으로 보냈다.

먼저 조귀인의 모계에 따라 강빈의 비단을 소지했던 궁녀 애란(愛蘭)이

제거되었다. 애란은 소현세자가 죽은 원인이 그가 북경에서 가져온 비단 때문이며, 이것들을 없애야 흉화(凶禍)가 그친다는 말을 어떤 무당에게 듣고는 강빈에게 전한 일이 있었다. 강빈은 비단을 애란에게 주었으며, 애란은 자기 방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이때에 조씨가 우연히 지나다 들른 것처럼 하고서 애란과 함께 비단의 숫자를 세는 척하다가 갑자기 일부러 방바닥에 쓰러졌다. 이때 인조가 그 사실을 알고는 크게 노하며 요망한 무당과 사통했다는 이유로 애란을 내옥(內獄)에 가두어 국문하고 마침내 절도(絶島)에 귀양 보낸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귀인의 모함이 작용하였다. 조씨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였던 순창 조씨 조기(趙琦)의 서녀였다. 조씨는 김두남(金斗南)의 서녀와 같이 인조의 시녀로 입궁하였는데, 조씨는 1638년 종4품 숙원에서 정4품 소원, 1640년 정3품의 소용, 1645년 10월 정2품 소의에 봉해졌으며, 1649년 귀인이 되었다. 특히 그녀는 1637년 효명옹주, 1639년 승선군, 1641년 낙선군 등의 2남 1녀를 출산하면서 인조의 총애는 물론 왕실 내 세력을 형성하였다. 인조가 장열왕후와 달리 몇 년에 걸쳐 자식을 낳은 것을 본다면, 조귀인이 일찍부터 인조의 총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귀인은 애란 사건 이전에도 궁궐 내 저주옥사에 관련된 적이 있었다.

1643년(인조 21) 당시 조귀인이 총애를 독차지하자 인조의 후궁이었던 상궁 이씨의 여종 애향이 조귀인을 저주한 일이 있었다. 이씨가 조귀인을 해치려한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귀인이 이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대목이 인조가 강빈의 궁인을 제거하는데 조귀인을 이용했다고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조귀인은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소의로 승격되었다.

애란의 옥사를 시작으로 강빈과 가까운 궁인들이 차차 제거되었다. 애란의 사건이 종결된 직후인 8월, 궁중에서 재차 저주사건이 발생해서 강빈 처소 궁인이 궁궐 안의 내옥에 안치되었다. 이때 궁녀 계향과 계환이 국문을 받았으나 모두 자복하지 않고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또한 상궁 최씨는 소현세자의 장자인 원손의 보모였음에도 고문으로 죽었다. 왕손의 보모는 장차 내명부의 종 2품인 봉보부인이 될 인물이었음에도 몰증 없는 심증만으로 재판과정도 거치지 않고 죽게 한 것이다.

강빈 처소 궁인의 저주 옥사는 소현세자 궁의 하녀 신생(辛生)이 고변하여 발생했다. 신생은 강빈과 가장 친밀했다. 그런 그가 대궐 안 여기저기 흉물 묻은 곳을 고발하여 사람의 뼈와 동(銅)으로 만든 사람 형상 등을 많이 발굴하였으며 궁 내외의 관련된 사람 10여 인을 지목하였다. 당시 68세나 된 강빈의 모친이 고문에 못 이겨 자복하자, 강빈의 오빠 강문성, 강문명도 강빈과 편지로 내통했다는 이유로 장살당했다.

인조는 자신의 왕비인 장렬왕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유고시에 왕대비로서 왕위 계승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숙부인 조계원은 심양에서 소현세자의 시장원 보덕이었고, 그녀의 가문과 강빈 가문은 신희의 자식들과 혼맥으로 얽혀있는 등 강빈 일가와 공적, 사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인조는 중전 역시 장애물로 인식하고 강제로 별궁인 경덕궁으로 옮겼다.

인조는 강빈 친족과 처소 궁인의 제거 외에도 강빈을 옹호하는 왕족과 관원들에 대해서도 견제하였다. 소현세자 사후 강빈에 대한 인조의 압박은 궁궐 내외에서 강빈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궁인과 관원은 그 지위를 막론하고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1646년(인조 24)에는 인조가 자신의 음식에 독약이 들었다는 핑계로 독살사건을 일으켰다. 인조는 독살의 배후로 강빈 처소의 궁인들을 지목하였다. 인조는 어명으로 궁인 정렬, 계일, 애향, 난옥, 향이, 천이, 일여, 해미 등을 내옥에 하옥시키고 환관이 국문하게 하였다. 그중 정렬 등 5명은 강빈의 내인이고 천이 등 3명은 주방 궁녀였다. 그러나 이들은 혹독한 국문과정에서 누구도 자복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중 정렬, 난옥 등 3명이 끝내 자복하지 않고 죽게 되자 국청을 파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인조는 강빈 조차도 후원의 별당에 유폐시켜 놓고 그 문에 구멍을 뚫어 음식과 물을 넣어주게 하고는 시녀는 한 사람도 따라 가지 못하게 하는 처분까지 내렸다. 대다수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결국 강빈을 사사하기에 이른다. 강빈 옥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3월 15일 강빈을 궁에서 폐출하여 사가에서 사사하고 교명죽책(敎命竹冊), 인(印), 장복(章服) 등을 거두어 불태웠다. 당시 의금부도사 오이규(鳴以奎)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빈을 데리고 선인문(宣仁門)을 통해 나가니, 민심이 수궁하지 않고 모두 조귀인에게 죄를 돌릴 정도였다. 강빈은 사사된 후에도 죄인의 몸이었으므로 남편인 소현세자의 곁에 묻히지 못했다.

인조는 강빈의 세 아들인 이석철, 이석린, 이석견을 제주도에 유배시켰다. 당시 이석철은 12세, 이석린은 8세, 이석견은 4세였다. 인조는 이들을 세 고을에 나누어 정배하였다. 세 고을에 흩어 놓고서 결국 죽을 때까지 형제들이 서로 만나지 못했다.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은 인조의 처사에 대해 기필코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결국 이석철이 죽어서 그

유골을 소현세자의 묘 곁에 장사지냈다. 석철이 죽은 지 2개월 후인 11월 26일에 둘째 석린도 병사했다. 인조는 손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자 수직하던 궁인들이 간호를 삼가지 않았다고 하여 옥진, 애영, 이생 등을 국문했다. 옥진은 공초에서 두 아이가 죽은 것은 토질 때문이지 보양을 삼가지 않은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죽었다. 인조는 셋째인 석견을 남해로 옮기도록 명했다. 강빈의 두 아이가 연거푸 죽은 것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효종 대에 이루어졌다. 효종은 즉위하자 강빈의 세 아들을 잘 보양하지 않아 죽게 한 김광택을 처벌하고 셋째 석견을 남해현으로 안치했다가 몇 개월 후 도성과 가까운 강화도 교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효종 재위 10년 만에 강빈의 자녀들은 군과 군주에 봉해졌다.

효종 때 황해도관찰사 김홍욱(金弘郁)이 소장을 올려 강빈의 신원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옳게 밝혀지면 종통(宗統)이 남은 아들 이석견에게 돌아가므로, 효종은 이를 목살하고 오히려 김홍욱을 죄인으로 몰아 장살(杖殺)하였다. 강빈은 1718년(숙종 44)에 이르러서야 복위되고 민회빈(愍懷嬪)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는 백성들이 그녀가 지위를 잃고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에서 취한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영회원(永懷園)이 그의 무덤이다.

의빈 성씨(宜嬪 成氏)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1753년~1786년)는 정조의 첫 번째 후궁이자 유일한 승은 후궁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 이름이 알려진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의빈 성씨는 황윤석의 『이제난고』에서 이름을 덕임(德任)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증 찬성 성윤우이고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 임씨로 통례원 종6품 인의로 재직한 임종주의 딸이다. 의빈의 7대 조부는 제릉참봉을 지낸 성만종(成萬種)이고, 고조부는 군자감 정을 지낸 성경(成景)이다. 의빈은 1753년(영조 29년) 7월 8일에 태어났는데, 친척이나 형제자매들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공조판서 정방의 첩이 성씨인데 의빈과는 고모와 조카 사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흥낙성 첩의 부친이라는 기록이 있어 자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의 「어제의빈묘지명」에는 “빈의 두 오라버니는 곤궁하여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심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두 명의 오빠 중 하나는 이름이 성식(成軾)으로 당시 어영청 군교로 있었는데 그나마 원자가 탄생하자 척족이라는 이유로 파직시켰다. 아버지 성윤우는 본래 승지 한준증(韓俊增)의 청지기[廳直]인데, 한준증이 사망한 뒤 홍봉한(洪鳳漢)의 청지기가 되었다. 한 때 한준증의 양자 한문홍의 덕분으로 재령의 수령을 지냈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7천냥을 범포(犯浦,

국고에 바칠 돈이나 곡식을 써버림)함으로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로 인해 의빈은 10세가 되던 1762년에 혜경궁 홍씨 처소의 궁녀로 입궁했다. 곧 혜경궁이 의빈을 궁녀로 거두어 친히 길렀고 의빈은 혜경궁을 모셨다. 헌종비나 철종비와 같이 자식이 없어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궁녀를 양녀처럼 키웠던 경우가 있었으나, 혜경궁은 의빈과 비슷한 나이의 정조, 청연공주, 청선공주 등 자녀가 셋이나 있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죽은 임오화변(壬午禍變, 1762년) 이후 아들 정조는 1776년까지 혜경궁이 있는 창덕궁이 아니라 경희궁에 머물렀다. 청연공주는 1765년에 출가하였으며, 청선공주는 다음해인 1766년에 출가를 하게 되어 3남매가 혜경궁을 자주 만나러 오기는 어려웠다. 그에 반해 의빈은 친정아버지의 청지기의 딸에 혜경궁 처소의 궁녀로, 늘 혜경궁 곁에 있을 수 있으며 3남매와 비슷한 나이대여서 혜경궁이 의빈을 자식처럼 기른 듯하다.

1773년(영조 49년) 봄, 정조의 여동생 청연공주(당시 20세), 청선공주(당시 18세), 의빈(21세), 궁녀 영희, 경희, 복연 이렇게 총 6명의 궁중 여인들이 『곽장양문록』(10권 10책)을 필사했다. 『곽장양문록』은 한글로 쓴 국문소설이며, 곽씨와 장씨 두 가문의 이야기로 필사 시기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필사 소설이라고 한다. 의빈은 혜경궁 홍씨가 딸처럼 기르는 궁녀였다. 때문에 혜경궁의 딸들인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친분이 있었고 필사를 함께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희, 경희, 복연이라는 궁녀들도 혜경궁의 처소 궁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빈 성씨가 필사한 부분의 하단에는 ‘의빈 글씨’라고 표기되어 있다.

1766년(영조 42년), 당시 왕세손이었던 정조가 승은을 내리자 울면서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여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죽음으로 거부하였다. 궁녀가 승은을 거부하는 일은 큰 죄이지만 정조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재촉하지 않았다. 의빈이 성장하자 혜경궁은 정조를 지극하게 따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의빈이 28세가 되던 1780년에 정조가 다시 승은을 내렸지만 거듭 사양했다. 이에 의빈의 하인을 크게 꾸짖고 벌을 내리자 정조의 승은을 받아들이고 후궁이 되었다.

정조가 15살이던 1766년(영조 42년)에 처음으로 고백했고, 1786년(정조 10년)까지 20년 동안 후궁의 반열에 두었다. 첫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정조는 15년간 후사를 위해 후궁 둘을 들었는데, 첫 번째 후궁은 홍국영의 누이동생인 홍씨로 13세의 나이에 빈으로 간택되어 정조의 첫 번째 간택후궁이 되었다. 그러나 원빈 홍씨는 그 다음해 1779년(정조 3) 5월 입궁 1년 만에 갑자기 죽었고, 1780년 3월 판관 윤창운의 딸인 윤씨를 정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간택하였다. 그러나 화빈 윤씨도 원자를 낳지 못했다. 『정조실록』 1781년(정조 5) 1월 17일에 보면 “화빈 윤씨가 임신했는데, 이날 산실청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왕비가 임신을 하면 산실청을 설치하고, 후궁이 임신하면 호산청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화빈 윤씨는 후사를 잇기 위해 명문가에서 간택해 입궁하였으므로 특별히 산실청을 설치하였다. 대개 산실청은 해산 6일 뒤에 철수되는데 반해, 화빈 윤씨의 산실청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30여 개월이나 지속되었다. 결국 화빈 윤씨는 30개월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

『이재난고』에는 1780년(정조 4년) 음력 12월 8일 당시에 의빈이 임신 중이었으므로 늦어도 1780년 음력 11월에는 첫 승은을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1781년 7월에도 임신 중이었다고 하는데, 문효세자가 1782년 9월

7일생이므로 첫째는 1780년 12월 8일 이후, 둘째는 1781년 7월 이후에 유산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어제의빈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을 때 내전(효의왕후)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울면서 감히 받을 수 없다며 사양하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정조)는 이를 받아들여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후궁(원빈 홍씨, 화빈 윤씨)을 뽑았고 다시 빈(의빈 성씨)에게 명하였으나 또 굳이 사양했다. 그 사속을 꾸짖고 별한 연후에야 비로소 스스로 명을 따랐다. 이후 임신하여 임인년(壬寅年) 9월에 원자(문효세자)가 태어났다. 이에 소용이 되었고, 아들의 귀함에 의빈이 되었다.

1782년 9월 7일에 의빈이 창덕궁 연화당에서 맏아들 원자(문효세자)를 낳았다. 이때 의빈을 딸처럼 키운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 복례와 유모 아지를 보내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이후 정3품 소용을 거쳐 정1품 의빈이 된다. 의빈의 빈호는 정조가 직접 정했다. 『한중록』에는 원자의 출산을 도운 공으로 몸종 복례는 시녀가 되고, 유모 아지의 자식은 관청에서 일하게 되어 후한 녹봉을 받았다고 한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閣臣)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궁인 성씨(成氏)가 태중(胎中)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受敎)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昭容)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하였다. 또 시임대신과 원임대신을 불러 보았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조종께서 우리나라를 돌보시어서 남아가 태어난 경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달은 우리 선대왕께서 탄생하신 달이고 우리 전하께서 탄생하신 달인데다가 왕자께서 또 이 달에 탄생하셨으니, 경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뜨락에서 문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명호(名號)를 정하기 전에 뜨락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을묘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의빈은 1784년(갑진년) 윤달 3월 20일에 옹주를 낳았다. 의빈과 정조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옹주는 불과 생후 2개월도 안 된 5월 12일에 경풍으로 죽어 작위도 받지 못했다. 문효세자 역시 2년 뒤인 1786년 5월 11일에 5세를 일기로 홍역으로 요절했다. 문효세자 사망 당시 셋째를 임신하고 있던 의빈 성씨 또한 앓기 시작해서 그 해를 못 넘기고 만삭의 상태로 창덕궁 중희당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재난고』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자 의빈도 죽었다고 하였다. 향년 34세였다.

문효세자가 홍서하는 상변(喪變)이 일어나자 당시 약방제조로 참여하였던 서명선과 이명식, 이문원과 서유방, 서유린 형제 등은 문효세자를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당시 의빈 성씨가

임신 4개월이고 10월이면 산기(産期)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때 이병정이 문효세자의 상변이 조제한 무리의 여얼(餘孽) 때문이라는 급서를 올렸다. 이 일을 꾸민 배후세력으로 조시위와 김상철, 김우진 부자와 훈련대장 구선복 및 그 일가인 구이점, 구명겸 등이 지목되었다. 이후 상계군 이담이 자결하자 외조부인 송낙휴의 고변으로 '상계군 이담 추대사건', '은언군 이인 추대사건' 등 건저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조시위와 관련해서는 화빈 윤씨가 의빈 성씨에게 은밀히 독을 써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독살설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화빈 윤씨의 궁호를 강등시키고 내쳤다는 내용이 있다. 화빈 윤씨의 외척을 자임했던 조시위는 이미 1782년(정조 6) 화빈 윤씨의 30개월 가짜 임신사건의 배후라는 혐의와 문효세자가 태어났을 때 “한 왕자의 출생이 무슨 큰 일이기에 이처럼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말한 혐의가 있었는데, 이때 와서 문효세자의 율목동 묘소를 의논하는 묘산(墓山)을 저지한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의빈이 사망하자 정조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다. 혜경궁은 정조의 슬픔이 너무 커 귀한 몸을 손상할까 애를 태웠다. 조정에서는 정조를 위로하며 정조 본인의 건강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에 문효세자, 의빈, 뱃속의 태아를 잃었으니 정조의 상심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정조실록』 의빈 성씨의 줄기에 의하면, 정조는 “의빈의 상례를 갑신년(1764년)의 예에 따라 후정(後庭) 1등의 예로 거행하라”고 분부했다. 9월 16일 중희당에서 의빈을 입관하고 안현(安峴)의 본궁(本宮)에 빈소를 마련했다. 11월 16일에는 영빈 이씨의 전례에 따라 궁(宮)과 묘(墓)의 제향이 정해졌고, 11월 20일에 효창원 왼쪽 언덕 임좌(壬坐)의 자리에 장사 지냈다.

정조는 의빈의 무덤을 아들 문효세자의 묘 왼쪽 산등성이 임좌의

언덕으로 직접 정했는데 의빈과 문효세자가 죽어서라도 못 다한 정을 나누고 함께 있기를 바라서였다. 후궁 보다 후궁이 낳은 자식의 신분이 더 높고 숙종이 숙빈 최씨의 묘 자리를 명선공주와 명혜공주의 묘 근처로 정할 수 없으니 다시 정하라는 명을 내렸던 일과 비교하면 파격적이었다. 더군다나 의빈은 문효세자의 생모여도 엄연히 후궁이고 문효세자는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정조 뒤를 이어 왕이 될 국본(國本)이었다. 본래 효창묘(1870년에 효창원으로 승격) 경내에는 어머니 의빈의 묘가 함께 있었는데 100보 쯤 떨어져 있었다. 효창묘 영역은 지금의 효창동, 청과동, 공덕동 일대로 묘역이 굉장히 넓고 송림이 울창했다. 효창묘 남쪽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있었다. 본래 의빈 묘는 곡장이 삼면으로 둘러져 있고 혼유석, 명등석, 망주석 한 쌍, 문인석 한 쌍, 묘상표석, 비각, 제각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의빈의 무덤은 서삼릉 내 후궁 묘역으로, 문효세자의 무덤은 의빈 무덤에서 2km 떨어진 의령원(懿寧園) 앞으로 강제 이장 당했다.

의순공주(義順公主)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는 ‘족두리 묘’로 불리는 의순공주(1635~1662)의 묘가 있다. 그런데 의순공주는 왕실의 후손이긴 하나 공주는 아니었다. 그녀는 본관이 전주, 이름은 이애숙이다. 아버지 이개윤은 성종의 4대손이며, 어머니는 이개윤의 계비 문화 유씨(柳氏)이다. 1650년(효종 1) 청으로 끌려간 의순공주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공녀(貢女)라 할 수 있다. 신익상은 의순공주의 무덤을 지나면서 그녀를 회은군의 딸처럼 왕소군(王昭君)에 비하였다.

玉顏當日嫁驕虜 당시 옥 같은 얼굴로 교만한 오랑캐에게 시집가
未老歸來葬故原 늙기도 전에 돌아와 고향땅에 묻혔다네.
何似明妃遺恨在 왕소군이 한을 남긴 것과 어찌 같겠는가
獨留青塚向黃昏 홀로 푸른 무덤에 머무노라니 황혼이 지네.

1650년 청나라의 최고 실권자인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이 조선에 국혼을 요구해왔다. 도르곤의 뜻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1650년 3월 5일이다. 사은사와 함께 북경에서 돌아오던 내관 나업(羅業)이 청의 사신 파홀내(巴訖乃, 호부상서) 등이 하는 말을 듣고 효종에게 보고한 것이다.

구왕(九王, 도르곤)이 부지(夫之, 부인)를 갖 잃어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국왕의 딸이 밋이며 몇 살인지 우리들이 모두 안다. 만일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대국에서도 전적으로 믿게 될 것이다.

나업은 현재의 공주는 두 살이라고 하니, 청의 사신이 공주의 나이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적합한 자로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한 대화 내용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도르곤이 조선에 국혼을 요청했을까? 표면적으로는 도르곤이 부인을 갖 잃어 조선의 왕실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효종은 즉위 후 김상헌, 송시열 등 반청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고 친청파 김자점을 탄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사정이 청에 알려진 것과 청의 사신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된 것, 그리고 도르곤이 혼인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현종개수실록』에서는 김자점 일파가 자신들이 밀려나게 된 것을 청에 기대어 만회하려고 꾸민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의순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개윤의 줄기에도 도르곤이 조선에 통혼을 청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고, 『숙종실록』에서는 송시열을 위리안치 했던 기사에서 그 사연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효종 경인년(1650)에 역적 익(錫)이 신면(申冕)의 피를 써서 몰래 북정[청]을 사주하기를 “김상헌 등 산인(山人)이 정권을 쥐고 구신들을 모조리 내쫓고는 장차 상국[명]에 내통하려고 한다.”하자 청주(淸主)가 크게 의심을 하여 연거푸 여섯 칙사를 보내 힐문을 하고 또 혼구(婚媾)를 청하였다.

기축년 뒤에 송준길과 함께 (임금의) 부름을 받아 김자점의 무리들을 탄핵하여 내보냈다. 이에 (김자점)의 무리들이 가만히 청나라 사람에게 (송시열을) 참조하여 오랑캐들 가운데 말이 돌기를 ‘동국의 송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하여 청나라 사람들이 요동에 군사를 주둔시켜 대비하였다. 이 때문에 정인년에 의순공주가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병자호란 패전으로 청에 끌려가 불모생활을 한 적이 있는 효종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효종이 신하들과 가부를 의논하니, 모두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제왕들도 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종실을 불러 딸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업을 시켜 허락한다는 뜻을 청의 사신에게 알렸다. 이틀 후 영칙례(迎勅禮)를 하는 자리에서 청사(淸使)가 두 통의 칙서를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는 섭정왕의 글이었다. 그 글 중에 혼사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파흘내와 기청고(祈靑古, 내원대학사) 등이 매우 비밀스럽게 여겨 좌우를 물리친 후에 왕에게 볼 곳을 청하였다

황부(皇父) 섭정왕은 조선국왕에게 칙유한다. 나의 여러 왕 및 패륜(貝勒)과 여러 대신들이 누차 아뢰어 ‘예로부터 번국의 참한 여인을 가려서 비로 삼은 전례가 있으니 대신을 조선으로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아 조선과 인친(姻親)을 맺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대신들을 보내어 인친에 관한 일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대 조선은 이미 우리와 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인친을 맺게 된다면 더욱 오래도록 견고하여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 근족(近族)이나 대신의 딸 중에 참하고 덕행이 있는 자가 있으면 선택해서 짐이 보낸 대신들이 (직접) 보고 와서 회주(回奏)하게 하라.

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청의 사신들과 조선의 대신들이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사신들은 대신들을 압박하여 대상자의 기준을 3품관까지 낮춰서라도 선발 인원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3월 20일 청의 사신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신을 만나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내전에 들어가 선발된 종실의 딸들을 보고 16세인 금림군 이개윤의 딸을 골라 행장을 꾸리게 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갈 때에는 대군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과 조신의 딸을 시녀로 충당하겠다는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파흘내와 기청고 두 사신은 먼저 돌아가고 나머지 사신은 머물다가 여인과 함께 돌아가기로 했다.

조정에서는 공조판서 원두표 등 4인을 혼례도감 당상으로 삼아 종실의 여인 행장 꾸리는 것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이 혼례는 단순히 왕실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중대사이므로 모든 절차나 형식상 소홀함이 없도록 명하였다. 청은 의순공주 일행을 호행할 사신단의 대군으로는 인평대군이 맡아줄 것을 원했으나, 조선에서는 국내문제로 인평대군은 갈 수 없고, 대신 영양군 현(愼)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양군 역시 부친의 병으로 호행할 수가 없다고 하여 결국 공조판서 원두표가 호행사로 결정되었다.

효종은 신붓감으로 간택된 이개윤의 딸을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는 뜻으로

의순(義順)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공주로 봉했다. 그의 아버지 이개윤에게는 가덕(嘉德)의 품계를 더하고 비단과 미두(米豆)를 후하게 내렸으며, 오빠 이준(李濬)에게는 장릉참봉, 이수(李洙)에게는 전설사별검의 직을 제수하여 멀리 이별하는 정을 위로하였다. 4월 19일 섭정왕 도르곤이 정숙하고 아름다운 왕녀와 결혼(結親)하게 된 것에 대한 예물을 보내고 산해관에 수렴하러 행차할 것을 알려왔다. 의순공주는 용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개 또한 남달랐다고 한다. 정조 때 서유문이 북경에서 보고 들은 일을 적은 『무오연행록』 제1권, 11월 21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청나라의 구영개가 늦게 상처하고 우리나라 종실에 구혼하였다. ... 청나라에서는 총관 정명수를 보내 의순공주를 맞이해 갔다. 정명수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으로 죄를 지어 청나라에 들어가 총관이 되어 우리나라에 나오면 그 악행이 비할 데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도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이때에도 나와서 또 옛날처럼 악행을 많이 저질러 재물을 많이 빼앗고자 했다. 그러자 금림군의 딸이 몸가짐과 차림새를 위엄 있게 갖추고 정명수를 불러들여 꾸짖기를 “내가 들어가서 섭정왕에게 여쭙면 네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네가 감히 마음속으로나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곤장을 칠듯하니 정명수가 겁을 내어 죽기로 간청하였다.

의순공주 일행은 4월 22일 원두표를 위시하여 시녀 16명과 여의(女醫), 유모 여러 명을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효종이 서교에 나가 의순공주를

전송했는데, 이를 본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비참해 했다고 한다. 도르곤은 패륜들과 사냥을 한다고 산해관 밖으로 나와 있다가 5월 21일 의순공주가 도착하자 연산(連山)에서 맞이하여 당일 성혼(成婚)하였다.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6처 4첩 중 여섯 번째 비가 되었다.

의순공주는 공녀로 끌려간 것도 불행이었으나 또다시 불행이 닥쳤다. 같은 해 11월 9일 도르곤이 사냥하러 갔다가 객라성(喀喇城)에서 갑자기 사망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12월 9일 이후 ‘도르곤이 은밀히 황제 자리를 엿보았고, 황포를 준비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묘를 파내 부관참시한 후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의 여러 처첩들도 제왕에게 분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해인 1651년 3월 17일에는 섭정왕의 모반 내용을 알리는 칙서가 조선에 전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죄상을 밝히는데 앞장섰던 화석단중친왕(和碩端重親王) 박락(博洛)에게 보내졌다. 그런데 엮힌 데 덮친 격으로 1652년 박락마저 사망했다. 의순공주는 과부로 살고 있다가 1655년 청에 사신으로 온 아버지 이개윤의 간청으로 순치제의 허락을 받아 귀국하였다.

배신 금림군 이개윤의 딸이 과부로 살고 있으면서 부모형제와 멀리 이별했으니 내가 측은하게 여긴지 오래되었다. 또한 이 여인은 왕에게 이미 종친이 되고 또 어루만져 길렀으니 왕이 늘 마음에 둬서 실로 깊은 것이다. 지금 개윤이 공물을 바치느라 조정에 와서 그 딸을 보고자 주청하니 전부터 가엾이 여긴 나의 뜻이 더욱 절실했다. 이에 특별히 태자태보 의정대신 합십둔칙(哈什屯則)을 보내 귀국하게 하고 친척에 의지하여 지수(自守)토록 하니

왕은 그리 알라.

그러나 『효종실록』 효종 7년 5월 10일자에는 금림군 이개윤은 사신으로 가서 사사로이 딸을 돌려줄 것을 청했다는 이유로 삭탈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쫓겨 가는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

대사간 조한영(曹漢英)과 사간 심세정(沈世鼎) 아뢰기를, “의순공주(義順公主)가 청나라로 간 것은 조정의 명령 때문이었으니 의순공주가 돌아오는 것도 또한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금림군(錦林君) 이개윤(李愷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조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호군 이행진(李行進)과 전 정(正) 이지무(李枝茂) 등은 못하게 말리지 않고 도리어 찬성하였으며 말할 때에도 또 망발이 많아 사신의 임무를 형편없이 수행하였으니 그들의 죄도 똑같습니다. 어찌 파직만 시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하고 여러 번 아뢰자, 상이 따랐다.

귀국 후 의순공주는 호조에서 매달 쌀을 지급받으며 살다가 1662년 8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온 의순공주는 6년도 채 못 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녀의 나이 불과 28세였다.

그런데 『효종실록』, 『현종실록』 등에는 의순공주의 아버지가 청국에서 보내온 비단에 눈이 멀어 자칭해 딸을 보내 부자가 되었다거나 의순공주가 도르곤에게 소박을 맞았다가 그 부하에게 시집갔다는 등 그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효종실록』에서는 효종이 “선택에 적절한 처녀를 아직껏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면 좋겠는가.”하니 종부시제조 오준이 아뢰기를 “일찍이 성상의 하교를 듣고 금림군(錦林君)이 스스로 말하기를 ‘딸이 있는데 자색(姿色)이 있다.’고 하였으니 선택에 적절할 듯합니다.”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처녀를 은닉하려고 급급했는데 비해 금림군은 스스로 딸이 있는데, 자색(姿色)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금림군이 직접 효종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종부시 제조 오준의 말이니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의순공주가 청으로 갈 때 아버지 이개윤에게는 가덕(嘉德)의 품계가 더해지고 비단과 미두(米豆)를 후하게 내렸으며, 오빠 이준(李浚)에게는 장릉참봉, 이수(李洙)에게는 전설사별검의 직을 제수하였다. 도르곤이 정혼에 대한 결친의 사례로 보내온 예물 중에서도 채단 40필과 은 1000량은 금림군에게 배분되었다. 의순공주를 청으로 보내면서 효종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순공주가 소박을 맞았다는 것은 도르곤이 트집을 잡기 위해 공주가 불미하고 시녀가 추루하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하에게 시집갔다는 것은 도르곤의 사후 박락에게 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청국으로 가던 의순공주가 평안도 정주에서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는데, 시체가 떠오르지 않자 그녀가 쓰던 족두리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의순공주가 오랑캐와 혼인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정절을 지켰으면 하고 민간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의순공주를 주제로 한 ‘의순공주 대제’가 열리고 있다. 이 대제는 기구한 삶을 살다 떠난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는 ‘굿’으로 진행되며, 2015년에 의순공주 대제 재연행사가 의정부시 향토 무형문화재 17호로 등재되었다. 2016년에 제13회를 맞은 의순공주 대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당제와 함께 실시되었다. 2010년에는 ‘뮤지컬 의순공주’가 제작되어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되었다.

바우덕이[金巖德]⁴⁰⁾

바우덕이는 열 다섯 살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자로서 남사당패 우두머리인 꼭두쇠가 되어 남사당패를 이끌던 천재 예인이다.

1848년 안성의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1853년에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불당골에서 남사당패에 맡겨져 줄타기, 살판 등의 남사당 놀이를 익히게 된다. 바우덕이가 15세 되던해에 안성 남사당패의 꼭두쇠가 연로하여 새로운 꼭두쇠를 선출할 때 바우덕이가 어린 나이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이후 바우덕이가 이끄는 남사당패는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1865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에 지친 노역자를 위로하기 위해 남사당패를 불러서 공연을 펼쳤는데 그 때 뛰어난 공연으로 고종과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3품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하사받는다. 이것이 바로 안성남사당패 영기에 걸어준 옥관자였다. 당시로써는 상상하기 힘든일이었다. 유랑 천민집단이 당상관의 고관벼슬을 받은 것도 그러려니와 일개 놀이패에 벼슬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우덕이가 공연을 할 때는 얼마나 신명이 났던지 공역장들은 등짐에 짐도 지지않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얼수 얼썬’ 흥을 어우르기만 했다는 일화가 전하니 옥관자를 내린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마음이 이해된다.

40) 편집자가 참고문헌에서 발췌하였다.

이렇게 정삼품을 받은 사당패 깃발을 앞세우고 가면 전국의 모든 사당패가 만장기를 숙여서 예의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당상관에 대한 예우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전국 공연단체 중에서 대장 역할을 담당한 바우덕이가 이끄는 안성 남사당 패는 전국 어디에서건 공연이 가능한 최초의 전국구 공연단체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때부터 바우덕이가 이끌던 안성 남사당패는 “바우덕이”라는 인물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바우덕이는 평생을 전국을 돌면서 남사당을 대중공연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힘든 유랑 생활 속에서 폐병을 얻어 1870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에 무덤이 있다.

바우덕이와 관련해서는 일화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하다.

안성 지방에 한 부유한 양반 가문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는 근동에 악명이 자자한 난봉꾼 외아들이 있었다. 천성이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데다가 집안이 풍족하여 씩씩이가 헤프다 보니 근방의 한량들이 모두 다 그를 따라다녔다. 집안에서는 늦게 얻은 아들의 이러한 좋지 못한 행실이 큰 골칫거리였으나 아무리 타이르고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으니 부모의 시름은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도령은 저잣거리에서 구경을 나섰다가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남사당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놀음판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떠들썩하고 흥겨운 분위기에 도대체 무슨 놀이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호기심에 구경꾼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도령은 줄을 타는 바우덕이의 자태를 보고 첫 눈에 넋이

나가고 만다. 놀이가 끝난 후 도령은 마을을 나가는 남사당패를 쫓아가 줄을 타던 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 달라고 조르지만 무리의 꼭두쇠는 그 아이는 돈을 받고 놀음을 피는 아이라며 맨입으로는 만나게 해 줄 수 없다고 매정하게 거절한다. 어쩔 수 없이 도령은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 남사당패에게 주고는 자정 무렵 한식경 정도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허락을 얻어낸다.

이날부터 도령은 매일매일 가진 돈을 털어 남사당패의 꼭두쇠에게 쥐어주고 밤마다 바우덕이를 만난다. 바우덕이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소리도 잘하고 재치도 있으며 농지꺼리도 잘하고 희롱짓도 서슴없이 받아주는 여자였다. 그러나 정작 서로 수작을 부리다가 관계를 맺으려 하면 어김없이 몸을 빼어 시간이 다 되었다는 핑계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욕심낸 여자를 품지 못한 적이 없었던 도령은 점점 더 몸이 달아 바우덕이의 치마폭에 점점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게 되었으나 바우덕이는 여전히 도령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도령은 바우덕이에게 도대체 어찌하면 너를 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바우덕이는 정색을 하고 대답하기를 자신은 천출이라 어려서부터 양반들에게 많은 설움을 당하며 살았으니 나를 첩이 아니라 정실로 맞는다면 몸을 허락하겠다고 한다. 이것만은 제 아무리 바우덕이를 탐내는 도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도령이 난색을 보이자마자 바우덕이는 내가 비록 재주를 팔아 연명하는 천한 계집이지만 나를 한 때의 유흥거리로 생각하는 남정네와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며 매서운 기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당황한 도령은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것은 천하없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 그것 말고 다른 것이라면 무엇이든 듣겠다

하였다. 그러자 바우덕이는 짐짓 노기를 풀고 말하기를, 내 들으니 양반 가문의 안주인에게는 대대로 전해지는 보물이 한 가지 있다고 하니 그것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양반택 머느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도령은 며칠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집안의 안주인에게 전해지는 오래된 옥가락지를 훔치고 만다.

옥가락지가 없어진 사실에 집안은 발각 뒤집히고, 엉뚱한 행랑채 계집종 하나가 옥가락지를 훔친 누명을 쓰고 모진 매를 맞고 죽는다. 도령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가자 당혹감을 금하지 못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반드시 바우덕이를 품고 말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바우덕이와 남사당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밤마다 방 문 밖에서 흐느껴 우는 여자의 곡성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결국 도령은 부모에게 자신이 바우덕이에게 눈이 멀어 어머니의 옥가락지를 훔친 사실을 이실직고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자식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부모의 꾀였다. 도령은 그제서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바우덕이에게 깊이 사죄하였다.

김향화(金香花)

김세민(전 하남역사박물관장)

「매일신보」 1919년 1월 29일자에는 지난 1월 21일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수원군 인사들은 물론 화류계에서도 일절 가무를 중지하고 엄숙히 근신하였다. 20여 명의 수원기생들은 17일 성복에 참례하기 위해 깃당목의 소복과 나무비녀를 꽂고 집신으로 오전 8시 수원 발 기차로 직행하여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水原妓生の 成服參禮 깃옷에서 집신으로-

리트 1왕 던하시니○、며서 의외에 흥거흥、읍신 일이 발포된 후 수원군 인사들은 물론이요 화류계에서도 일절 가무를 정지흥、고 엄숙히 근신 중이던 바 동군 이십 여명의 기사니○들은 십칠일 성복에 참례키 위흥、야 깃당목의 소복과 나무비녀를 시니고 동일 오전 팔시 수원발 기차、로 즉 흥니○흥、여 대한문전에서 망곡을 흥、앗더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승하했으니 가무를 중지하고 근신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양반이나 일반 백성도 아닌 수원기생 20여 명이 성복에 참여하기 위해 소복을 하고 서울까지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했다는 것은 기사가 될 만한 일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그로부터 꼭 2개월 후인 3월 29일 수원 자혜병원 근처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친 수원기생 30여 명이 있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수원기생 김향화(1897~?)이다. 김향화는 본명이 순이(順伊)로 189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기생이 된 후에는 향화(香花)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918년에 발행된 『조선미인보감』에는 수원예기조합 기생 32명과 함께 김향화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 있다.

『조선미인보감』 우측에는 원적과 현재 주소, 이름과 나이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적은 경성부, 주소는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202번지, 이름은 김향화, 나이는 22세로 되어 있다. 가운데에는 김향화의 사진이 있고, 좌측에는 기예(技藝)가 쓰여 있는데, 검무, 승무, 각정재무(各呈才舞), 가사, 시조, 경기잡가, 서관리요, 양금이라고 되어 있다. 아래 우측에는 한시형식을 빌어 적은 다음, 좌측에는 특징적 면모를 함축하여 8·8조의 국문가사로 표현하였다.

은갓 계책으로 봄을 머무르게 하되 봄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만금은
꽃을 애석해 하지만 꽃은 사람을 애석해 하지 않아, 나의 푸른 쪽진 머리, 주홍
소매를 쥐고서 한번 넘어지면 이십 광음이 끝나도다. 누가 가곡이 능히 근심을
능히 풀 수 있다 말하는가. 가곡은 일생의 업원이로다(百計留春하되 春不留人하고
萬金惜花하되 花不惜人하야 把我綠鬢紅袖하야 一直蹉跎了兩十光陰이로다. 誰道歌曲이 能解愁
오 歌曲是一生的業冤이로다).

본디 경성 성장으로 화류 간의 꽃이 되어 삼오 청춘 지냈구나. 가자 가자 구경
가자. 수원 산천 구경 가자.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기생조합
이름 좋네. 일로부터 김향화도 그곳 꽃이 되었어라. 검무, 승무, 정재 춤과 가사,
시조, 경성잡가, 서관소리, 양금치기, 막힐 것이 바이없고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주근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 동동 중등
키요 성질 순화 귀엽더라

(본디 경성 성장으로 화류간의 꽃이 되어 삼오 청춘 지냈구나. 가자 가자 구경가자 수원산천
구경가자 수원이라 함.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기생조합 이름 좋네. 일로부터 김향화도
그곳 꽃이 되었어라. 검무승무정재춤과 가사우조경성잡가 서관소리양금치기 막힐 것이
바이없고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죽은 시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 동동 중등키요 순화귀엽더라).

『조선미인보감』은 경성 조선연구회에서 발행한 화보집으로 권번과
기생조합의 기생들을 홍보하기 위해 발간된 자료다. 이 책은 아오야나기
고타루(青柳綱太郎)와 지송옥(池松旭)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수원기생들의 출신, 약력, 기예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원기생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책에 소개된 조선
예기 611명 중 수원기생은 김향화를 포함해 서홍도, 이금희, 손산홍, 신정희,
오산호주, 손유색 등 총 33명이다. 수원기생조합은 191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식명칭은 '수원예기조합(水原藝妓組合)'이다. 수원박물관 자료에
의하면, 수원예기조합은 수원면 남수리에 있었는데, 지금의 화홍문 아래
수원천을 따라 있는 남향동 일대라고 한다. 1929년의 「매일신보」에는 수원기생
김옥진(金玉珍)이 주인 김정한(金正漢)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경성으로 도주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김정한의 주소가 남수리 232번지이므로 위치 추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기생의 나이는 15세 2명, 16세 2명, 17세 5명, 18세 4명 19세 6명,
20세 4명, 21세 2명, 22세 5명, 23세 3명으로 나이가 가장 어린 기생이 15세,

나이가 가장 많은 기생은 23세였다. 김향화는 당시 22세였으므로 많은 축에 들었다. 원적은 경성부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대구부 1명, 평양부 1명, 진주군 6명, 공주군 2명, 전주군 2명, 장성군 1명, 양주군 1명, 동래군 1명, 아산군 1명, 창원군 1명, 의성군 1명이었다. 기예는 시조가 33명으로 수원조합의 기생 전부가 시조를 기예로 다루고 있다.

수원 기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김향화를 중심으로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수원 기생들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일어났다. 김향화는 당시 수원군 자혜의원(慈惠醫院,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기생 3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당시 수원예기조합 출신인 김향화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혜의원으로 가던 중 자혜의원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귀가할 때도 역시 독립만세를 주도하여 의기(義妓)로서 기상을 높였다. 자혜의원 앞에는 수원경찰서가 있어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차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은 일제의 총칼에 개의치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당시 나이 23세의 기생 김향화는 이 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만세운동 주모자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2개월 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1919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 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해져 옥고를 치렀다. 재판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김향화의 의로움을 지켜보았다. 「매일신보」 1919년 6월 20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원기생시조 김향화나, 나 기왕 수원 소요시에 태극기를 들고 여러 기

시조를 다리고 경찰서 문압해서 만세를 불렀나, 나 나 그후 경찰서에 검거 되어 2개월을 맞치고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긴 바 북촌검사의 심리하, 나 결과 지난달 이십칠일 공판 기정하, 나 후 보법위반으로 징역 팔개월을 구형하, 나 바 유죄 기판사로서 증역 료기월의 공판을 언도하, 앗나, 나 나 방청석에 사람이 가득하, 앗더라.

수원의 3·1만세운동은 치열했다.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그 와중에 3월 28일 시위대가 수원경찰서 순사부장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군 송산면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서 수원경찰서 순사부장이 시위대원에게 총상을 입히고 달아나자 군중들이 뒤쫓아가 순사부장을 돌과 몽둥이로 살해한 것이다.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던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다. 일제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사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고문을 가하던 시점에 기생들이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기생들의 3·1만세운동은 수원뿐만 아니라 진주, 해주, 통영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자에 의하면, 진주의 경우 지금도 진정이 안 되고 점차 소요가 일어날 형세가 있는데, 19일에는 진주기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행진하자 이에 참가한 노소 여자가 많이 뒤를 따랐다고 하며, 주모자 6명의 검속으로 해산은 되었지만 여전히 각처에 모여 있어 불온한 기세가 충만하다고 보도하였다.

기생시조가 압서서 형세 자못 불온

진주나, 나 지금도 오히려 진정이 안되고 작구 소요가 일어날 형세가 잇나,

그런데 1908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기생들은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화되었다. 일제는 예능은 팔지만 몸은 팔지 않는다는 기생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것이다. 기생들은 이미 성병검진이라는 모욕적인 대우 등에 항의하여 동맹휴업을 단행하는 등 일제의 정책에 저항하고 있었다. 수원기생들이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게 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생들이 왜 3·1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원래 조선시대 기생은 사신접대나 궁중잔치 때 여악(女樂)으로써 흥을 돋우는 일을 본업이었다. 그래서 기생은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익히기 위한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적 예인(藝人)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한말 이래로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생긴 유곽에는 '성매매'만을 전업으로 하는 일본식 창기(娼妓)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조선 전역에 퍼지면서 기생을 사칭하고 다니게 되었다. 이제 기생이란 말은 더 이상 직업적 예인만을 뜻하지 않게 되었다. 몸을 파는 천한 여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덧씌워지게 된 것이다.

창기를 모두 기생이라 부르는데 대한 기생들의 반감은 매우 컸다.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닌 자신들이 몸을 팔아먹고 사는 천한 창기와 동일시되는 현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옛 기생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생들은 자신들만 쓸 수 있는 홍양산을 창기들이 쓰고 다니자 경무청에 물려가 항의도 하였고, 창기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양산에 기(妓)자를 금색으로 새겨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908년 통감부는 창기에게만 시행하던 성병검진을 기생에게도 의무화함으로써 기생을 창기시하였다. 기생들은 일제에 의해 창기 취급을

받으면서 경시청의 통제를 받았고 모든 기생들은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화되었다. 일제는 예능은 팔지만 몸은 팔지 않는다는 기생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것이다. 기생들은 이미 성병검진이라는 모욕적인 대우 등에 항의하여 동맹휴업을 단행하는 등 일제의 정책에 저항하고 있었다. 수원기생들이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게 된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에서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은 그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매일신보』 1919년 11월 2일자에는 김향화가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7일에 가출옥되어 수원으로 돌아왔다고만 보도되었다.

金香花의 出獄, 소요범인 수원기생 김향화, 기왕 본지에 계신 김향화, 수원기생 김향화 『金香花』(23) 소요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여러 기생들과 만세를 부르고 검거되어야 증역 룩월의 언도를 맞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7일에 가출옥되어 수원 제집으로 도라왔다더라

김향화는 2009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독립유공자 표창장과 표창메달은 수원박물관 근대인물 코너에 전시되어 김향화의 민족정신을 기리고 있다.

4부

일제에 항거한 여성독립운동가

김씨(홍원식 부인)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순국하였다. 1877년 10월 13일에 태어나 1919년 4월 15일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鄉南面 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이날 남편 홍원식과 함께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로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3명이 부상하였다. 분노한 시위군중은 돌을 던지며 대항하여,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일본인 거주자들도 부상하였다.

이렇게 되자 수원(水原)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이 대량으로 파견되어 보복적인 검거작업을 벌였고 그후에도 제암리(堤岩里) 일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가 인솔한 20여 명의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민간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基督教), 천도교(天道教)인 약 30명을 제암리 기독교 교회당에 모이게 하였다. 이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교회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아리타 도시오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만행으로 23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어 고주리에서 6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그들의 학살만행 현장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4월 17일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schofield)는 현장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어,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양식있는 일본인들조차 분격케 하여 「저팬 애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와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등은 학살사진과 목격자의 증언까지 곁들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때 그녀는 일제의 만행으로 그녀의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2권

김씨(강태성 부인)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순국하였다. 1899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1919년 4월 1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鄉南面 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이날 남편 강태성과 함께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로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3명이 부상하였다. 분노한 시위군중은 돌을 던지며 대항하여,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일본인 거주자들도 부상하였다.

이에 수원(水原)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이 대량으로 파견되어 보복적인 검거작업을 벌였고, 그후에도 제암리(堤岩里) 일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군 중위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가 인솔한 20여 명의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민간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基督教)·천도교(天道教)인 약 30명을 제암리 기독교 교회당에 모이게 했다.

이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교회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아리타 도시오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만행으로 23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어 고주리에서 6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학살만행 현장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하여, 4월 17일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schofield)는 현장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어,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양식있는 일본인들조차 분격케 하여 「저팬 애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와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등은 학살사진과 목격자의 증언까지 곁들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때 그녀는 일제의 만행으로 그녀의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2권

박금녀 朴金女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 민락동 462번지 출신이다. 활동 무대는 중국 안휘성 부양(阜陽)이었다. 1926년 10월 21일 태어나 1992년 7월 28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광복군 제3지대 1구대 본부 구호대(救護隊)에 입대하여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5권

박순애 朴順愛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고양군 지도(知道) 행주내리(幸州內里) 출신이다. 활동 당시의 주소는 경성부(京城府) 연지동(蓮池洞) 정신여고(貞信女高)기숙사이다. 1900년 2월 2일 태어났으나 사망연도는 미상이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박순애는 서울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1919년 12월 28일과 30일 전북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화산리(華山里)에 있는 사립 기전여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기숙사에서 김공순(金恭順) 등 수 명을 만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고 1920년 1월 5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4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10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22권

소은명 邵恩明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연천군 군내면 남계 102번지 출신이다. 활동 당시 주소는 서울 배화여학교 기숙사이다. 1905년 6월 12일 태어났으나 사망년도는 알 수 없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여학교(培花女學校) 재학 중 학교 뒷산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충애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수원에 근대적인 여성학교 삼일여학당이 1902년 6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의 선교사인 스크랜턴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에 학생은 3명으로 출발하였다.

1910년 3월 23일 제1회 졸업생 중에는 나혜석(1986년생)과 박충애(박승호), 차우르다, 홍보배(1898년생) 등 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수원의 유지집안의 딸들었으며 홍보배와 차우르다는 수원의 명문가인 남양 홍씨와 연안 차씨의 딸들이었다.

당시 삼일여학당 선생인 김메례의 딸인 박충애는 삼일여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서울 이화학당으로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였다.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강원도 원주감리교회 부속초등학교 교원으로 일하였으며, 일본에 유학하여 요코하마 여자신학교를 다닌 후 평양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여성의 생활과 정체성』수원시사 13, 2014.

신경애 申敬愛 申慶愛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개풍 영남면(嶺南面) 용흥(龍興) 1448번지 출신이다. 활동 당시 주소는 서울 현저동 105-11이다. 1907년 9월 22일 태어나 1964년 5월 13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신경애는 개성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부터 중앙여자청년동맹·근우회(槿友會)·신간회(新幹會)의 회원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였다. 1927년 5월 27일 전여성의 통일기관으로 결성된 근우회(槿友會)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다.

1927년 4월 16일, 중앙여자청년동맹 제1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선출되어 서무부원으로 4월 25일 제1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9월 8일에는 근우회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2월 12일 서울청년회 수제회(首題會)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8년 7월경, 근우회 임시대회에 경성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였다. 7월 30일 근우회 경성지회 수제회에서 정치문화부를 맡게 되었다. 9월 10일 근우회 본부 및 지회 연합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관북지역 수해 동정금 모집 위원에 선출되었다. 12월 18일 신간회 광주지회 기금부(基金部)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가 경운동

천도교기념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광주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였고, 경기도 전형위원회에 선임되었다. 1929년 9월 10일 광주 흥학관(興學館)에서 조선청년총동맹 전남 도연맹 제2년 제2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회에 선임되었다.

1930년 10월을 전후하여 만주에서 국내로 들어온 오산세의 지도를 받아 경성제국대학생 유기춘(柳基春)·황봉순(黃鳳舜)과 함께 1931년 3월 하순경 공청가두(街頭) 야채이카를 조직하였다. 이 즈음에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가 결성되었다.

1931년 4월경 신철(辛鐵)·정종명(鄭鍾鳴, 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 중앙상무위원)·이적효(李赤曉, 경성청년회 집행위원)와 함께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전날 4월 30일에 서울에서 일제히 공장이나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격문을 뿌려 노동운동을 선동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발각되어 4월 22일에 용산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신경애는 5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7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8월 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12월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에 주력하던 중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독립유공자공훈록』18권

신마실라 申麻實羅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가평군 읍내 654번지 출신이다. 활동 당시의 주소는 미국 워싱턴이다. 1892년 2월 18일 태어나 1965년 4월 1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구제회 서기로 한국독립을 촉구하는 순회강연을 하였고, 1928년 뉴욕과 1931년 필라델피아에서 3·1절기념식에 참가해 연설하였다.

1919년 5월경 워싱턴에서 감리교 선교백년대회에 참석하여 3·1운동 당시의 참상을 연설하고, 같은 해 6월 대한자유공동대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에는 3·1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구제금을 모집했다. 1919년 10월 한인구제회(韓人救濟會) 서기, 1920년 4월 학생연합회 발기인으로 한국친우회(韓國親友會)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1921년 5월 펜실베이니아주 감리교 외국선교사회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참상을 연설하였다. 1923년 뉴욕지방회에서 개최된 3·1절기념식에서 서재필(徐載弼)과 함께 연설하였고, 1931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3·1절기념식에서 친목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22권

안옥자 安玉子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 203번지 출신이다. 활동 당시의 주소는 서울 배화여학교 기숙사이다. 1902년 10월 26일 태어났으나 사망연도는 알 수 없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여학교 뒷산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튿날 석방되었다. 『독립유공자공적조서』

안희경 安喜敬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 144번지 출신이다. 활동 당시의 주소는 서울 배화여학교 기숙사이다. 1902년 8월 10일 태어났으나 사망 연도는 알 수 없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20년 3월 1일 서울 배화여학교 뒷산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튿날 석방되었다. 『독립유공자공적조서』

오희영 吳熙英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용인 출신이다. 1924년 4월 23일 태어나 1969년 2월 1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에 입대하였다가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오광심(吳光心)·김효숙(金孝淑) 등과 함께 여군으로 입대하여 제3지대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2년에는 김학규(金學奎) 제3지대장의 인솔하에 일군의 점령지구를 돌파하여 오광심(吳光心)·이복영(李復榮)·신송식(申松植) 등과 함께 중국군 유격부대가 자리잡고 있는 부양(阜陽)에서 활동하였다.

1944년에는 부양(阜陽)에서 군사 교육 훈련을 마친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단의 1기 졸업생들과 함께 신송식(申松植)교관의 인솔하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중경(重慶)으로 갔으며,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그곳에서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5권

오희옥 吳姬玉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활동 당시의 주소는 중국 중경 토교(土橋)이다. 독립운동가 오광선(吳光鮮)의 차녀이다. 출생연도는 비공개이며 2018년 12월 현재 생존해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青年工作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의 정보수집, 초모(招募)와 연극·무용 등을 통한 한국인 사병에 대한 위무(慰撫) 활동에 종사하면서 1941년 1월 1일 광복군(光復軍) 제5지대(第5支隊)로 편입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4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독립유공자공적조서』

이선경 李善卿 李愛基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수원군 산루리 470번지 출생이다. 1902년 5월 25일 태어나 1921년 4월 21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선경은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30일에 숙명여학교에 입학하고, 1919년 9월 1일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현 경기여자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다. 서울로 통학하는 여학생으로 1919년 3월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15일간 구류를 당하였다. 3·1운동 발발 당시 김세환 밑에서 각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치마 속에 혹은 앞가슴에 비밀문서를 넣어 일제의 눈을 피하고 대전·충주·안성 등지로 수습 차례에 걸쳐 비밀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0년 6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3학년 재학 중 경기도 수원 서호(西湖) 부근에서, 수원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 교사 차인재(車仁載)의 소 개로 임순남(林順男,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최문순(崔文順,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 등과 함께 만나 구제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1.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제2.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의 2대 목표를 표방하고 1920년 6월 20일에 혈복단(血復團)을 구국민단으로 개칭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렸다.

이후 동년 7월경까지 수원 읍내 삼일학교에서 구국민단 부단장 이득수(李得壽)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대한민보>·<독립신문(獨立新聞)> 등의 반포를 담당하기로 서약하고, 또 기회를 보아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맹서하였다. 동년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하여 동년 8월 9일 수원을 출발하여 상해로 향하다가 경성에서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 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때 이선경은 구류 9개월 간 심한 고문으로 재판정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풀려난 지 9일 만인 1921년 4월 21일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매일신보(每日申報)』 1920년 11월 13일자.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

박환, 「수원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수원시사』 8, 2014.

임명애 林明愛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578번지 출신이다. 1886년 3월 25일 태어나 1938년 8월 28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10일·26일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염규호(廉圭浩) 등과 와석면(瓦石面)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구세군(救世軍)으로 3월 10일 교하리(交河里)에 있는 교하공립보통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1백여 명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3월 25일 김수덕·김선명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조선독립운동에 관한 모의를 하고 모두 동리산으로 모이라는 염규호가 쓴 격문 60여 매를 인쇄하였다. 이에 격문을 김수덕·김선명 등에게 나누어 주어 구당리(九堂里)·당하리(堂下里) 일대의 주민에게 배포케 하였다.

그리고 3월 26일에 7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이들을 지휘하여 면사무소로 가서 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고, 면서기들에게도 휴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주재소로 행진하던 중, 연락을 받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일본 경찰의 발포로 군중들 가운데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시위군중은 해산되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이 해 6월 3일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9월 25일 만기 출소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

임순남 林順男 林孝貞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수원군 남수리 187번지 출생이다. 1903년 태어났으나 사망일자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2018년 대통령포장을 추서하였다.

1920년 6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경기도 수원에서 구국민단(救國民團)의 결성에 참여하여 서무부장으로 동년 7월까지『대한민보(大韓民報)』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임순남은 종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조직된 여성단체인 여보호회(女保護會)에서 1920년에 총무로 활동한 바도 있었다.

임순남은 보석 중에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당시 재판정의 모습을 신문 기사를 통하여 알아보자

임순남의 안색은 초췌하지는 않았는데 재판관의 말에 일본말로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본인은 원래 수원삼일학교 졸업생으로 이화학당에 다니던 중 1919년 6월경에 차인제 선생이 사진을 찍자고 하여 수원농림학교 뒤로 갔으며 그 곳에서 이득수와 만나 “조선청년 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물론하고 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자는 이야기를 함으로 찬성하여 구국민단에 참가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판사는 다시 “그러면 지금도 조선독립을 희망하느냐” 물으니 피고는 서슴지 않고 “물론 희망합니다” 대답하며 판사는 다시 “그러면 그 사상은 견고한 것이냐 물었다.” 피고는 다시 “사상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선생님의 말씀과 동서양 역사를 배우는 동안에 위대한 인물이 그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어 보고자 한 것도 사실이나 지금은 학생의 몸인즉 힘써 공부할 것이요 한편으로 부모가 근심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없으므로 자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상은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며 판사는 다시 웃으며 “사상이 매우 단순하군” 하면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여 “피고가 구국민단에 가입하기는 상해정부와의 연락과 과격문서 배포와 재감자 가족 구제인줄 아느냐”고 물으매 피고는 “그 단체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으므로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일본말이 좀 서투른지 때때로 조선말로 대답하겠노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판사는 “피고는 독립운동의 활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암호(暗號)일기 한 일이 있냐”고 물으니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최문순이가 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판사는 증거품으로 일기책을 보인 후 다시 심문은 계속되었다. 이어 “차인제에게 대한민보 삼십여장을 받기는 하였으나 배부치는 못하였다”고 대답하고 판사가 “이선경이가 와서 다 배부하였느냐”고 물으니 “다만 배부하였다고 대답했을 뿐이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 이어서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 적십자(赤十字) 간호부가 되어 힘쓰고자 하든지 또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한 일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판사는 다시 피고가 수원지청 예심정에서 큰 목소리로 “미국 갔다 온 후에 조선이 독립되면

여자 참정권을 운동하겠다 한 일이 있는냐”고 물으니 “그런 일이 있다.”고 대답하고 심문을 마쳤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년 4월 6일자.

박환, 「수원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수원시사』8, 2014.

정현숙 鄭賢淑 鄭正山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죽릉(竹陵) 829번지 출신이다. 체포 당시 현주소는 만주 길림성 부여현(扶餘縣) 대구촌(大溝村)이었다. 1900년 3월 13일 태어나 1992년 8월 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18년 경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별동대장 및 경비대장으로 활동한 부군 오광선(鳴光鮮)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후 1935년까지 만주 길림성(吉林省) 일대에서 독립군의 뒷바라지와 비밀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이후 중국 남경(南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와 함께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결성하여 맹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44년경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당원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13권

조순옥 趙順玉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다. 1923년 9월 17일에 태어나 1973년 4월 2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오광심(鳴光心)·김정숙(金貞淑)·이복영(李復榮)과 함께 여군으로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1940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광복군 총사령부가 서안(西安)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서안으로 가서 총사령부 총무처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

1942년에는 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2분대원으로 편입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5권

오의선 吳義善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본적은 경기도 용인(龍仁)군 원삼면 죽릉리 669번지이다. 1889년 12월 8일에 태어나 1931년 5월 6일 옥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5권

최문순 崔文順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경기도 수원군 남수리 187번지 출생이다. 1903년에 태어났으나 사망연도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2018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수원공립학교(현 신흥초등학교) 출신으로 1920년 6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경기도 수원에서 구국민단(救國民團) 결성에 참여하여 재무부장으로 동년 7월까지『대한민보(大韓民報)』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의 남녀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구국민단(救國民團, 一名 血復團)에 대한 공판이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었는데 당시 최문순의 사실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피고의 성명과 연령과 생년월일 본적 주소를 물은 후에 이득수(李得洙), 박선태(朴善泰), 그 다음에 최문순(崔文順)을 심문하였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판사가 듣기 곤란할 지경이었다. 먼저 “작년 육월 중에 차인제가 사진을 찍으러 오라 함으로 만났더니 이득수가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찬성한 일과 재무부장은 상해 가기 위하여 승락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에 수원의 삼일학교에 모이어

장래에 대한 방침을 의논하였으며 독립운동의 활동 상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암호일기를 기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끝으로 판사는 “그대가 상해로 간 후에 임시정부 간호부가 되어서 장래 일미전쟁(日美戰爭)이 일어나면 일을 하겠다”는 말을 예심정에서 한 일이 없느냐고 물으니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하고 최문순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그 다음에 가토(加藤) 검사가 일어서서 “학생의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함이 정상으로 가련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현재의 정치문제로 보아도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하고 이득수·박선태는 각 징역 삼년, 임순남·이선경·최문순은 각 징역 2개년씩 구형한다“ 하고 앉았다.

김우영(金雨英) 변호사가 “피고가 행한 일이 사회에 아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이상에 될 수 있으면 무죄로 하고 유죄의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되기를 바란다”고 변론한 후 폐정하였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21년 4월 6일자.

어유희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본관은 함중(咸從). 충청북도 충주 출생. 어현중(魚玄仲)의 무남독녀이다.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16세에 결혼하여 3일 만에 남편이 동학군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죽어 청상과부가 되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개성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1910년에 북부교회 교인이 되었다.

1912년 개성 미리흠여학교(美理欽女學校) 기예과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전도사로 외딴섬의 전도와 독립정신계몽을 자원하였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수백장이 북부교회 목사 강조원(姜助遠)에게 전달되었으나 그가 소심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자, 어유희가 보따리장사를 가장하고 대낮에 집집마다 독립선언서를 돌렸다.

이것을 본 호수돈여학교 사감 신관빈(申觀彬), 장님전도부인 심명철(沈明哲) 등이 합류하였다. 그 결과 개성의 만세시위운동은 여성들에 의하여 선도되었다. 만세시위 주모자로 잡혀 2년간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고자 재감자들과 긴밀히 연락하여 일제히 옥중만세를 불렀다.

출감한 뒤에도 독립운동자들에게 비밀리에 여비를 마련하여주었으며, 육혈포 탈환 등을 감추어 전달하기도 하였다. 노년에 개성에 유린보육원(有隣保育院)을 설립하여 고아사업을 하였으며, 6·25 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1952년

서강교회 장로로 10년간 시무하였으며, 1953년 나이팅게일기장, 1959년 인권옹호공로표창을 받았다.

그뒤 서울 마포에 서강유린보육원을 설립, 운영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s://encykorea.aks.ac.kr>), '어유희'

| 참고문헌 |

2부 경기도의 여성역사인물

- 강전섭, 1986, 황진이연구, 창학사
- 황재근외, 1997, 한국문학과 여성, 도서출판 박이정
- 김지용, 2005, 한국역대여류한시문선, 명문당
- 김영진, 2006, 기생열전 황진이, 도서출판 큰방
- 이수광, 2009, 조선을 뒤흔든 16인의 기생들, 다산초당
- 김성남, 2003, 허난설헌, 동문선
-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정룡, 2008, 허난설헌 평전, 새문사
- 나카이 겐지(仲井建治)著/허미지譯, 2003, 일본인이 본 허난설헌 한시의 세계, 국학자료원
- 이경혜, 2008, 스물일곱송이 붉은 연꽃, 알마
- 정병설, 2014,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혜경궁 홍씨(정병설 옮김), 2010, 한중록, 문학동네.
- 이동화, 2014, 경기는 명당이다 : 이야기경기 600년, 가계소량, 76~83p
- 정은임, 2010,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문학적 성격 VII-정조의 생애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 전미현, 2002,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삶의 지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2014, 명성황후 최후의 날, 딸글빛넵
- 이은유, 2009,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이름
- 구분만, 2010, 명성황후, 쓰러져 가는 조선의 한줄기 불빛, 경기도답사기, 푸른역사(경기문화재단), 387~402p

- 이태진, 2015, 명성황후, 어떤사람이었던가?, 조선의 국모는 누가 죽었나? (명성황후 시해 120주기 추모 세미나), (사)명성황후 추모사업회
- 윤유석, 2016년, 샘골사람들, 최용신을 말하다, 최용신 기념관.
- 김명옥, 2017년, 백년을 앞선 선각자 최용신의 외로운 진실, 책과 나무.
- 이동화, 2014, 경기는 명당이다:이야기 경기 600년, 가계소량, 53~54p
- 윤범모, 2005, 화가 나혜석, 현암사, 38p, 68p, 116p, 148p, 192p, 194p, 212p, 248p.
- 이구열, 2011, 나혜석: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서해문집, 26p, 516~522p.
- 이명원, 2006, 나혜석과 근대이행기의 여성적 자의식, 땅은 글이 되고 물은 시가 되고(경기문화재단), 한울, 56p.
- 한동민, 2013, 나혜석: 불꽃 같은 삶, 기록인(IN)(제24호), 45~49p.
- 이동화, 2014, 경기는 명당이다:이야기 경기 600년, 가계소량, 54p, 219~220p.
- 좌혜선, 2012, 작가 나혜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경기여성인물>-나혜석

3부 전통시대 경기도의 여성인물

- 『삼국사기』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대재, 「'삼국사기' 都陽傳의 世界」, 『先史와 古代』 第27輯, 한국고대학회, 2007.
- 이성희, 「도미설화연구」, 『高鳳論集』 第26輯,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손정인, 「<都陽傳>의 인물형상과 서술방법」, 『어문학』 제80호, 한국어문학회, 2003.
- 김용선 편저, 「최루백 처 엄경에 묘지명」,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상,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3.
- 홍원표, 권순형, 「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생활 연구-엄경에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논문집』 제37집, 2005.
- 김난옥, 「엄경애의 婦道와 가정생활」, 『한국사시민강좌』 제39집, 일조각, 2006.

『정일당유고』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1, 2005.

이은선,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의 생애와 학문에 나타난 유교 종교성

탐구 :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남이, 「姜靜一堂의 ‘代夫子作’에 대한 고찰-조선 후기 사족여성의 글쓰기와 학문적 토양에 관한 보고로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1집, 2005.

경기도,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1, 2001.

『윤지당유고』

崔然美, 「임윤지당의 생애와 『윤지당유고』」, 『書誌學研究』 第17輯, 한국서지학회, 1999.

김경미, 「〈한겨레역사인물평전 100〉 ; 임윤지당 평전 : 여성의 발견, 임윤지당」, 『연보와 평전』 7,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2012.

구민정, 「임윤지당 考」, 『역사와 역사교육』 제23호, 웅진사학회, 2012.

「법보신문」, 「고양신문」, 「오마이뉴스」

고양시사편찬위원회, 『고양시사』 제3권, 2005.

조상우, 「고양시 설화의 내용과 현실인식」, 『동양고전연구』 제60집, 2015.

정혜은,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인들」,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2, 경기도, 2002.

『속중실록』, 「숙빈최씨신도비명」

이영춘,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상장례」, 『조선시대사학보』 제52집, 조선시대사학회, 2010.

박숙현, 『태교는 인문학이다』, 북앤스토리, 2014

박용만, 「이시주당의 생애와 학문세계」, 용인시 · 이시주당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자료, 2017

배병철, 『다시보는 태교신기』, 정보사, 2005

심경호, 「사주당이씨의 삶과 학문」, <http://blog.naver.com/bhjang3/140019503719>

이숙인, 「사주당이씨의 삶과 사상: 살림의 정신과 실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학술대회 자료, 2015

조혜란, 「18세기 여성의 저술활동과 사주당의 ‘태교신기」」,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학술대회 자료, 2015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김남윤, 「소현세자빈 강씨의 심양관생활」, 『역사연구』 제24호, 역사학연구소, 2013.

이왕무, 「昭顯世子嬪 姜嬪의 獄事와 伸冤」, 『역사와 담론』 제69집, 호서사학회, 2014.

김남윤, 「조선여인이 겪은 호란, 이역살이, 환향의 현실과 기억 -소현세자빈 강씨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7호, 역사학연구소, 2007.

김우진, 「肅宗의 昭顯世子嬪 姜嬪 伸冤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제83호, 2017.

『頤齋亂藁』, 『閑中錄』, 『정조실록』

김정자, 「정조대 전반기의 정국동향과 정치세력의 변화(2) -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78집, 조선시대사학회, 2016.

김지영, 「18세기 후반 정조대 ‘元子’의 탄생과 胎室의 조성」, 『藏書閣』,
제3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濬源系譜記略

<https://www.anseong.go.kr/tour/contents.do?mId=0303010000>

문화원형백과(<https://terms.naver.com>) ‘바우덕이 일화’

「매일신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18권, 2010. <수원박물관 홈페이지> 자료.

소현숙, 「3 · 1만세운동에 나선 수원기생들」,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2, 경기도, 2002.

宋芳松, 「조선미인보감’소재 기생열전」, 『한국무용사학』 제10호, 2009.

이설희, 「‘조선미인보감’에 나타난 기생조합과 권번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경기그레이트북스 23

경기도의 여성인물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23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집필 김세민, 유사랑, 이달호, 이동화, 전구주

편집 진 디자인 (전화 031-256-3614)

인쇄 우리들행복나눔

ISBN 979-11-958557-8-0

979-11-958557-1-1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